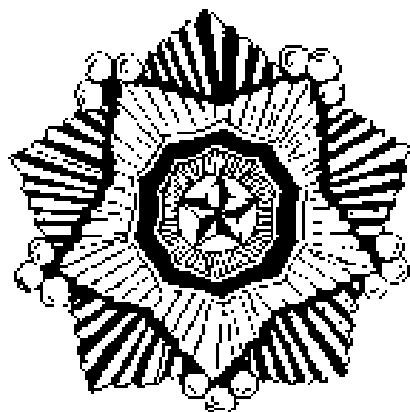




9

주체 88 (1999)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88(1999)년 제9호

(루계 제 623 호)

◇◇◇◇◇◇◇◇◇◇

## 차 례

◇◇◇◇◇◇◇◇◇◇

위대한 나의 조국이며 .....	4
장군님따라 준마로 달리자 .....	4
공화국기발을 바라보며 .....	5
언제나 어머니의 뜻을 새기시고 .....	7
신기한 총알 .....	8
성강의 봉화 .....	9
백두산의 돌 .....	11
9 월의 밤 .....	12
첫 녀성락하병들 .....	17
향도의 별 .....	26
어머니의 미소 .....	27
백두산녀장군의 위인상에 대한 감동깊은 형상 .....	29

영원한 초침소리 .....	32
혁명의 1 세대들의 태도 .....	33
푸른 하늘, 푸른 바다 .....	34
동무들아 군복을 입자 .....	36
청춘, 사랑 .....	36
명절전야에 .....	37
앞으로! .....	48
두번째 상봉 .....	49
고지엔 병사들만 있지 않다 .....	58
영원한 복부 .....	59
감자오그랑죽 .....	67
잊을수 없는 추억 .....	68
백두가 말하는 소리 .....	78
고향이여 .....	78
서로 다른 길을 걸은 두 형제작가 .....	79
나에게는 영웅제자가 있다 .....	80

# 위대한 나의 조국이어

림공식

행복한 날 내 미처 다 알았던가  
고난을 이기며 사는 나날  
더더욱 심장깊이 뜨거워지는것  
얼마나 위대한 조국의 품에  
내 안겨 사는가

장엄한 백두의 해돋이로  
찬연히 누리를 밝히고  
구보로 달리는 준마의 말발굽소리로  
강성부흥의 위력을 떨쳐가는  
한없이 정답고 귀중한  
나의 조국이어

인류력사 백만년에  
가장 풍파사나운 현세기  
그 거칠고 험한 날바다에서  
우리 수령님 청춘을 다 바쳐  
이 조선을 구원하시고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천출위인의 담대한 지략으로  
아직 세상이 알지 못하는  
《봉쇄》의 얼음장을 박살내시며  
《압살》의 창끝도 쳐갈기시며  
선군혁명령도의 거룩한 자욱으로  
그대를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나니

정녕 그이 아니셨더라면  
그처럼 참기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의 그 길을  
우리 어떻게 걸어올수 있었고  
휘몰아치는 시련의 광풍을

그 어이 웃으며 헤칠수 있었으랴

장군님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속에  
폭포처럼 흐르는 쇠물이어  
동음소리 우렁찬 증소형발전소들과  
긴 세월의 주름살을 쭉 펴고  
나날이 젊어지는 드넓은 벌들이여

일심단결의 억센 힘으로  
비약의 나래를 퍼덕이며  
아득한 저 우주공간에  
조선의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빛내이며  
강성대국으로 도약하는  
그대는 위대한 나의 조국

불굴의 기상과 슬기로  
막강한 국력의 상징으로  
송엄히 불리워지는 그 위대한 부름은  
우리 장군님 엄동설한에 발을 얼구시며  
쉬임없이 찾으신 최전연초소에서  
힘찬 활력을 부어주시던  
공장과 포전들에서 높이 울려오지 않았던가

비약하고 또 비약하는  
나의 조국이어  
동터오는 새 세기에  
그대는 존엄높은 강성대국

아 자랑하노라  
노래하노라  
**김정일**장군님 높이 모시여  
위대한 나의 조국이어

가 사

## 장군님따라 준마로 달리자

안정기

《고난의 행군》길에 강행군이 이어져도  
그 언제 우리 걸음 늦춘적 있었던가  
총신의 걸음새엔 평보가 없다네  
구보로 가자 장군님따라 준마로 달리자

진격의 북소리에 전기는 번개치고  
풍요한 대지우엔 감자꽃 펼쳐지네

제힘을 믿고가면 승리가 온다네  
구보로 가자 장군님따라 준마로 달리자

락원의 행군길에 강성대국 령마루에  
붉은기 휘날리며 나래쳐 올라서자  
오늘의 위훈속에 미래가 있다네  
구보로 가자 장군님따라 준마로 달리자



## 공화국기발을 바라보며

9월의 맑은 하늘가에 공화국기가 나뭇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존함으로 빛나는 내 조국의 성스러운 력사와 빛나는 전통,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며 창공높이 펄펄 나뭇기는 람홍색공화국기발.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세상에 그 이름 떨칠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비껴안고 힘차게 퍼덕이는 우리의 기발.

해빛밝은 9월의 이 아침,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금수산기념궁전의 지붕우에서 세차게 펄럭이는 공화국기를 숭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 어찌하여 이다지도 뜨거움에 젖어드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입니다. 수령님을 떠나서 세계에 빛을 뿌리는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수령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입니다.》**

공화국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귀전에 51년전의 그날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주인된 기쁨과 자랑안고 우리 인민이 환희에 넘쳐 부르던 노래소리가 울려온다.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새 기발 높이여 삼천만은 나섰다  
산천도 노래하라 이날의 감격을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다  
아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돌이켜보면 나라잃은 망국노의 설움속에서 일제가 강요한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메고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던 우리 민족이였다.

숨은 붙어있어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고 세상은 넓어도 죽어 묻힐 한패기 땅조차 없던 우리 인민, 자기의 운명을 두고 제단앞에 빌어도 보고 남에게 청원도 해보았으며 이 나라의 산야에 비분의 선혈도 뿌려보았으나 그 모든것이 가져다준것은 좌절과 실패의 쓰디쓴 눈물뿐, 슬픔과 비애에 젖은 운명뿐이였다.

불행과 도탄에 빠져 신음하며 빛을 잃고 쓰러져 가던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 재생의 서광을 안겨주시고 진정한 삶과 행복의 터전, 참다운 조국을 마련해주신분은 우리 인민이 반만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만고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구세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천리혜안의 예지로 조국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며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세워주시면서 그 빛나는 상징으로 되는 국장과 국기까지 구상하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신 위대한 수령님.

공화국창건준비로 다망한 나날을 보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느날 해당 일군을 부르시여 새로 만드는 국기는 단색으로 하지 말고 붉은색, 흰색, 푸른색을 넣어서 다른 나라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조선적인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국기도안작성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국기에 붉은색을 넣자는것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조선의 진정한 혁명가들이 흘린 피와 우리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혁명력량을 반영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국기의 흰색은 조선은 찬란하고 유구한 민족문화를 가지고있는 하나의 민족국가라는것을 나라내게 될것이며 푸른색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씩씩한 기백과 공화국의 자주권을 상징하게 될것이라고 그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친히 하나하나 풀이해주시였다.

도안작성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국기와 국장 도안을 작성하느라고 하였으나 반당반혁명분자들의 방해책동으로 완성하지 못하였다. 반당반혁명분자들은 공화국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거부하면서 국기의 동그라미안에는 보 습을 그려넣으며 국장의 형태는 옛날 구리 거울모양으로 동그랗게 하고 그안에 경복궁을 그려넣으라고, 그래야 《조선적인 특성》이 살아난다고 강요하였다.

도안작성가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해 모대기고 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부르시여 도안작성에서 결린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국기도안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기에 흰것과 푸른것이 너무 많다고, 국기를 붉은색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흰색과 푸른색의 조화를 맞추며 흰 동그라미안에는 미래의 승리를 상징하는 붉은 오각별을 그려넣으며 오각별을 국장도안의 윗부분에도 그려넣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손수 종이에 그림을 그리하시며 국기도안을 완성해주시고 국장도안에는 경복궁이 아니라 전기화가 실현된 부강하고 문명한 우리 나라의 발전전망을 보여주는 발전소를 그려넣도록 하시였다.

공화국 국기와 국장 도안은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착상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훌륭히 완성되게 되었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아름답고 새기면 새길수록 뜻이 깊은 람홍색공화국기발.

오각별 찬연한 저 기발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리 승리적으로 전진해온 우리 조국의 력사, 온갖 고난과 시련을 헤쳐온 우리 혁명의 만만사연이 어려여있다.

미제를 쳐부신 승리의 상징으로 화선천리 고지마다에 휘날리던 포연탄우에 찢기고 그슬린 공화국기발.

전후 재가루만 날리던 폐허우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운 기적과 위훈을 자랑하며 사회주의대전설장들마다에 휘날린 공화국기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존엄과 자주권의 상징으로 세계 5대륙 방방곡곡에 휘날리는 우리의 기발.

가없이 펼쳐진 가을하늘을 배경으로 펄펄 나뭇기는 우리의 기발-공화국기발, 저 기발에는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애국, 애민, 애족의 위대하고도 성스러운 한생이 어려여있고 력사의 준엄한 폭풍우를 과감히 뚫고 헤쳐온 우리 인민의 간고하고도 피어린 투쟁력사가 아로새겨져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미친듯이 몰아치는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광풍속에서도 공화국기발을 더욱 깨끗이, 더욱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자랑찬 승리와 영광만을 그 붉은 기폭에 아로새기며 희망찬 21세기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의 유산인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더불어 빛내이시려는것은 우리 장군님의 드팀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지난해 9월 5일, 세계의 이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가 진행되는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으로 집중되었다.

세계는 이번 회의에서야말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국가주석으로 추대되실것이라고 확신해마지 않았다.

그날 사람들의 예상과 기성관례를 뒤집으며 만수대의사당 회의장에서 울려나온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의 육성록을 !

뒤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의 채택!

그것은 한없이 -위대하고 순결무구한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 어버이수령님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하여 수령님의 생전의 념원대로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 세우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안아온 아직 세계가 알지 못하는 류례없는 사변이었다.

진정 우리 장군님은 력사에 전부후무한 위대한 인간,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말기고 가신 내 나라, 내 조국. 내 민족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세차게 몰아치는 력사의 폭풍우속에서도 언제나 한번 숙어들줄도 모르고 그 어떤 퇴색도 모르고 더더욱 힘차게 펴럭이며 나뭇기는 우리의 공화국기발.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국기도 많아 각양각색 제 나름의 모습을 자랑하지만 우리 공화국기발처럼 빛나는 력사, 자랑스러운 전통, 무궁한 미래를 안고있는 기발이 또 어디 있으랴.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그 붉은 기폭에 더욱더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승리와 영광의 력사, 기적과 위훈의 력사만을 새겨갈것이다.

그 승리와 영광, 기적과 위훈으로 저 기폭의 붉은 색조는 더욱더 선명할것이며 . 오각별은 더욱더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니.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존함으로 빛날 내 나라, 내 조국의 무궁번영한 미래를 안고 세기의 하늘가에 나래치는 공화국기발이여!

본사기자



## 언제나 어머니의 뜻을 새기고

주체56(1967)년 8월초순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바다가에 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사를 올리는 항일혁명투사가족들에게 오늘은 마음껏 해수욕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어 항일혁명투사들과 그 가족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한자리에 둘러앉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좌석을 둘러보시며 오늘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오래동안 혁명을 해온 로혁명투사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기쁘기도 하고 생각되는것도 많다고 하시며 밝게 웃으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언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앉겠습니까, 뜻깊은 이 기회에 말씀을 하여주시었으면 합니다라고 간청하였다. 그것은 자리에 모여앉은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심중의 소원이기도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바다가 저 멀리 눈길을 주시였다가 생각깊으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여기 모인 동지들도 다 알고있는 바와 같이 나는 너무나도 일찌기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보니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어머니께서 계시지 않으니 수령님의 사업을 누가 가까이에서 보좌해드리겠는가 하는 근심이 더 컸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과 그 가족들의 가슴은 미여지는것만 같았다. 어떤 사람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굽을 닦았다.

주체38(1949)년 9월 21일.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리신 김정일장군님을 가까이 불려앉히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광복의 최후공적전을 벌리던 시기에 입으셨던 군복을 넘겨주시며 아버지장군님을 잘 모셔야 한다고, 아버지께서 건강하셔야 우리 나라가 더 튼튼해지고 인민들이 더 잘살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유언으로 남기시였다.

위대한 김정숙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뜻깊은 말씀을 늘 가슴깊이 안으시고 어머니를

대신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려고 그토록 밤낮없이 애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투사들과 가족들은 눈물이 솟구쳐올라 소리없는 울음을 삼키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남기신 어머니의 절절한 음성이 귀전을 울리는것만 같으셨는지 한동안 바다쪽에 눈길을 주신채 아무 말씀이 없으시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좌중을 둘러보시며 마음갈아서는 밤낮이 따로없이 일하시는 수령님의 사업을 내가 다 도와드리고싶었지만 어찌겠습니까, 나이가 나이인것만큼 너무도 어린 나로서는 그 큰 일을 다 보좌해드릴수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깝고 속상했을뿐입니다, 나의 이런 걱정을 바로 여기에 모인 항일혁명투사들이 덜어 주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는 일찌기 세상을 떠나셨지만 새 조국 건설을 위한 막대한 사업을 령도해나가는 수령님의 사업을 항일혁명투사들과 그 가족들이 진심으로 도와드렸으며 수령님께서 혁명동지들의 그 사랑에 받들려 오늘까지 건강하신 몸으로 당과 국가, 군대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수령님을 따라 우리 혁명의 여러 단계를 겪어보면서 이에 대하여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를 보다 큰 힘과 용기로 바꿀수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혁명투사들이 지난날에 그러했던것처럼 앞으로도 혁명의 한길에서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새기면 새길수록 가슴을 뜨겁게 올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며 항일혁명투사들과 그 가족들은 장군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수령님께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끝까지 충성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조선혁명의 심장이라고 하시면서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높이 드신 위대한 김정숙어머님의 뜻, 생애의 마지막순간에 남기신 어머니의 유언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아버지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심려와 로고를 하나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고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유훈을 지켜  
내 나라, 내 조국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  
설하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고계시  
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 백두산녀장수전설

# 신기한 총알

어느날 쪽발이 왜놈들과의 싸움이 한창 벌어지  
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왜놈들이 쏘아대는 총알들이 **김일성**장  
군님께서 계시는 산릉선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하  
였다.

한무리의 왜놈들이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산릉선쪽으로 기여들고있었다.

싸움을 하시면서도 장군님의 신변에 깊은 주의  
를 돌리고계시던 백두산녀장수 김정숙동지께서는  
비호같이 바위크랑과 진대나무들을 뛰어넘어 맞  
은편 산릉선에 오르시였다.

산릉선에 오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총을 드시  
더니 하늘공중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시였다.

《땅!》

김정숙동지께서 쏜 총알은 눈부신 빛을 뿜으  
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러자 별안간 이상한 일이 생겼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산릉선쪽으로 날아가  
던 왜놈들이 쏜 총알들이 일시에 꺾 방향을 바꾸  
더니 김정숙동지께서 쏜 총알을 따라 하늘로  
날아오르는것이였다.

이게 어찌된셈인가?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산릉선으로 기여들던  
왜놈들은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처럼 눈을 홑뜨고  
데룩거리다 맞은편 산릉선우에 우뚝 서계시는  
김정숙동지를 보자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 올라가  
며 총을 쏘아대기 시작하였다.

왜놈들이 쏜 총알은 어머님께서 서계시는 산릉  
선으로 비발처럼 날아왔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이  
땅우에는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생전의  
념원이 찬란한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것이다.

어머님께서서는 조금도 겁내는 기색이 없이 태연  
하게 총을 드시더니 이번에는 개무리처럼 게바라  
올라오는 왜놈들의 한복판에 대고 방아쇠를 당  
기시였다.

《땅!》

총구에서 튀어나온 총알은 왜놈들의 한복판으  
로 날아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겨났다.

비발치듯 날아오던 왜놈들이 쏜 총알들이 어머  
님께서 쏜 총알의 뒤를 따라 방향을 바꾸더니  
거꾸로 되돌아 날아가는것이 아닌가.

그 총알들은 신통히도 총을 쏜 왜놈들의 가슴  
팍에 푹푹 박히는것이였다.

《헉! 아이쿠!》

《아이쿠!》

왜놈들은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며 피를 토하  
고 쓰러지였다.

어머님께서 총을 쏘실 때마다 왜놈들이 쏜 총  
알들은 매번 그뒤를 따라 거꾸로 되돌아 날아가  
군하였다.

《총을 쏘지 말라. 총을 쏘면 죽는다.》

왜놈들은 너무도 바빠맞아 총들을 내동댕이치  
고 정신없이 도망치다 유격대원들이 쏘는 총알에  
맞아 한놈도 살아남지 못하고 몽땅 황천객이 되  
고 말았다.

대체 이런 신기한 조화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김일성**장군님을 목숨바쳐 보위하신 백두산녀장  
수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마음이 그이께서 쏜  
총알마다에 깃들었으니 어찌 신기한 일이 생겨나  
지 않으랴.



## 성강의 봉화

리영삼

### 구내길에서

뜻밖의 소식에  
심장만이 툭툭  
걸음마저 굳어진  
드넓은 구내길에서

아, 장군님 !  
전선길 천리 또 천리  
다시 자강땅 돌아  
곧바루 여기 오셨다는  
뜨거운 첫 생각

젖어드는 눈굽을 들어 우러르니  
꿈처럼 마중오시는 장군님  
간고한 날을 맞받아나가는  
위대한 자욱자욱을 옮겨  
창조의 기록한 숨결을  
구내가득 채워주시는 장군님

삼가 아뢰일 말은 무엇-  
나에게 입이 있어도  
혁명의 뜻 모아  
생사의 뜻 모아  
쇠물이 대답을 올려야 하는 때

겹쌓인 피로도 잊으시고  
환히 웃으시며  
수고를 헤아리신 그이  
구내가득 활기를 주시고  
가슴마다 격려를 주시니

이 한몸 파철되어  
이글거리는 로속에 뛰여든들 어찌리  
이글거리는 사랑안고  
강쇠로 굳어진들 어찌리

기뻐서 너무 기뻐서  
목청껏 부르는  
우렁찬 만세여  
너 시련에 부딪친들 흠이지랴  
지구가 깨여진들 사라지랴

창창한 래일을  
확신한 환호여  
보답으로 빛날  
위훈의 날과 날들에  
심장에 끓어  
이 구내길에 영원할 메아리여

### 쇠물이 끓어

태양의 미소에  
충천하는 화광인가  
고르로이 흐르는 전기로의 벽찬 숨결  
하늘가에 비껴가는 쇠물의 노을

로장도  
애송이 젊은이도  
그 노을빛에 물들어  
한점 부끄럼없이  
장군님을 우러른다  
키돋움한다

북받치는 감격에  
키솟구는 성장  
힘살이 튀여오른 손으로  
움켜쥔 쇠장대끝에서

이글거리는 쇠물이어

생존과 직결된 일원단심이  
눈물겨운 충성을 보이는 이 시각  
장군님의 심중에도  
끓어오르는 뜨거운

사랑보다 강하고  
쇠물보다 뜨거운  
불붙는 충성의 도가니인가  
성강의 마음이 쇠물로 끓어  
장군님 보시는 로동계급의 신념이어

다시 한번 산악을 움직이리라  
강성대국을 떠올리리라  
장군님 힘주어 손길드릴 때

새 세기의 지평어

칼팔 쏘는  
주홍빛 쇠물에  
마주선 숨결이 뜨겁다  
마주선 눈길이 불탄다

확확 뿜는  
열기속  
진지하게 끝까지 맞선 자세  
쇠장대보다 더 끈고 굳다

사품치는 화염속에  
헉떡고리 하나 더 조였어도  
처지지 않는 어깨들이  
로벅이 되어 끓는듯

출강 출강이다

활짝 열리지여라

## 출강이다

부르며 웨치며  
넋을 부어  
신념을 끓여  
쇠물의 열도를 더해가는 용해장

여기선  
절로 배짱이 생기고  
절로 기지가 생기고  
재미가 있고 성수가 난다  
침체란 답보란 없다

오, 장군님만을  
굳게 믿는 조선의 힘이  
강철로 굳어진다

## 쇠물의 대

돌이켜보면  
여백없는 자서전에  
빈터며 그우에 풀어헤친  
언 밥괵이 보여진다

째없이 쌓아올린 로벅에  
선잠 털고  
떠오르는 거울해를 향해  
웃음을 앞세웠던  
마음의 여유가 보여진다

백톤 전로가 불쑥 통채로  
하늘에 떠오른듯  
불노을로 불려온 아침은 그 얼마  
자랑찬 년대가 손저어준다

순간도 랑비할수 없어  
불의 노도속으로  
불새같이 육박하며

온 나라에 철의 갑옷을 입힌  
생생한 기억들이 있다

고난과 시련에 동면하는  
파충류의 안일을 파철처럼 로속에 처넣고  
끓여 사품쳐  
강철의 날가리를 조국에 쌓는 나날

어제도 묵묵히  
오늘도 묵묵히  
어려워도 조국의 밝은 날을 사는  
평범한 공민인 나에게  
굳이 묻지 말라

쇠물의 대  
충효의 대  
계급의 대를 지킨  
식지 않는 사랑 녹슬지 않는 신념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를

## 성강의 봉화

꺼질줄 모르는  
불  
불의 뽀부리여

쇠물의 봉화가  
밤하늘  
밤바다

온 누리를 지배하는곳

떠가던 구름도  
불노을에 몸을 씻는다  
회고원 눈송이도  
붉은 꽃잎처럼 내린다

무쇠발굽에 번개안고

쇠내 흠뻑 날리며  
성강에 타올라 역경을 불태운다  
열풍을 일으킨다 온 나라에

너의 눈빛 나의 눈빛  
마주선 가슴마다 불당겨  
신들메 바짝  
탕개 바짝  
늦춤없이 달리는 대고조의 봉화

장군님의 의지로

드세게 타오른  
신념의 봉화여  
내 조국의 벽찬 기상  
불굴의 넋이여

일떠서는  
조국의 부강을 이야기하는 너  
너 꺼지면  
나도 꺼지리라

## 백두산의 돌

(총련) 안영덕

백두산에 올라  
부석을 손에 드니  
아 가볍구나  
백두산의 돌은

그러나 이 마음속엔  
이 돌이 천만근으로 무겁구나  
불처럼 타오르는 뜨거움이  
목메이는 격정으로 사무치누나

바라보아라 저 푸른 산발들  
바라보아라 저 만리광야  
그 어디에나 흘린 더운피  
용암처럼 끓지 않은곳 있느냐

바로 이 땅이  
저 광야가  
위대한 수령님 헤치신 피어린 밀림  
아 바람소리 가슴을 친다

한치한치  
목숨과 바꾼 땅  
들꽃에도 사랑이 이슬로 맺혀  
붉은 빛이 물들어있는 땅

이 땅의 생명인  
백두성산의 돌  
이 돌이 그대로 조국이어서  
어찌 가벼울수 있으랴 !

(조선대학교 문학부)

## 9월의 밤

최봉무

밤, 밤은 깊어가고있었다.  
금수산기념궁전 뒤쪽 숲속에서 소쩍새가 운다.  
강철빛 하늘에 도골도골 여물어 반짝이던 별들도 어느덧 푸릿한 빛을 띠며 조을고있는듯싶다.  
어디선가 류성이 긴 포물선을 그리며 기념궁전 상공을 지나 대성산혁명렬사릉쪽으로 사라진다.  
주체87(1998)년 9월 8일 밤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눈곱을 적시며 대의원증을 들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나라의 최고수위에 모시고 새로 수정보충한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한 감격을 안고 리을설은 금수산기념궁전의 화강석마당가를 끝없이 거닐고있었다.

승엄히 발걸음을 옮겨놓다가는 항일의 설한풍에 청동빛으로 변해버린 얼굴을 들어 기념궁전정면에 모셔진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무어라고 말씀 올리고 몇걸음 더 거닐다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또 알쓸올리었다.

떠들떠들 더듬는듯한 그의 음성은 고요한 밤대기를 타고 나직하면서도 점점 또렷하고 정확하게 울리었다.

《수령님, 그리고 저희들은 오늘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새롭게 수정보충한 헌법을 채택하였습니다. 헌법에서는 수령님을 국가의 영원한 주석으로 모셨습니다. 조국을 광복하고 우리 공화국을 세우던 반세기전 9월의 그날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리을설은 억제할수 없는 크나큰 감격에 휩싸여 서인지 뒤말을 잊지 못하고 어린애들처럼 두입귀로 흘러드는 눈물을 감쌀았다.

깊은 자감의 세계에 가뭇하게 빠져들어간 그는 한동안 서있다가 몇번 심호흡을 하며 가까스로 진정하고나서야 방금 오늘의 이 격동을 혼자서는 묵새길수 없어 대성산혁명렬사릉의 김정숙동지를 찾아가 말씀올리고 왔다는 말을 덧붙여 아뢰었다.

《... !! ...》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윽히 미소하고계시는듯싶었다.

리을설의 심장은 튀어나올듯 툭툭 뛰었다. 그럴수록 흥분을 억제할수 없었고 울릴 말씀의 두서며 내용을 종잡을수 없었다. 그저 끊임없이 솟구쳐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말씀울릴뿐이었다.

《...저는 회의장에서 50년전... 아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첫 수반으로 모시던 그날이 자꾸 떠올라 더욱 눈물이 쏟아져내리고... 게다가 새 감격

이 함께 복받쳐 건딜수 없었습니다. 아, 수령님 ! ... 인제는 그날의 증견자도 몇사람뿐인것 같습니다.》

《그렇구만 그래. 을설이, 정말 그렇구만...》

리을설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령님의 귀익은 우렁우렁하고 친근한 음성을 듣고있었다. 분명 수령님께서는 생전의 그 음성으로 말씀하고계시었다.

리을설의 가슴은 더욱더 뛴뛰었다. 정녕 반세기전 주체37(1948)년 9월의 그날밤이 눈앞에 어리어와 진정할수 없었다.

그날밤도 리을설은 록음이 우거지고 야외등불빛이 희미한 아버지수령님의 집무실앞에 지금처럼 서있었다.

《소쩍- 소쩍-》

깊은 밤의 고요를 깨뜨리며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간단없이 울려왔다. 밤하늘에 류성이 긴 포물선을 그리며 해방산너머로 사라지고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있었다.

해방된 조국의 아음마저 그토록 가슴을 뭉클하게 자극하는 행복한 밤이었다.

경위대대장 리을설은 보조소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청사 2층집무실을 줄곧 올려다보았다.

창가에는 불빛이 환하였다.

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기 위한 남북총선거를 승리적으로 끝내고 력사적인 공화국창건준비의 비쁘신 나날을 보내고계시는 장군님께서 자정이 넘었는데도 일을 보고계시는것이였다.

항일의 나날 장군님을 모시고 혈전만리를 헤쳐온 리을설은 저렇듯 사업에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고계시는 장군님께 좀 쉬시도록 청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어제도 많은 전우들이 찾아와 하루밤만이라도 편히 쉬실것을 권했으나 장군님께서는 도리어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것처럼 그림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데 무슨 피곤이겠는가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었다.

그래서 그들은 김정숙동지를 만나 말씀올리려고 집무실청사에서 좀 떨어진 데에 찾아갔다가 김정숙동지께서 손수 놀러 올라오신 농마국수만 대접받고 돌아섰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리을설대대장이였다. 지금 함수석으로 깨끗이 미장한 저 수수한 건물의 집무실에서 조선인민의 진정한 정권인 공화국의 첫 고고성이 준비되고있으며 자신이

귀중한 이밤을 지켜섰다고 생각하니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암흑을 밀어내는 광원인양 불수록 불빛이 환한 집무실창가에 눈길을 준채 조용조용 걸었다 가슴은 끝없이 울렁거리고 마음은 그저 어디론가 뚝뚝 떠가는 기분이었다.

정문가까이로 걸어가던 리을설은 길옆 잔디밭에 약간 비켜서며 걸음을 멈추었다.

은백양나무가 서있는 보초소앞에서 나어린 보초병과 항일의 군복차림을 하신 김정숙동지께서 소곤소곤 무슨 말을 주고받고계셨다.

(웬일로 이밤중에 나오셨을까?)

하는 의문이 문득 갈라들었다. 그래서 숨소리를 죽이고 살거머니 귀를 강구니 밤공기를 타고 주고받는 이야기가 또렷이 들려왔다.

《...고향이 대동군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계신다면...》

《네, 농사를 짓습니다.》

《오늘은 야외훈련까지 했으니 피곤할텐데 내게 충을 넘겨주고 좀 쉬세요. 자, 어서!》

《안됩니다. 안됩니다. 인젠 저희들을 위하여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맛있는 음식이 생겨도 그렇고 늘 우릴 먼저 생각하시는데. 참, 겨울에는 불독까지 달궂다 주셨다는데... 경위대대장동지가 아시면 큰 변이 납니다.》

오늘아침에도 우리 신입대원들은 경위대대장동지한테서 산에서 싸우실 때 어머님께서 들려주신 밤하늘의 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방금전까지 전 저 별들을 바라보며 그걸 생각했습니다. 우린 절대로 보초를 양보할수 없습니다. 빨리 들어가 쉬십시오. 네?! 》

리을설대대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마음을 종잡지 못하고 서성거릴뿐 더 다가가지 못하였다.

나어린 보초병은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다. 그가 끝내 양보하지 않자 김정숙동지께서는 하는수없으셨던지 다정하게 그의 옷자락을 바로잡아주시며 미소하시었다.

(그럼 그럴테지. 산에서 고생하신 김정숙동지를 또 보초소에 서시게 할수야 없지.)

리을설은 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 순간 보초병이 막내동생처럼 사랑스러웠다. 어찌나 대견한지 막 달려가 포옹이라도 해주고싶은 심정이였다.

이때 청사모퉁이를 돌아나오던 리종산부관이 김정숙동지께 무어라고 말씀드리는데였다. 부관 역시 김정숙동지께 어서 들어가 쉬실것을 권하는것 같았다.

리을설은 자기도 같은 청을 함께 드리고싶은 충동이 불쑥 솟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석에 이끌리듯 몇걸음 따라 걸어가다가 한자리에 굳어져

버렸다. 김정숙동지께서 돌아서서 종산부관과 같이 댕쪽으로 뻗어간 소로길을 걸어가시는것이였다.

마음을 놓은 리을설은 다시 돌아서 보초소쪽을 바라보았다. 보초병은 차렷자세로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불현듯 몇해전 밀영에서 첫 보초를 서던 때의 추억이 눈앞에 어려왔다.

그해가 리을설이 14살 나던 때였다.

소년중대에 갓 입대하여 처음으로 보초를 서게된 리을설은 흥분을 누를수 없었다. 그는 밀림의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밤하늘의 못별들을 바라보며 장군님의 유격대원이 된 기쁨을 혼자소리로 속삭이기도 하였다.

그가 보초를 선지 얼마쯤 지났을 때였다. 작식대천막에서 나오신 김정숙동지께서 웃으시며 다가오시여 나직이 물으시었다.

《뭘 그렇게 골똘히 바라보고있어요?》

《별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요. 참 오늘밤엔 유별나게도 별들이 여물어보이누만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밤을 축복해주는 심정으로 의미깊게 말씀하시었다.

《정숙동지, 그런데 백두산쪽의 저 별은 별스럽게도 반짝입니다.》

리을설은 백두산쪽의 하늘을 가리켰다.

《저기 저 별말이에요요, 우리 유격대에서는 저 별을 장군별이라고 부른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류달리 밝은 빛을 뿌리는 별에 눈길을 주시었다. 신입대원들에게 늘 백두산쪽만 바라보아도 눈물이 나온다고 말씀해주시던 김정숙동지이시었다.

《장군별 ! ... 거참 이름이 멋진데요?! 누가 지었는지 정말 잘 지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을 정말 잘 달았어요.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장군별처럼 다 이름이 있답니다.》

《별들에도 이름이요? ! ...》

《그래요. 저 별들은 모두 한자리에 박혀있는것 같아도 하나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돌고있지요. 제일 가까이 도는 별이 수성이라는 별이고 그다음 별이 금성, 그다음 별이 화성, 그다음 별이 목성이라는 별이랍니다. 그리고...》

김정숙동지께서는 수성에서부터 해왕성까지 태양의 주위를 도는 별들에 대하여 재미나게 이야기해주시었다.

《그 별들을 모두 일러 행성이라고 해요. 그 별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자기의 자리길을 따라 변함없이 돈답니다. 모든 별들에 빛을 주는 태양에 비겨 지금 우리 2천만 조선동포들은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부르지요. 우리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을 중심에 모시고 자기의 자리길을



따라 변함없이 돌며 빛나는 별들이 되어야 합니다.》

리을설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 가슴속깊이 의미심장하게 새기며 그것이 너무도 신통하여 가볍게 탄성까지 울리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이야기를 마치고 보초소를 떠나신 다음에도 별들의 이름을 속으로 더듬으며 외워보았다. 참으로 행복한 밤이었다.

그 다음다음해 5월 리을설은 장군님을 따라 조국진군의 길에 올랐다.

대오가 압록강을 지척에 둔 밀영에서 며칠 묵던 어느날 밤이었다.

그날밤도 사령부귀틀집을 한가운데 두고 해살 모양으로 펼쳐진 숙영지의 하늘에 별들이 도골도 팔 여물어 반짝이었다.

리을설은 구대원들의 이야기로만 들어오던 조국, 한번도 밟아보지 못한 조국땅에 하루빨리 들어서고싶은 충동으로 설레이는 마음을 다잡지 못하였다.

밤이 깊어가면서 얇은 구름속에 별들이 하나둘 숨어버리기 시작하였다.

활활 타오르던 우등불은 꺼지고 소소리 키높은 이깔나무들사이를 누비며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사령부귀틀집 피창에는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압록강을 건너 조국땅에서 맞게 될 첫 아침식사를 풍성하게 차려주려고 분주하던 작식대근처도 고요하였다. 모두가 그림던 품에 안길 그 시각을 그리다가 깊은 잠에 든 모양이었다.

리을설은 이무렵 사령부의 불빛을 바라보며 보초소에 서있었다. 그는 이밤을 지켜선 궁지로 하여 가슴이 뻘뻘하였다.

유격대에 입대하여 첫 보초를 서던 날 김정숙동지께서 행성들의 이름을 가르쳐주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떠올라 그는 재빛하늘을 바라보며 별들의 위치를 더듬어 속으로 세여나갔다.

(태양-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리을설에게는 이 시각 마치 자기가 태양의 주위를 제일 가까이 돌고있는 수성이나 금성의 위치에 서있는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굴리는데 저쪽에서 삭정이를 밟는 소리가 바짝-하고 났다.

리을설은 정신을 바짝 가다듬고 총을 앞에 가져오며 그쪽을 주시하였다.

어둠속에서 인기척이 났다.

이깔나무사이로 누가 다가오고있었다. 자세히 보니 틀림없이 김정숙동지이시였다. 그는 대뜸 보초교대가 아닌 김정숙동지께서 다가오시는 리유를 가늠할수 있었다.

보초를 절대로 양보할수 없다고 단단히 결심한 리을설은 모르는척하고 서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과 교대하고 들어가 쉬라고 어깨우의 총부력을 벗기려 하시였다. 그러나

리을설은 이미전에 잡도리를 단단히 한지라 총을 넘겨드리려 하지 않았다.

자나깨나 언제 한번 잊은적 없는 어머니조국, 이제 안기게 될 그 품을 그려보게 되는 것처럼 가슴부푸는 이밤을 가랑잎을 깔고누운 잠자리에서나마 마음껏 즐기게 하려는 김정숙동지의 아름다운 마음이 가슴에 젖어들자 눈물이 펴 돌았다.

했으나 리을설은 그저 물기어린 눈길로 김정숙동지를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볼뿐 입술만 감빳았다.

조용하면서도 강직한 을설의 얼굴을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돌아서시였다. 을설은 김정숙동지께서 울참한 수림속에 천막뒤로 돌아가실 때에 마음을 놓을수 있었다.

이윽고 정적속의 검푸른 수림우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유격대원들의 꿈을 더 깊고 넓게 펼쳐주려는듯 봄비는 소리없이 내리었다.

약 한시간후에 보초를 교대한 리을설은 상기도 불빛이 환한 사령부귀틀집쪽으로 돌아서서 천막으로 가려고 걸음을 옮기였다. 자기도 모르게 옮겨지는 마음의 걸음이였다.

수림의 미인으로 불리우는 하얀 봇나무사이를 빠져나오던 그는 한손으로 나무줄기에 붙어있는 흰 종이장같은 얇은 껍질을 짊 움켜잡으며 조용히 서버렸다. 다음순간 그는 왼손으로 눈가에 흘러내리는 비물을 훔치고 눈을 크게 떴다.

아무리 보아도 틀림없었다.

갑자기 온몸이 찌릿해지며 뜨거운것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으로 쭉 흘러내렸다. 그것은 소름도 땀도 아니였다. 그것은 사람들이 간혹 느끼게 되는 그 무엇이라 이름할수 없는 뜨겁고도 숭고한 감정이였다.

리을설은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의 눈길이 밤의 고요를 깨뜨리는 락수물소리가 소란한 귀틀집치마와 돌도방을 훑었다.

불빛이 환한 사령부귀틀집 피창앞 처마밑에 김정숙동지께서 서계시였다. 그이의 어깨머 군모는 이미 폭 젖어있었다. 락수물은 어깨우에 주룩주룩 떨어져 앞섶을 화락하니 적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따금 군모밑의 귀밑머리와 목으로 흘러내리는 비물을 살그머니 훔치군하시였다.

불빛이 어린 피창에 등잔을 드시고 조국의 지도를 일별하시는 장군님의 모습이 비치였다.

리을설은 가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 ! 그래서... 락수물소리가 조국진군의 붉은 화살을 그어가시는 장군님의 깊은 사색을 깨뜨릴가봐 저렇게 비물에 젖으며 서계시는것이 아닌가 ! 저렇게...)

그 순간 뜨거운것이 가슴으로 울컥 치밀며 눈물이 쏟아졌다. 걱정을 누르며 떨리는 입술을 가

까스로 짝 깨물었으나 눈물이 두볼을 적시며 자꾸만 흘러내리었다.

(어쩌면 저렇게도... 참...)

리울설은 뜨거운 물방울이 고여내리는 눈길로 경건히 서계시는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을 끝없이 우러르며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듯 움직이지 못하였다.

광막한 장백의 수림우에 봉비가 이밤의 사연을 간직하며 하염없이 내리고있었다....

이윽고 리울설은 깊은 회억에서 깨어났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자기가 잔디밭우에 풍만한 아지를 펼치고 높이 솟은 은백양나무줄기를 짚고 서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너무도 많은것을 추억케 하는 순간이었다. 세월은 흘렀고 경위대원들도 바뀌었건만 그때에 싹트고 자란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아마 저 꼬마대원도 입대하던 날 그리도 감명깊게 들던 행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며 저 하늘의 찬란한 별들을 세여갈테지.)

그의 눈에는 간고한 시련을 헤쳐온 사람들에게서 흔히 찾아볼수 있는 그윽한 사색이 어리었다.

잠시후-

보초를 교대시킨 리울설대대장은 정원 한옆 아담한 단층직립관실로 들어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침 기다리거나 한듯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리울설은 천천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줌전에 김정숙동지를 만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들어가던 리종산부관에게서 오는 전화였다.

《경위대대 리울설이 전화받습니다. 근무수행중 이상이 없습니다.》

중산부관은 리울설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 놀라와하는 기색이면서도 흥분어린 어조로 말하였다.

《그런데 왜 아직 들어가 쉬지 않고있소.》

《어쩐지 오늘저녁엔 잠이 오지 않누만요.》

흥분한 목소리였다.

《래일의 영광때문이겠지요 ! 》

그도 지금 공화국선포의 시각을 생각하는것이 분명하였다. 실로 그럴만도 하였다. 그토록 기원하던 조국을 광복하고 오늘은 공화국정부를 세우게 되었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공화국 ! - 드디어 진정한 인민의 공화국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날이 왔구나 ! )

리울설은 또다시 이런 생각이 갈마들어 눈물이 펴 돌았다. 그는 송수화기를 놓고 그우에 손을 얹은채 부풀어오르는 감격을 억제할수 없어 서슴거리다가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에 서있는 해묵은 은백양나무가 밤바람에 그 무수한 잎을 흔들며 와- 설레이었다. 푸른 잎새들사이로 장군님께서 일을 보시는 집무실이 지척인듯 울려다보였다. 여전히 불빛이 환하였다.

바로 이 시각도 장군님께서는 미구에 창건을 선포하실 공화국의 국장과 국기 제정안을 다시

확인하시고 진정한 인민의 헌법초안 구절구절들을 다시한번 빛나는 안광으로 읽으시는것이 아닐가 !

이제 날이 새면 모란봉극장에서는 새 조선의 위대한 려명을 안아올 인민의 나라-공화국을 선포하는 장엄한 종소리가 울리리라!

리울설의 가슴속에 그 장중한 종소리가 고요한 밤대기를 흔들며 땡- 땡- 울려왔다. 꿈인듯싶어 소스라쳐 놀라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부정하고싶지 않았다. 그 장중한 선율을 타고 이 땅위의 모든것을 힘차게 이끌어갈 기관차와 같은 거대한 힘이,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창공높이 떴듯이 고개를 쳐들 위대한 존엄이, 어머니의 따뜻한 애정파도 같은 사랑이 끝없이 끝없이 가슴에 안겨왔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 그것이 ! -

실로 한자리에 서있을수 없었다. 그 무엇인가 모든것을 헤쳐놓고 저 무한대한 우주를 향하여 내 나라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고싶었다.

그것이 바로 아직은 누구도 모르는 그런 나라, 오로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세우시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이 룽감적으로 느껴졌다. 그것을 소리높이 웨쳐온 세상에 알리고싶었다.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장군님을 내각수상으로,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하려니 우리 인민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그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별, 영원한 행성들로 빛나리라!)

경위대대장 리울설은 화산처럼 터져오르는 심장의 걱정을 참지 못하여 창문을 활짝 밀어제겼다. 밤바람이 훑 불어들며 창가림을 날렸다.

력사적인 이밤에 펼쳐지는 삼만만상이 한량없이 아름답고 숭고해보이였다. 울타리, 집, 잔디밭, 은백양나무, 밤공기, 하늘, 별... 가슴이 끝없이 부풀어올랐다. 노래소리, 기계의 동음, 바람소리, 귀뚜라미의 울음... 이 땅의 전부가 왜 이다지도 못견디게 정답고 살뜰하고 넋을 잃을 정도로 소중한것일까 !

리울설은 크게 심호흡을 하며 장군님께서 계시는 집무실청사 저쪽 정원끝에 눈길을 주었다.

순간 그의 입에서 가느다란 탄성이 새어나오며 회열에 찻던 낮색이 근엄해지였다. 이 짧은 한순간에 온몸이 열정의 불덩어리가 되였다. 두손이 본능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자신도 의식할수 없이, 그렇게 격동에 불타올라.

(아, 정숙동지 ! 정숙동지 !...)

김정숙동지께서 보초소박의 나무숲속을 고개를 약간 수그린채 조용히 걷고계시였다.

그 모습을 보는 리울설은 항일의 그날 숙영지의 밤이 또다시 살아올라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물이란 기쁨 때나 슬픔 때만이 흐르는것이 아니였다. 것처럼 생을 바쳐 모색하던 진리를

찾았을 때 솟구치는 감격이, 구슬이 가장 고귀한 눈물인것 이다.

(그렇지, 그 진리는 나에게 내가 서야 할 위치, 내가 걸어야 할 궤도를 가리키고있구나 !)

리울설은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은백양나무의 풍만한 이파리들이 와스스 설레 이자 창가림이 가볍게 날아올랐다. 하르르한 창가림이 리울설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마음껏 그 부드러움속에 묻히고싶었다. 별빛이 유난히 빛나고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자유로운 행복한 밤이었다.

리울설대대장은 한벽 모서리를 거의 다 가리우는 거울앞에 다가서서 옷차림을 단정히 한후 혁띠를 조이고 모자를 바로잡았다.

이때 출입문을 두드리는 조심스러운 손기척소리가 들리었다. 예상치 않았던 인기척에 리울설은 의아히 고개를 돌리며 응대하였다.

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아까 교대시킨 보초병이 들어와 발뒤꿈치를 소리나게 불리고 서는것이였다. 그를 일별하는 리울설의 눈길은 들어가서 쉬지 않고 왜서 다시 나왔는가고 묻고있었다.

《어쩐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안온다?... 그럼 눈을 감고라도 있어야지. 어서 가서 쉬오 !》

엄격한 지휘관의 말투는 무정하리만큼 팽팽하였다. 그는 그이상 말을 더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푸릿한 밤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2층집 무실창가에는 여전히 불빛이 밝았다. 영원히 꺼질 줄 모를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빛이라는 환희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잠시후 리울설대대장은 김정숙동지께서 걸으시는 정원밖의 무성한 검푸른 나무숲속을 천천히 돌았다. 그는 자기가 걷는 숲속의 그밖에서 또 어떤 조심스러운 발자국소리가 들리는듯한 감촉을 느꼈었다.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강철빛하늘에 은모래를 뿌려놓은듯 별들이 무수히 반짝이였다. 천년을 두고 만년을 두고 변함없이 넘겨주고 넘겨받아야 할 가장 고귀한 재부를 안은 위대한 9월의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

세월은 그때로부터 꼬박 반세기가 흘렀다.

리울설은 지나온 반세기를 돌이켜보며 고개를 들어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우려했다. 크낙한 감회속에 수령님과 담화는 다시금 이어졌다.

달빛아래 군모와 건장의 누런 황금빛에 반사된 흰 귀밑머리카락이 은회색으로 빛났다. 잔주름이 영긴 눈가에 송엄함이 어렸다.

청신한 밤대기를 타고 어버이수령님의 음성이 심장을 울리며 눈물겨웁게 울려왔다.

《울설동무는 한생을 이렇게 내결에 서있구만. 고맙소 ! 감사하오...》

《아닙니다, 수령님. 감사는 김정일동지께 드려야 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백발의 전사를

오늘도 이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철부지 시절부터 전사의 위치를 가르쳐주신 위대한 어머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경위대원이라는 그 뜻으로 말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댜먹어야 하거든...》

《물론 그렇다 해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생하고 계시기에 경위대원 이 리울설이도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령님, 저희들은 이번에 김정일동지께서 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의 참뜻, 그 구호에서 제시한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의 의미를 커다란 충격을 안고 더욱더 똑똑하게 절감했습니다.

저희들은 새 정부를 구성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하여 채택할 공화국의 헌법을 준비하면서 김정일동지를 국가주석으로 추대하려는 인민의 념원을 정중히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근엄한 안색을 지으시고

<동무들은 아직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의 의미를 다 모르고있구만. 이 땅우에 국가수반이 열백번 바뀌어도 수령님을 대신할 위인은 존재할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존시에 쓰시던 직함은 일체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각수상, 주석... 우리 나라에서 내각수상, 주석은 오직 수령님 한분밖에 계시수 없습니다. 계시수 없단 말입니다 !

우리가 주체37년 9월 어버이수령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으로 추대하던 회의가 공화국의 영원한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로 될것이며 조선이 존재하는 한 수상과 주석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실뿐입니다 ! >

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 아뢰는 리울설의 이 말은 전에 없이 힘차고 격동적이었다.

누구도 상상하지조차 못했던 가르치심, 이 금언을 받아안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그 시각의 흥분과 격동이 리울설이 서있는, 람홍색공화국기발이 높이 휘날리는 금수산기념궁전의 상공과 넓은 화강석마당에 그대로 차남치고있었다.

《소쩍- 소쩍-》

아까처럼 여전히 기념궁전의 뒤쪽 숲속에서 소쩍새가 운다.

이깎나무, 잣나무, 분비, 가문비가 무성한 숲변 두리에서 조용히 걷고있는 장령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

잊을수 없는 그날 대동군에서 임대한 그 꼬마 대원일수도 있으리 .

밤, 금수산기념궁전의 밤은 깊어가고있었다.

# 첫 여성락하병들

송병준

수림속을 벗어난 말들은 넓은 초원이 나타나자 불시에 투레질을 해대며 맹렬히 돌진하기 시작했다. 초원에는 말발굽소리가 메아리쳤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 항공륙전대 착륙지점으로 가고있는 것이다. 황토색 민지가 타래치고 풀잎들이 파편처럼 사방으로 튀어오른다. 한참이나 질풍같이 달리던 기마대오는 초원 한가운데 이르러서야 비로소 멎어섰다. 대원들은 일제히 말에서 내렸다.

《아이야 !...》

말에서 내리던 몸집이 황소같은 대원이 갑자기 땅에 털썩 주저앉으며 비명을 지른다.

허우대가 큰 편대장 현우삼이 말고삐를 전령병에게 넘겨주며 찢찢 웃었다.

《엄살은 그만하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는데 그썸한거야 참아야지, 응? 허허허...》

주저앉았던 대원이 어쭙게 웃으며 뒤더수기를 벅벅 긁었다. 그는 며칠전에 있는 락하훈련때 발을 꼬질러 이렇게 애를 먹고있는 것이다.

《거 그 동무가 꽤 해내긴 할가요?》

현우삼은 그를 쳐다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오늘 그의 애인인 정옥분이가 첫 여성락하승조에 속해서 락하하게 되는 것이다.

《무슨 소리를 하오. 아마 옥분동무가 동무보다 나으면 나왔지 못하진 않을게요.》

그는 여전히 뒤더수기를 긁적이며 어쭙게 웃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하긴 그럴수도 있었다. 후방밀영에서 훈련기지로 온지 얼마되지 않은 정옥분은 이직 몸이 완전히 추서지 못해 락하훈련에 참가하기 곤란하다고 논의되던 녀대원이었다. 그 옥분이때문에 김정숙동지께서는 또 얼마나 원심을 쓰시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마음이 놓이지 않는건 현우삼이 역시 같았다. 정옥분이뿐이 아니라 녀대원들의 락하훈련 그자체가 현우삼을 은근히 긴장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항일의 녀대원들이 하늘을 날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김정숙동지께서도 바로 그래서 락하승조의 강한 준비를 보살피느라 여기 착륙지점에 아직까지 오시지 못하는 것 같았다.

현우삼은 불안을 털어버리듯 고개를 설레설레 젖고는 큰숨을 몰아쉬며 대렬을 짓는 대원들앞으로 다가갔다.

《동무들, 오늘은 우리 뽕찌산의 첫 여성락하병들이 첫 강하를 하는 날이요. 비행기가 올 때까지 우리 제각 꽃다발을 만듭시다.》

대원들이 와하고 소리치며 흠뻑 젖었다. 북방의 봄은 린색해서 꽃을 많이 피워놓지 않았지만 대원들은 해빛이 재글재글 끓는 풀밭을 뛰어다니며 저마다 고운 꽃을 고르느라 야단법석이다.

현우삼은 물끄러미 꽃을 꺾는 대원들을 바라보다가 머리를 들었다. 옥색물을 들인듯한 봄하늘에는 흰구름 몇덩이가 두둥실 뿔다. 어제까지만 하여도 바람이 불어서 걱정했는데 오늘은 뜻밖에도 바람 한점 없고 태양이 눈부시게 빛을 뿌린다. 참으로 락하하기 좋은 날씨였다. 그래도 역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웅크리고있다. 며칠전에 있는 남대원들의 첫 락하훈련때에는 별의별 일이다 있었다. 저 정옥분의 애인처럼 몸이 황소같은 대원들은 강하속도가 빨리서 그만 발을 꼬지른 일이 있었고 몸이 가벼운 어떤 동무는 바람에 동등 떠가다가 나무가지에 데롱데롱 매달린것을 사령관동지께서 친히 안아내리우기까지 하신 일도 있었다. 모자를 잃어버린 사람, 한쪽 장화가 벗겨져 맨발로 착지하다가 발을 상한 사람...

...그런데 오늘은 녀대원들이 강하를 한다. 그들 속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정말 녀대원들이 비행기에서 선뜻 뛰어내릴수 있을가, 그들이 락하산을 제때에 펼수 있을가... 별 걱정이 다 생긴다. 현우삼은 풀밭을 거닐며 이제나 저제나 김정숙동지를 기다렸다. 벌써 몇번이나 회중시계를 꺼내보았다. 시간이 몹시 늦어지는것을 보니 김정숙동지께서도 정말 마음이 놓이지 않는 모양 같았다. 사실 김정숙동지께서 오늘의 훈련을 위해 얼마나 크나큰 로고를 바쳐오시였는지 모른다. 김정숙동지가 아니시였다면 어느 누구도 뽕찌산 녀대원들의 락하훈련에 대하여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풀밭을 거니는 현우삼의 눈앞에는 문득 녀대원들의 항공륙전대 조직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일들이 삼삼히 떠올랐다.

×

사령부에서는 조국해방의 최후결전을 앞두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도 그 회의에 참가하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모든 지휘간부들과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뿐 아니라 현대적인 군사 기술과 전법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사령관동지께서는 최후결전을 위해 강하천도하훈련과 상륙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하루빨리 항공륙전대를



조직하고 그 훈련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회의장에는 금시에 환회의 선풍이 일었다.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이 최후결전을 위해 항공륙전대까지 조직한다는것을 알면 왜놈들이 아마 기절초풍해서 나자빠질게요.》

누군가 이렇게 호기있게 소리치기 통쾌한 웃음이 터졌다.

《그런데 그 항공륙전대훈련이러는게 쉬운 일은 아닐게야.》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겠지. 그렇다면야 그까짓 못할게 뭐겠소.》

모두들 이러며 흥분을 금치 못하는데 김정숙동지께서 조용히 지리에서 일어서시었다. 그이께서는 사뭇 흥분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한가지 제기할것이 있습니다. 우리 녀대원들도 항공륙전대훈련에 참가시켜주십시오.》

순간 지휘관들은 모두 놀란 눈길로 김정숙동지를 바라보았다. 너무도 뜻밖의 말씀이었던것이다. 녀대원들이 항공륙전대훈련에 참가하다니... 정말 누구도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문제였다. 현우삼은 입까지 벅긋이 벌리고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사령관동지께서 락하훈련문제를 말씀하실 때부터 충격이 커서 이제 어떻게 그 힘든 훈련과제를 빠른 기일내에 수행할수 있을가 하고 생각을 굴리던중인데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대원들까지 락하산을 타겠다고 제기하시는것이 아닌가. 락하산을 타자면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준비되어있어야 한다. 그와 함께 용감하고 대담하여야 하며 의지가 강해야 한다. 항공륙전대훈련이란 말그대로 하늘공중에서 땅으로 날아내리는것을 말한다. 눈깜박할사이에 몇십미터 속도로... 그래서 녀대원들에게도 이 락하훈련은 가장 힘든 훈련으로 될것이다.

할진대 어떻게 체질이 약한 녀대원들이 락하훈련을 한단 말인가. 한순간 조용해졌던 회의장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령관동지께서 너그러운 미소를 지이시고 지휘관들을 둘러보시며 녀성항공륙전대 조직문제를 두고 제시할것이 있으면 기탄없이 제기하라고 하시었다.

한 지휘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항공륙전대훈련이 큰 육체적부담을 요구하는 훈련인것만큼 녀대원들만은 좀 고려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지휘관이 또 일어났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전 우리 녀대원들을 좀 아끼자는걸 제기합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유격대생활에서 누구보다 부담이 많은것은 녀대원들인것이다. 남자들과 똑같이 싸움을 하고 행군을 하면서도 휴식시간에

는 군복을 입고. 산나물을 뜯고 작식대일을 해야 하는 참으로 잠시도 쉴새가 없는 녀대원들이다. 그런데 그런 녀대원들까지 꼭 비행기를 타고 적진속에 들어가야 한단 말인가.

김정숙동지께서는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앉아계시다가 조용히 지리에서 일어나시었다.

《여러 지휘관동지들이 우리 녀대원들을 생각하여주는 그 마음을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녀동무들에게는 체질은 약하지만 그대신 남동무들과 함께 조국을 기어이 해방하려는 불타는 애국심과 강의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젓먹이 어린것을 남의 집 울바자밑에 놓고 항일전에 나설 때 ...》

그이께서는 목이 메이는듯 말씀을 끊으시었다. 방안은 천길물속처럼 조용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북받치는 걱정을 누착히려는지 입술을 꼭 깨물고섰다가 이윽해서야 나직이 말씀을 이으시었다.

《우리 녀대원들을 믿어주십시오. 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녀대원들은 락하훈련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꼭 해낼것입니다.》

그이의 음성은 높지 않고 길지 않았으나 모여앉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미더운 시선으로 김정숙동지를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다.

《우리 녀대원들은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의지가 강하며 책임성이 높은 동무들입니다. 나도 녀동무들이 능히 락하훈련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국으로 나갈 때 녀대원들만 떨어져있을수야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우삼련대장동무...》

현우삼은 어쑤은 미소를 지으며 옹은 말씀이라고 대답을 올렸다. 그러자 사령관동지께서는 꺾꺾 웃으시었다.

《련대장동무가 그러니 이제 됐습니다. 우리 녀대원들의 락하훈련은 현우삼련대장동무가 좀 도와주시오.》

현우삼은 눈이 둥그래졌다.

《아니 저... 제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우삼동무네 련대에 녀성동무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현우삼이 얼굴을 붉히며 난감한 표정으로 있다가 자신없는 어조로 말씀드렸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녀성항공륙전대를 조직합시다.》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회의를 마치고 현우삼이 김정숙동지와 함께 밖으로 나오니 녀대원들이 마당가에 모여앉아 산나물을 다듬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웃음을 함뿍 담으시고 녀대원들을 정어린 눈길로 둘러보시다가 녀성항공륙전대를 조직하기로 했다고 알려주시었다.

그러자 김정숙동지를 바라보던 녀대원들속에서는 일시에 《야!》하고 환성이 터져올랐다. 그들은 너무 좋아 서로 붙들고 킁킁 뛰었다. 체격이 우람한 정금은 곁에 있는 옥분을 땀안고 빙빙 돌아가기까지 했다. 옥분이가 어지럽다고 소리치자 정금은 깔깔거리며 웃더니 어디론가 뛰어갔다. 다른 대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한시바삐 알려주고싶은 모양이었다.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웃음어린 얼굴로 바라보던 김정숙동지께서 친철히 발길을 옮기며 진심이 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련대장동지, 고마워요. 지지해주셔서...》

현우삼이 시무룩이 웃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 인사를 받기야 이르지요. 정숙동무, 선발사업을 특별히 잘해야 할것 같습니다. 항공륙전대는 남자들가운데서도 특정한 사람들로만 조직하는것이 원칙인데...》

김정숙동지께서는 방긋이 미소를 지으시었다. 《전 우리 녀대원모두를 잠기시켰으면 하는데요.》

《예? 아니 그건 안되요.》

현우삼은 큰일이라든듯 도리머리를 했다.

《저 덤비기 잘하는 정금이나 몸이 약한 옥분동무나... 몇몇 동무들은 고려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아차 실수하는 날엔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초래된답니다. 또 체중이 작으면 바람에 어디까지 날려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항공륙전대원이 된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것이다. 비행기를 타보기는커녕 곁에서 구경조차 못한 대원들이 아닌가. 더우기 그는 대원들에 대한 값높은 인정을 쓰는것을 제일 싫어했다. 그것은 지휘관의 자질이 아닌것이다.

《정숙동무, 모성들과 몸이 약한 동무들만은 꼭 고려합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믿음에 찬 눈길을 녀대원들 쪽에 보내시다가 현우삼을 돌아보시며 의미있게 웃으시었다.

《련대장동지두 참, 그러다가 정금동무한테 무슨 항변을 받자고 그래요. 대뜸 찾아와서 자기 동생도 몰라본다고 막 해보자고 할텐데...》

현우삼이도 얼굴을 붉히며 어쭙게 웃었다. 정금은 하나밖에 없는 그의 누이동생이었던것이다. 남편이 유격대에서 전사하자 어린 자식을 남의 집 문앞에 놓고 오빠를 찾아 유격대로 온 애어머니였다. 그렇게 가슴속에 아픈 상처를 안고있으면서도 정금은 조금도 그런 티를 내지 않고 녀대원들과 무람없이 어울렸다. 그 모든것이 장하기도 했고 이따금 가슴이 짜릿하니 아프기도 했었다. 하지만 항공륙전대원이 되는것은 사정이 다르다. 정

금이같이 덜렁덜렁하는 성미에 하늘에서 덤비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어이 알겠는가.

《항변을 받아도 할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다 처리하겠으니 정숙동문 그저 눈만 꼭 감고있으십시오.》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척 즐거우신듯 소리내어 웃으시었다.

《호호호... 그럼 나도 공모자로 몰리우게요? 련대장동지, 믿어주세요. 정금동무랑 옥분동무랑 아마 한몫 단단히 할거예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작정 그들을 옹호하고싶고 믿고싶으신 모양이었다.

《글쎄 믿는건 나쁘지 않는데 그러다 혹시...》

《그 혹시란 일은 생기지 않을거예요. 련대장동지, 믿자요. 오히려 전 정금동무에게 녀대원들의 락하승조를 책임지웠으면 해서 련대장동지에게 말씀드리려던 참인데 어떻가요. 그것이 좋지 않을까요?》

현우삼은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무슨 말을 할수가 없었다. 김정숙동지의 결심이 그렇게 확고한 이상 더 어떻게 할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다.

《좌우간 내 정숙동무한테는 두손 번쩍 들었나니까.》

《호호호. 련대장동지, 정말 고마워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또다시 밝게 웃으시었다. 그러나 현우삼은 시무룩해서 웃지 않았다. 걱정만 더 커지었던것이다. 현우삼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걱정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모의훈련이 시작되어 며칠이 지나가자 우선 몸이 허약한 옥분이가 물망에 오르기 시작했다. 부상당할 때 피를 많이 흘린데다가 쏘라병후과도 채 가셔지지 않아 현기증을 일으키곤했던것이다. 그래도 옥분은 누가 그만두라고 할가보아서인지 더 이악스럽게 훈련에 참가했다. 사실 녀대원들모두가 남대원들보다 훈련에서 오히려 더 담찼다. 조약대에서 모래를 깔아놓은 땅위로 내리는 훈련도 회전대에서 저항력을 키우는 훈련도 완강히 이겨냈다. 때로는 멀미가 나서 토하기도 하고 발목을 풀치기도 했지만 누구도 훈련에서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옥분이 훈련에 참가하는것은 또 별 문제였다. 보다 심각한것은 김정숙동지께서 그들과 똑같이 훈련에 참가하시는것이였다. 현우삼은 그것만은 도저히 허용할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찌한단 말인가.

어느날 현우삼은 그이를 조용히 만나 좀 단단히 말을 하려고 숙소로 찾아갔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숙소에 계시지 않았다. 사령부 전령병의 말에 의하면 훈련을 끝내고 어딘가 좀 갔다오겠다면서 나가시었다는것이다. 혹시 몸이 편치 않아 후방병원에 가신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수도 있었다. 그러고보니 그이의 얼굴이 이

즈막에 이르러 퍼그나 수척해지셨다는 느낌이 새삼스레 들었던것이다.

사전에 대책을 세우지 못한 자신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정금이를 찾아 물어보니 그도 감감 모르고있었다. 현우삼은 걱정스러워 견딜수가 없었다. 그이께서는 밤길도록 오시지 않았다. 새벽에 숙소를 돌아보던 현우삼은 그때에야 배낭을 지고오시는 김정숙동지를 보았다. 땀에 젖어 윤기도는 머리칼이 이마우에 차분히 덮여있는것을 보니 어디인가 멀리 갔다오시는 참인것 같았다.

《아니 어디에 갔댔습니까? 등에 진건 뭘니까?》

현우삼은 놀라운 어조로 물었다.

《홍수골에 갔다오는 길입니다.》

김정숙동지께 서는 혼연한 어조로 대답하시었다.

《홍수골이요?》

현우삼은 더욱 놀라 두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그이께서는 먼길을 다녀온 사람같지 않게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그저 미소를 지으실 뿐이었다.

《홍수골이라니, 원참 아니 거기가 어디라구.》

현우삼은 그만 억이 막혔다. 왕복 100리가 넘는 깊은 산골짜기에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조선인부락이 있었다. 그런데 밤새 그 100리길을 갔다오시다니, 훈련까지 하신 몸으로... 말도 타지 않고... 아마도 소문을 내지 않으려고 그러신것 같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숙소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며 사뭇 흐뭇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산골과 검정닭곰을 얻어왔어요. 빈혈에 좋다고 하더군요. 옥분동무가 이걸 먹으면 몸이 좋아질거예요.》

《!》

그이들 따라 걸음을 옮기던 현우삼은 그자리에 얼어붙은듯 서버렸다. 그럼 옥분이때문에 그 먼길을 그렇게 갔다오셨단 말인가.

현우삼은 가슴이 뜨겁게 젖어들었으나 그런 터를 내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듯 격정을 터뜨렸다

《정숙동무두 참 너무합니다. 정숙동무자신도 불편한 몸이 아닙니까. 열사람 생각도 좀 해주어야지 정숙동무가 그러면 우린 어찌란 말입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현우삼의 말이 뜻밖인듯 정색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미안해요. 런대장동지, 걱정을 끼쳐드려서... 그러나 넘려마세요. 제 몸이야 제가 더 잘 알지요. 전 그저 옥분동무가 그러다 쓰러질가보아 그게 걱정스러워 그래요. 우리 그 동무를 잘 도와주지요.》

그이의 어조는 사뭇 꼭진했다. 현우삼은 대답을 못했다. 김정숙동지의 심정을 모르는바 아니었다.

잘루목전투때 적의 총탄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사령부의 안전을 위해 총을 쏘고 또 쏘며 끝까지 싸우던 옥분이가 오늘 그 총상당한 다리때문에 훈련에서 애를 먹는것이 가슴아프시여 누구보다 각별한 관심을 돌려오는 그이이시었다.

《글쎄 도와주는건 좋은 일이지만 난 그보다도 정숙동무의 건강때문에 그러는거요. 그러구...정숙동무, 제발 부탁인데 강하훈련만은 삼가해주었으면 좋겠소.》

김정숙동지께서는 긴장한 표정을 지으시며 현우삼을 쳐다보시었다.

《저...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현우삼은 어조를 바꾸지 않고 다시 말씀을 올렸다.

《일이 있는것이 아니라 큰일이 생길가봐 그러는겁니다. 정숙동무야 사령부사업을 보좌해드려야 할 큰 중임이 있지 않습니까. 더우기 정숙동무에겐 우리의 어린 장군이 계시고... 정숙동무는 개인의 몸이 아니라 우리 조선의 운명, 혁명의 미래를 책임진 존귀한 몸이란 말입니다.》

현우삼의 말은 질책에 가까웠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얼굴에 홍조를 피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런대장동진 너무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래 지금껏 함께 싸워오면서도 제 성밀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오히려 전우들과 함께 훈련에 참가하는것이 마음도 편안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정숙동무두 참. 》

현우삼은 김정숙동지를 종내 설복시킬수가 없어 한숨만 내그었다. 그러나 그는 그때까지도 김정숙동지께서 왜 그렇게 훈련에 극성스럽게 참가하시는지 다는 모르고있었다. 그러다가 락하훈련의 첫공정인 모의훈련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다음

단계인 오십미터 높이의 탑우에서 락하산을 펴고 떨어지는 보다 더 힘든 훈련이 시작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 내심을 알수 있었다. 정금이를 비롯한 많은 녀대원들은 훈련지도원의 요구대로 탑우에서 서슴없이 뛰어내렸지만 어떤 동무들은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아찔하여 눈을 감곤했다. 이것은 그저 스쳐버릴 문제가 아니었다. 비행기에서 탈출한 다음에는 락하산을 펴고 방향을 조절하며 착륙해야 하는데 눈을 감는 버릇이 생기면 갑자기 당황해지게 되고 큰 사고를 낼수 있기때문이었다.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하고 생각을 굴리며 훈련장을 거닐던 현우삼은 문득 어둠속에서 김정숙동지의 목소리가 도란도란 울려오는 바람에 귀를 기울이었다.

《옥분동무, 아까 김동무가 왔을 때 왜 말도 몇마디 안하구 그렇게 쫓아버렸어요. 모처럼 찾아왔었는데 ...》

《정말 어치구니 없어서... 글썄 저만 체첸하잖겠어요. 뭐 암만봐두 하늘은 남자들의 세계라나. 우리 녀자들은 그런 혼련까지 안해도 된다는거죠 뭐...》

《그게 다 옥분동무를 생각해서 그러는거지. 사랑하는 처녀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잘못될가봐...》

《흥, 그렇게 생각이 끔찍하면 혼련을 도와주어야지, 다시는 눈앞에 일쑤도 말라고 했죠 뭐. 저만 잘난척하는걸 보기 싫어서라도 혼련을 잘해야겠는데.》

옥분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호호호... 하루도 못가서 보고싶어할걸 그러기 나새나. 참 옥분동문 탐우에서 뛰어내릴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전 별루... 다른 생각은 없어요. 다만 왜 그런지 아래를 내려다보면 눈앞이 아득하기만 한게... 참 왜 자꾸 그럴까?》

《정말 옥분동무답지 못해. 밀림속에선 호랑이인데 하늘에 올라가면 토끼심장이 되는가봐.》

김정숙동지께서는 웃으시며 가볍게 나무라신다. 꾸밈새 없는 정깊은 그이의 말씀이 별로 후덥게 가슴을 덮혀주는듯했다.

《정말 이상해요. 왜놈들이 덤벼드는건 무섭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이 왜 무서울까.》

《맨 땅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더 그러는가봐.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저밑에 왜놈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락하산을 타고 내리면 왜놈들은 분명 우리를 올려다보면서 총을 쏠게 아니예요. 그런데도 눈을 감고내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두눈에 불을 달고 왜놈들을 죽치면서 조국땅에 내려야 하지 않겠어요.》

《정숙동지, 제가 미처 그렇게까지는 생각못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요.》

옥분이가 자책어린 어조로 하는 말이였다.

그들은 탐우로 올라갔다. 현우삼은 그자리에 굳어져 고개를 쳐들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아니 그럼? ! ...

《자 앞으로 ! 》

탐우에서 김정숙동지의 랑랑한 목소리가 밤공기를 헤가르며 울리는것과 동시에 하얀 락하산 두개가 꽃잎처럼 날아내렸다. 현우삼은 무엇인가 뇌리를 쿵 치는것을 느꼈다. 그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지금 자신의 실천행동으로 녀대원들을 이끌고계시는것이였다. 늘 그렇게 생활하시는 김정숙동지이시였다. 하지만 현우삼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이는 지금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몸이였다. 다른 때와도 달랐다. 절대로 그대로 스쳐버려서는 안될 문제였다. 사실 옥분이란 제대로되여도 저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을것 같았다. 문제는 옥분때문이었다. 현우삼은 옥분을 만나기로 결심하였다.

바로 그무렵 녀성항공륙전대 조장으로 활동하던 정금이 사령부의 긴급지시를 받고 《夭》성시로 파견되였다. 《夭》성시는 정금이가 지하공작임무를수행하던곳인데 놈들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있다는 긴급연락이 왔던것이다. 정금은 비상대책을 세울 임무를 받고 아침노을빛을 받으며 밀영을 떠나갔다. 며칠후에 부대에 도착하여 첫 락하혼련에 참가한다는 약속을 남겨놓고는 ... 그러나대에 도착하지않속한 사흘이 되는 날에도 정금은 도착하지 않았다.

×

현우삼은 불안한 마음을 녹잡히며 마지막보초까지 나왔다. 정금의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긴것만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명령받은 시간을 어길 정금이가 아니였다. 현우삼은 가슴을 짓누르는 초조감을 안고 정금이가 떠나간 성시쪽에 눈길을 보

냈다. 그러나 련련히 뻗어간 산발만 안겨올뿐 기다리는 정금은 나타나지 않았다. 현우삼은 무겁게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저쪽 숲속 자작나무아래서 천천히 거닐고있는것이 보였다. 김정숙동지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딘가 먼 산발을 하염없이 바라보고계시였다. 그 눈길에는 참을수 없는 그리움이 짙게 서려있었다. 현우삼은 불시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이께서도 정금을 기다리고 계시는것이였다. 저녁노을이 나무우듬지를 불그레하게 적시고있었다. 정금이가 떠나갈 때도 노을은 불타고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아침노을이였다. 그 아침노을속으로 정금은 밝게 웃으며 손을 저어주고 떠나갔다. 어디선가 산새 우짖는 소리가 유정하게 들려왔다. 조막만한 새 한마리가 포르릉 날아와 그이앞에 있는 나무가지에 앉아 콩지를 달짝이다가 어디론가 또 날아갔다.

김정숙동지께서 현우삼이쪽으로 천천히 걸어오시였다.

《어쩐지 오늘은 정금동무가 올것만 같군요.》

《글썄... 꼭 와야겠는데, 왜 그런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만요.》

《정금동문 꼭 돌아올거예요. 성격은 덜렁덜렁해도 지하공작사업에서는 빈틈이 없는 동무랍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확신이 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현우삼은 나직이 한숨을 내그었다. 정금을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그늘이 비껴있는 현우삼이였다. 한창 재물을 부리던 어린것을 남의 집 울바지밑에 놓고 유격대로 들어온후 행군의 휴식참이나 전투의 여가에 돌아앉아 뽕뽕하게 부폰 젖을 짜내며 눈물인들 얼마나 흘렸던가. 그러면서도 언제 한번 나약한 기색을보이지 않고 오히려 덜렁덜렁 웃고 떠들면서 싸워왔다. 그래서 그를 보면 더더욱 련민의 정에 가슴이 찢릿해지곤했었다.

《런대장동지, 이번에 정금동무가 오면 락하훈련을 잘해보자요.》

김정숙동지께서는 현우삼을 위로하듯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바로 그날밤이었다. 부대에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가 날아왔다.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무렵 밀정에 의해 조직이 로출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정금은 놈들을 유인하고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였다는 것이었다. 현우삼은 믿을수 없는 이 사실앞에서 한동안 화석처럼 굳어져있었다.

(아, 이게 무슨 변이란 말인가. 정금이가 죽다니?! ...)

가슴이 통채로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그는 귀틀집벽에 등을 기대인채 입술을 짹 깨물고 천정을 쏘아보며 굳어진듯이 한참이나 서있었다.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어 현우삼은 밖으로 나왔다. 발길이 어디로 닿는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고 숲속을 자꾸만 거닐었다. 문득 김정숙동지께서 계시는 숙소가 앞에 보였다. 순간 현우삼은 숙소앞에서 주춤 서버렸다. 자기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수가 없었다.

현우삼은 물끄러미 숙소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 일을 알면 김정숙동지께서 얼마나 가슴아파하실가 하는 생각에 심장이 옥죄여드는듯했다.

그이께서 안겨주신 그 모든 꿈과 희망을 어디에 두고 그렇게 잤단 말인가. 남달리 인정무른 그이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현우삼은 억이 막혔다. 그는 멍하니 불빛을 쳐다보다가 곁에 다가온 전령령에게 조용히 말했다.

《돌아가보요.》

하고는 김정숙동지께서 계시는 숙소로 다가갔다.

《누구예요?》

방안에서 무슨 인기척을 느끼였는지 김정숙동지께서 문을 여시었다. 현우삼은 마음을 가다듬으며 녀대원들의 훈련때문에 토론할것이 있어서왔다고 말씀드렸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현우삼은 방안으로 들어갔다. 김정숙동지께서 등불밑에서 바느질을 하시던 모양이었다. 급히 바느질감을 치우는 그이의 신색이 몹시 좋지 못하시었다. 그이의 얼굴이 갑자기 무척 수척해진듯한 느낌이 들었다. 현우삼은 순간 그이께서 정금의 소식을 벌써 알고계시는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갑자기 코안이 매워올랐다.

《여기 앉으십시오.》

김정숙동지께서는 뜻밖에도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자리를 권하시었다. 현우삼은 주먹같은것을 꿀꺽 삼키고는 우정 현현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자리에 앉았다.

《강하훈련을 인차 해야겠는데 그 날자때문에 좀 토론하자고 왔습니다. 우리 런대에도 곧 훈련 비행기가 할당되겠는데... 녀대원들은 준비가 잘된 동무들부터 먼저 참가시키는것이 어떨가 해서...》

현우삼은 그이의 눈길을 피하며 버르던 말씀을 드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의아한듯 한번 현우삼을 쳐다보더니 천천히 창밖으로 눈길을 보내시었다. 그 눈길에는 어쩐지 이름할수 없는 피로운 심경이 비껴있었다. 방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로 아픈 심정을 건드릴가 보아 조심스러워하는듯했다.

《런대장동지, 좀 기다려주세요. 첫 강하훈련인데 제 생각엔 좀더 준비시켜서 다 함께 참가했으면 해서 그러니다. 더구나 정금동무도 아직 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 정금동무일이 정말 믿어지지 않아 그래요.》

그이의 어조는 가볍게 떨리었다. 현우삼은 불시에 가슴이 그 무엇에 얻어맞아 부서지는듯한 아픔을 느꼈다. 정금이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리고 어떻게 하나 녀대원모두들 훈련에 참가시키고싶어하는 그이의 마음이 눈물겹게 안겨왔다. 현우삼은그냥 있으면 그이께 눈물을 보일것만 같아 그 문제는 좀 생각해보겠다고 하고는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달이 휘영청 밝았다. 젖빛으로 무르녹아 흐르는 달빛이 이팔나무사이로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숲속을 걸었다. 어느 밀영에서 대원들의 웃음소리와 하모니카소리가 들려왔다. 현우삼은 새삼스레 지휘관의 위치를 자각하며 마음을 모질게 가다듬었다.

머칠이 또 지났다. 대원들은 불안속에서 정금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면서도 훈련은 계획대로 추진되어나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음식을 제대로 들지 못하면서도 옥분이며 다른 대원들의 훈련을 지도하느라 좀처럼 휴식을 모르시었다.

현우삼은 그이를 보기가 딱해 어느날 정옥분을 따로 만났다. 인간적으로 흉금을 터놓고 말하면 그가 리해하리라 믿었다. 그런데 현우삼이가 좀 쉬었다가 후에 훈련에 참가하면 어떤가고 말하자 옥분은 펄쩍 뛰었다. 현우삼은 할수 없이 사실을 말했다. 얼굴이 해쓱하여 사연을 듣던 옥분은 그만 고개를 떨구더니 《정숙동지를 위해서라면...》하고 눈물을 툴렁 툴구었다.

《그렇게 리해하여주니 고맙소. 다른 동무들에게도 말해주오. 어쨌든 김정숙동지의 신변을 보위해 드리는건 우리 혁명의 가장 엄숙한 요구이고 우리 전우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가 아니겠소.》

옥분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저녁, 남대원들의 강하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현우삼은 김정숙동지를 만나기 위해 사령부로 찾아갔다. 때마침 김정숙동지께서 꽃병을 드시고 샴터쪽으로 가시던 길이었다. 꽃병에 물을 갈아



넣으시려는것 같았다. 현우삼은 꽃병을 보니 불쑥 가슴속이 찌르르해왔다. 언젠가 정금이가 정치공작나갔다가 김정숙동지께 드리려고 사온 꽃병이었다.

현우삼은 마음을 다잡고 그이앞으로 다가갔다.

《정숙동무, 아무래도 인차 너대원들을 비행기에 태워야겠습니다.》

현우삼은 단호하게 말씀드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꽃병을 드신채 저쪽 숲우듬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었다. 그 숲우에는 수리개 한마리가 원을 지으며 천천히 날고있었다.

《그리고 락하 일변으로 되어있던 정금이 대신 누구를 첫 락하시키겠는가 하는 문제도 확정해야겠습니다.》

현우삼은 생각했던바를 내쳐 털어놓았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하늘을 날고있는 수리개를 바라보실뿐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었다. 이윽해서야 그이께서는 차분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련대장동지, 첫 락하병은 어디까지나 정금동무입니다. 설사 다른 동무가 먼저 락하를 한다 해도 정금동무는 벌써 첫 락하를...》

김정숙동지께서는 더 말씀을 잊지 못하시었다. 정금이를 생각하는 그이의 불같은 마음에 현우삼은 목이 메여올라 갈린 어조로 말했다. .

《고맙소, 정숙동무... 나 그리고 첫 락하인것만큼 비행기를 탈수 있는 사람들을 잘 선발하여 사고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남대원들이 첫 강하를 했는데 훈련때 잘하던 동무들도 정작 비행기에 태우니 그렇지 않더라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동무들과 잘 토론해보겠습니다.》

김정숙동지의 어조에는 사뭇 흥분이 깔려있었다.

자기들이 첫 강하를 하게 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것을 안 너대원들은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러면서도 밤에는 흥분으로 잠을 못이루군했다. 그날 저녁도 숲속의 여기저기서 울리는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들으며 훈련장쪽으로 발길을 옮기던 현우삼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락하탑앞에 서있는 두 너대원을 보았던것이다. 뜻밖에도 김정숙동지와 정옥문이었다.

《정숙동지, 이젠 그만두자요. 》

옥분의 애원하는듯한 목소리였다.

《왜? 그렇게도 힘들어요?》

김정숙동지의 어딘가 모르게 측은해하는듯한 음성이었다.

현우삼은 자기가 옥분에게 한 소리가 있어서 귀를 강구었다.

《전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요. 정숙동지는 편히...》

《그래서 옥분동문 뭘 말하자는거예요.》

《절 옥해주세요. 전 락하훈련이 정말 자신없어서 그래요.》

《뭇라구요? 그게 정말이에요 I 》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만 어이가 없어하며 곱씹어 물으시었다.

《정숙동지, 미안해요. 전 이번엔 아무래도...》

김정숙동지께서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시었다.

《동무가 어디서 무슨 말을 들은 모양이군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더 말씀을 못하시고 락하탑에 손을 짚고 이윽도록 올려다보시었다. 한동안 그렇게 굳어진듯 서계시던 그이께서는 저으기 섭섭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난 정말 옥분동무가 그렇게 나약할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정금동무는 성시로 공작나가면서 옥분이를 잘 도와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옥분동문 어찌면 그럴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때문에 녀성의 몸으로 손에 총을 잡고 왜놈들과 피흘리며 싸워왔어요. 바로 이날을 위해서가 아니예요. 장군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당장이라도 달려나가야 할 우리들인데 그때 동무는 어떻게 하겠다는거예요. 정금동무가 오지 못하는것만도 가슴이 아픈데 동무까지 이러면... 너무해요. 정말 너무하단말이에요. 정금동무가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분해서 땅속에서라도 뛰쳐일어날거예요. 땅속에서라도...》

김정숙동지께서는 더 말을 잊지 못하시었다. 순간 옥분은 놀란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정금동무가 어쨌다는거예요. 예? 그럼 정금동무는 끝내...》

《옥분동무, 놀라지 마세요. 정금동문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길에 그만...》

김정숙동지께서는 말끝을 흐리우며 급기야 고개를 외로 꺾으시었다. 명하니 김정숙동지를 쳐다보던 옥분이가 와락 다가서며 그이의 팔을 마구 잡아흔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정금동무가... 어떻게 ... 그렇게 ...》

《나도 믿을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보았는데 정금동무는 ... 정금동무는 ...》

《정금동무 ! 》

옥분은 이렇게 목메여 부르며 곁에 있는 이팝나무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는 훌쩍 흐느껴울며 어깨를 세차게 떨었다.

김정숙동지께서 들먹거리는 옥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타이르듯 말끝을 이으시었다.

《옥분동무, 생각해봐요. 이 훈련이 어떻게 단순히 강하훈련이라고만 할수 있겠어요. 조국광복의 성전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제 주저앉다니요. 우리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어요. 또 조국을 광복한 다음에도 그렇지요. 그때면 우리의 임무가



끝날것 같아요? 광복된 조국을 누가 지키겠어요. 그때도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해요. 우리 빨치산들이 핵심이 되어 녀성비행사도 키우고 녀성항공육전대원도 녀성고사포병도 키워야 할게 아니에요. 그런데 동무는 벌써부터... 정말 믿어지지 않는군요. 어쩌면 동무가 이럴수 있어요.》

그이의 어조는 격했다.

《정숙동지!》

정옥분이 그만 더 참지 못하고 김정숙동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만 지때문에 정숙동지를 고생시키는것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고생한다구요. 고작 생각했다는게 그게다예요. 똑똑히 알아두어요. 이 김정숙이도 혁명을 위해서 있는거예요. 난 혁명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고생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어요. 오히려 락으로 생각했어요. 지금껏 힘께 싸워오면서 아직까지도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니 정말 섭섭하기 그지없군요.》

《정숙동지, 그만하세요. 이젠 다 알아요. 그 마음을 다 알아요.》

《옥분동무, 난 옥분동무를 믿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금동무가 못다한 일을 해야 할게 아니에요. 난 옥분동무가 꼭 정금동무를 대신하리라 믿어요.》

현우삼은 무엇인가 크고도 둔중한것이 가슴을 쿵 치는것을 느꼈다. 대원들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김정숙동지의 깊은 뜻을 다 모르고 지내온 자신이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비단 오늘만을 생각하고계시는것이 아니었다. 벌써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광복된 조국의 건군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춧돌을 튼튼히 쌓아가고계시는것이였다.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여 사령관동지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가고계시는 것이였다. 이런 웅심깊은 뜻을 모르고 오히려 그이를 괴롭혀드린 자신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현우삼은 오래도록 그자리에 서있었다.

X

산새들이 머리우를 날아지나며 우짖는 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난 현우삼은 입술을 꼭 깨물고 김정숙동지께서 오실 숙영지쪽을 바라보았다. 대원들은 김정숙동지께서 이제 착륙지점에 오시여 자기들을 지켜보신다는것을 알면 마음놓고 강할수 있을것이다. 락하훈련에서는 무엇보다 신심이 중요한것이다. 그래서 오늘아침에 현우삼이 그에게 그 의향을 말씀드렸더니 김정숙동지께서는 웃으며 알겠노라고 하시였던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비행기가 뜰 시간이 다 되어오는데 왜 아직 오지 못하시는지 알수가 없다. 아닌게아니라 숲저너머에서 비행기발동소리가 은은히 들려오기 시작했다.

《온다!》 누군가 다급히 소리쳤다. 대원들은 모두 귀를 강구었다. 비행기소리는 점점 가깝게 들려왔다. 김정숙동지께 무슨 일이 생겼다고 직감

하며 현우삼은 버릇대로 안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보았다. 하늘을 무너뜨릴듯이 발동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리더니 마침내 숲우로 비행기가 나타났다. 현우삼은 바싹 긴장해졌다. 비행기의 동체가 해빛에 번쩍번쩍할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것만 같았다. 현우삼은 자기도 모르게 주

머니에서 담배쌈지를 꺼냈다. 마라초를 마는 손이 떨리어 씨래기담배가 땅에 푸실푸실 떨어졌다.

비행기는 그들의 머리우를 선회하기 시작했다. 금시 락하가 시작될것 같았다. 현우삼은 자기도 모르게 담배쌈지를 도로 주머니에 넣어넣었다. 굳어진 얼굴로 비행기를 주시하기만 했다. 과연 대원들이 사고없이 락하하겠는지 하는 걱정이 굴뚝처럼

일어섰다. 비행기는 끝내 락하병들을 떨어지지 못하고 또다시 기수를 돌렸다. 그것은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지 못해 진통을 겪는것과 같았다. 현우삼은 군복깃을 터쳐놓았다. 가슴에 재가 앉는것만 같았다. 비행기가 다시 선회를 하며 그들의 머리우에 나타났다. 대원들은 손에 땀을 쥐고 숨을 죽인채 비행기를 쳐다보았다. 문득 《앗!》하는 위침소리가 일시에 터졌다. 돌연 비행기에서 티끌같은 까만 점이 떨어졌던것이다. 그것은 허공중에서 돌덩이처럼 쏜살같이 아래로 떨어져내렸다. 순간 현우삼은 심장이 멎고 수림과 초원이 빙빙 도는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였다. 몇초가 지나 우주공간에 목화송이같은 하얀 꽃이 확 피어났다. 락하산이 펼쳐진것이였다.

(됐구나!)

현우삼은 저도 모르게 후하고 안도의 숨을 내뿜었다. 비행기에서 편이어 락하병들이 떨어졌다. 금시에 온 하늘에 때아닌 하얀 꽃들이 소담하게 피어났다. 그 풍경은 마치 옥색바탕에 흰꽃을 수놓은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 했다.

《하나, 둘, 셋...》

어느 대원인가 큰소리로 락하병들을 세는데 뒤쪽에서 말발굽소리가 다급히 들려왔다. 현우삼은 이제야 김정숙동지께서 오시는가부다 하고 생각하며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뜻밖에도 곧두박질하듯 말을 타고 달려온 사람은 사령부 전령병이였다. 그는 말에서 조그마간 사내애를 안고내렸다. 술이 진한 눈섭아래 까만 눈이 별처럼 또렷하고 결기있어보이는 아이였다. 그는 색동옷을 입고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요? 정숙동문 왜 오지 않소. 이엔 웬 아이요?》

현우삼은 영문을 알수 없어 사령부 전령병을 쳐다보며 련속 다그쳐 물었다. 급히 달려오느라 땀에 함뿔 젖은 애어린 사령부 전령병은 김정숙동지께서 이 아이를 몹시 기다리다가 대원들과 함께 비행장으로 가시였다고 하면서 그래서 애가 도착하자 저리 여기 착륙장으로 데려왔다고 하는 것이였다.

《뭐 라 구 ? 정숙동무가 비행장으로 갔단 말이요?》

현우삼은 그 어떤 예감이 번개처럼 뇌리를 치자 《전령병, 망원경!》 하고 소리쳤다. 련대장 전령병이 재빨리 망원경을 현우삼에게 넘겨주었다. 현우삼은 망원경을 받아들고 락하병들을 차례로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는 와플 놀랐다.

눈을 비비고 다시 망원경을 눈가에 가져다댔다. 분명했다. 그의 입에서는 《아!》 하는 신음비슷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처음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사람은 틀림없이 김정숙동지이시였다. 그이께서 락하산을 타고 제일 선두에서 날아내리고계시였다. 어쩌면이럴수가 있는가. 정말 꿈에도생각 못한 현우삼이었다. 건강도 좋지 못하신데 그런 몸으로 락하산까지 타시다니... 현우삼은 속이 아슬아슬하여 손에 땀을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첫 강하를 하게 되어있던 정금이를 대신하여 그이께서 직접 나서신것이 분명했다. 아니 설사 정금이가 살아돌아왔다 해도 역시 그이께서는 첫 강하를 하시었을것이다. 그이는 그런분이시였다. 자신을 그저 평범한전사로, 사령관동지의 전사로 생각하시는 김정숙동지이시였다. 자신을 언제나 사령관동지의 원대한 뜻을 관철하는 제일 첫자리에, 제1번 자리에 세우시고 대원들을 이끌어가시는 그이이시였다. 현우삼은 불덩이를 가슴에 안은듯 온몸이 달아오름을 느끼며 그이를 우러랐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랑손으로 락하산줄을 조절하시며 서서히 하늘을 날아내리고있었다. 천하를 한눈에 굽어보시며 하늘을 훨훨 날아내리자니 온 세상이 자신의것처럼 생각되시였다. 그이께서는 무한한 황홀감에 사로잡히시였다. 그이께서는 멀리 조국땅쪽을 바보시였다. 련련히 뻗어간 산발과 수려한 밀림이 파도쳐온다. 아, 저기가 조국이다. 백두산줄기로부터 시작된 삼천리 내 조국강산, 김정숙동지께서는 부지중 눈굽이 저려드시였다.얼마나 그림고 보고싶은 조국땅인가. 저 멀리 재빛운무속에 잠긴 저 산너머에 고향 회령이 있고 또그 너머에 멀리 평양 만경대가 있을것이다.

그이께서는 목청껏 웨치고싶으시였다. 조국아, 이제 우리가 간다.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이 간다! 김정숙동지의 망막에 뿌연 안개의 장막이 덮여있다. 그이께서는 뜨거워지는 가슴을 안고 좌우를 바라보시였다. 조금우에서 옥분이가 내려오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옥분에게 미소를 보내시며 고개를 끄덕여주시였다. 이악하기 그지없는 저 옥분이, 제 몸무게가 가벼워 바람에 날려갈가보아 배낭에 돌을 넣고 내리는 영특한 처녀, 이제 옥분이가 무사히 내리면 것처럼 근심한다던 애인 김동무가 얼마나 좋아할가. 옥분이는 오늘 정금이 대신 조장의 임무를 맡고 락하고있다. 이제는 정말 우리 녀대원들도 막히는게 없을것이다. 정치공작을 하라면 정치공작을 하고 부대를 지휘하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것이다. 전술, 사격, 수영, 스키, 무선통신, 위생간호... 오

늘은 그렇게 힘들다던 락하산까지 탔다. 이렇게 준비된 인민혁명군이 이제 조국으로 갈것이다, 조국을 광복하고 짓눌렸던 땅에 장군님 이끄시는 부강조국을 건설할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절로 가슴이 벅차졌다. 다른 녀대원들을 둘러보니 모두가 흥분된 얼굴들이다. 조국광복의 성전에서 피바다를 헤쳐온 조선의 첫 녀성항공록전대원들이 하늘을 날아내린다. 순이, 영희, 봉숙이, 경숙이... 순간 김정숙동지께서는 정금이가 자신을 보고 웃는것같은 착각을 느끼시였다. 정금이, 다시 한번 보고싶구나!...

그이께서는 문득 성시로 떠나가던 정금의 얼굴이 떠오르시였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부에서 임무를 받고나온 정금이를 자신의 속소로 데리고 가시며 이렇게 부탁을 하시였다.

《정금동무, 성시에 갔다올 때 애를 한명 데리고 와야겠어요. 지하조직책임자에게 물어보면 알거예요.》

그러시고는 방 한쪽벽에 걸려있는 배낭에서 보자기에 쓴것을 꺼내시였다.

《이 옷을 입혀가지고 오세요. 그애 몸에 맞겠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숙동지께서 보자기에 쓴것을 풀어헤쳐보였다. 곱게 지은 색동옷 한벌이 차곡차곡 개여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 밤새워 만드신 옷이였다.

《?! !...》

정금은 놀라운 눈길로 그 옷을 내려다보았다.언젠가 성시에 공작나갔던 대원이 아드님의 옷을 해드리라고 구해온 천으로 지은 옷이란걸 알아본 모양이였다. 사실 그때 눈이 부시게 황홀한 색동천을 놓고 녀대원들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모른다.

2월의 그날, 조선에 광명성이 탄생했다고 환희를 터뜨리며 쨍쨍 손이 얼어붙는 밀림의 나무마다에 구호를 새겨넣으면서도 아드님을 감쌀 변변한옷 한벌 없어 눈물짓던 녀대원들이였다. 그런데 그 귀한 천으로 옷을 지었으니 놀랄만도 한것이였다.

《안돼요. 이것만은, 이 천이 어떤 천인데... 난 못가져가겠어요.》

정금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격해서 부르짖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진정에 가슴이 뜨거워움을 느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정금동무, 이러지 마세요. 제가 꼭 새옷을 입혀주고싶었던 애예요. 잊지 말고 그애를 데리고오세요.》

그이를 마주보는 정금의 크고 억실억실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있었다.

그렇게 보냈던 정금이였다. 정금은 헤여지는 그 시각에 마치 영원한 작별이라도 예감한듯 그이의 손목을 꼭 잡고 오래도록 놓지 못했다. 그리고 사령부귀틀집우에서 휘날리는 붉은 기발을 바라보며 어디에 가도 저 기발을 잊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랬었다. 정금은 붉은 기발처럼 자기 몸을 혁명을 위해, 장군님을 위해 장렬하게 불태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발아래를 굽어보시었다. 지금쯤 정금의 아들이 숙영지에 와있을것이다. 그이께서는 그토록 아들생각에 잠 못이루곤하는 정금을 위해 어떻게 하나 애를 부대로 데려오려고 결심하시었다. 그래서 정금을 성시로 떠나보내며 모자간의 상봉을 마련하고 부대로 데려오도록 조치를 취하시였던것이다. 그런데 정금은 그렇게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아이만 어제밤 지하조직원의 등에 업혀 제2지점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이 왔었다. 그이께서는 것처럼 애타게 아이를 기다리다가 혼란시간이 되어 할수 없이 비행장으로 나가시였던것이다. 문득 초원에서 환성이 터져오른다. 유격대원들이 꽃뭉음을 흔들며 달려온다. 현우삼도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다가그는 그지리에 우뚝 서버렸다. 자기 지점들에 정확히 착지하여 전투서열을 지으며 전개했던 녀대원들이 재빨리 정렬하고있었던것이다. 하나같이 끝끝한 녀성항공육전대원들이었다.

《차렷 ! 》

옥분이가 맵짠 소리로 구령을 치더니 절도있게 다가와 힘찬 목소리로 보고를 하였다.

《련대장동지, 현정금승조는 전원 무사히 착륙하였습니다.》

옥분의 랑랑한 목소리에 현우삼은 그만 목이 꺾매여왔다. 현정금승조... 현정금승조... 가슴에 불덩이가 와닿는듯하다. 눈물이 쿵 솟구친다. 그렇다. 정금아, 너는 죽지 않았다....

현우삼은 녀대원들 뒤에 서계시는 김정숙동지를 우러러보았다. 불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녀대원들을 키워오신분, 새 조국의 믿음직한 건군의 기둥들을 마련해가고계시는 백두산의 녀장군 !...

아이가 다가오고있다. 색동옷을 입은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오고있다. 누가 쥐여주었는지 그의 작은 손에 꽃 한송이가 들려있다.

김정숙동지께서 더 억제할수 없는듯 급히 아이에게로 다가가시여 담썩 그러안으시었다.

《네가 명철이로구나, 네가... 이제야... 이제야왔구나.》

아이를 꼭 그러안고 볼을 비비시는 그이의 눈가에 물기가 고여오른다. 아이는 김정숙동지의 목을 꼭 그러안고 놓지 않는다. 그러다가 불쑥 이렇게 물었다.

《아지민 우리 엄마냐?》

《그래 그래... 내가 네 엄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걱정예 못이겨 아이를 안고 한참이나 애무하시었다.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우리 함께 조국으로 가자. 》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윽해서야 현우삼의 앞으로 다가와 갈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련대장동지, 이애가 명철이에요. 정금동무를... 새 엄마를 꼭 만나게 해주려 했는데... 그만...》

김정숙동지께서는 목이 메여 더 말씀을 못하시었다. 현우삼은 몸을 흔치하며 눈을 흘렸다.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그럼 이애기 내 조카란 말인가.

불현듯 눈곱이 달아올랐다. 김정숙동지께서 정금이와 이애때문에 마음쓰시였을 일이 한꺼번에 가슴에 마쳐오며 사나이의 억센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현우삼은 어린 조가를 받아안고 터실터 실한 볼에 비비었다.

《그래 너에겐 훌륭한 엄마가 계신다. 너의 엄마는... 너의 엄마는...》

그러는 현우삼의 눈곱에 눈물이 번쩍었다.

녀대원들이 저마다 정금의 아들을 안아보며 눈물겹게 애무해준다. 옥분이는 아이를 껴 안자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흐흐하며 어깨를 떨었다. 미소를 짓고있던 김정숙동지의 눈에도 눈물이 어리였다. 그 모습을 우러르던 현우삼은 또다시 눈곱이 불로 지지는듯 따가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푸르른 하늘에서는 눈부신 태양이 뜨거운 별을 아낌없이 쏟아붓고있었다. 자기를 불태우며 그 빛과 열로 만물을 키우고있었다.

## 향도의 별

### 후안 아부르도

그 빛발 누리에 비치니  
고요하던 숲속엔  
새들이 지저귀고  
검은 비구름 저 멀리 사라집니다

향도의 별  
당신은 사랑의 희망  
당신은 신념과 힘과 확신을 안겨줍니다  
당신은 인류의 자랑  
당신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의 예언자

향도의 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영광에 찬 혁명의 진군길에서  
당신은 향도의 빛발  
당신은 주체사상으로 영원한 빛발을 .  
뿌리십니다

인간의 존엄위해 싸우는 길에서  
진보적인 인류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나니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여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필자는 니까라과작가임 )

## 어머님의 미소

류 정 옥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아가려고 온실에 들러 곱고 향기로운 꽃들을 고르느라니 불현듯 지난 가을날에 만났던 한 녀투사의 말이 문득 생각났다.

《그 어떤 진귀한 꽃도 김정숙동지의 영상앞에서는 무색합니다. 그이께서 늘 지으시던 미소가 곧 이 세상 그 어떤 고운 꽃에도 비길수 없이 아름답고 고결한 웃음꽃이었으니까요.》

그날 김정숙어머님의 반신상에 올릴 꽃을 고르며 로투사는 깊은 감회속에 잠기였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즐겁거나 기쁠 때만 웃으신것이 아니였어요.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의 그 준엄하고 엄숙한 날들에 겹쌓이는 시련앞에서도 그이께서는 언제나 노래와 춤, 웃음으로 동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곤했으니까요.

참으로 힘있는 미소였고 또 더없이 귀중한 미소였어요. 그런중에서도 김정숙동지의 미소가 가장 값높게 빛난 때는 사령관동지의 친위전사로서 고귀한 공적들을 이룩한 순간들이였다고 해야 할거예요.》

로투사의 말은 오늘도 내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 어떤 진귀한 꽃들도 무색게 할 어머님의 미소,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이 아름답고 고결한 미소.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해 하고 깊은 의미를 련상케 하는 미소이다.

화려한 꽃들을 고르는 내눈앞에는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어머님의 정겨운 그 미소가 떠올랐다.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 야영구에서》**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사진찍는 크나큰 기쁨속에 밝게 웃으시는 김정숙어머님의 해빛같은 미소가 어린 영상이다.

얼마나 뜻깊은 사연을 전해주는것인가.

혁명적락관속에, 혁명의 환희속에 한생을 걸어오신 어머님의 고결한 님이 그대로 응집된듯싶은 미소.

어쩌면 그리도 밝게 구김없이 웃으시는것인지 소리없는 미소, 말없는 미소이지만 무엇인가 열렬한 호소를 느끼게 되는 미소이기도 하다.

미소는 숨길수 없는 마음의 반사이다. 즐겁거나 만족할 때, 반갑거나 기쁠 때, 격정에 넘칠 때와도 같은 천태만상의 감정에서 피어오르는 행복한 마음의 웃음꽃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김정숙어머님의 그 미소는 그렇게 범상한 범주가 아니다. 한두마디로써는 다 말할수도없고 그 무엇으로 재일수도 없는 숭고한 세계가 어려있음을 나는 느끼게 된다.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동지께서는 중중첩첩 막아서는 난관앞에서도 필승의 신념을 잃지 않고 혁명적락관에 넘쳐 웃으며 싸워오시였다.

그 락관이 없었다면 그이께서 어찌 피바다 만리 불바다 만리를 웃으며 넘으셨으랴.

한창 재롱과 응석으로 귀어움과 사랑을 받아야 할 어리신 그 시절에 벌써 몸서리치는 기아와 살륙의 살판에서 부모님과 형제분들을 다 빼앗긴 슬픔을 가슴속에 안고계신 김정숙어머님. 그이께서 크나큰 슬픔을 증오로 바꾸어 결연히 나서신 항일혁명의 길은 또 얼마나 간고했던가.

하지만 그럴수록 어머님께서서는 더 역세게 일어서시였다.

적들의 《토벌》과 봉쇄, 기아가 극단을 이루었던 처창즈에서도 그이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몸소 지으신 **《반일전기》**를 받아안으시고 크나큰 기쁨속에 밝게 웃으시였다.

위대한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이 노래가 처창즈 인민들에게 식량 몇백석보다 더 큰힘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아동단원들과 공청원들, 인민들에게 배워주셨으며 자신께서도 힘차게 부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나날들에 사령관동지께서 계시면 언제나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이께서 계시는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지니신 혁명적 신념과 락관의 정신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사령관으로 모시고 싸워오신 나날에 심장으로 절감하신 드림없는 신조였다.

하여 그이께서는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사상과 로선을 지켜 완강하게 끝까지 싸우시였다.

친위전사로서의 보석같은 심장을 깡그리 바치는것이 신성한 의무로 되기전에 충심으로부터 분출되는 드림없는 자각이었기에 어머님께서서는 언제나 사령관동지를 옹위하는 길에서 혁명적희열과 가장 큰 행복을 느끼며 것처럼 밝게, 뜨겁게 웃으시였던것이다.

나는 김정숙어머님의 그 충정의 미소를 눈으로 만이 아닌 마음속으로 절절히 감득하게 된다.

박달나무도 얼어터진다는 밀림의 흑한속에서  
얼음을 까고 빨으신 사령관동지의 옷가지를 가슴  
에 품어 말리었을 때에조차 오한에 파랗게 질린  
얼굴색과는 달리 어머니의 영상에는 햇빛같은 미  
소가 피어있었다.

눈보라속에서도 얼지 않고 불바다속에서도 타  
지 않으며 총칼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더욱더  
아름답게 피는 미소를 어찌 자연의 꽃과 함께 론  
할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가장 진귀한 꽃들을 다 드린대도 꽃  
의 아름다움을 무색케 하는 김정숙어머니의 자애  
깊은 미소.

어머니앞에 꽃을 드리는것은 다만 다함없는 경  
모와 영생의 마음을 꽃에 담아 올릴뿐이다.

이처럼 어머니의 미소에서는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고 누구나 쉽게 따를수도 없으며 오르기도  
쉽지 않은 숭고한 녀이 빛나고있는것이다.

오직 조국광복의 구성이시고 우리 민족의 운명  
이신 불세출의 위인에 대한 매혹된 절대적인 숭  
배심을 지닌 어머니께서만이 지으실수 있는 미소  
일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듯 어머니는 친위전사, 항일의 녀장군으로  
서 오르지실수 있는 절정을 장식하셨으며 불요불굴  
의 락관적투사로 전생을 웃으시며 걸어오셨다.

바로 김정숙어머니의 미소에는 것처럼 위대하  
고 거대한 세계가 어려있다.

그래서 그이께서는 그렇듯 밝게, 행복스레, 빛  
나게 웃으시는것이리라.

어머니의 미소가 이처럼 값높이 빛나는것은 또  
한 그 보석같이 군새고 아름다운 심장을 오직 수  
령님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바치셨기때문이 아  
니겠는가. 그이께서는 생의 전기간 자신을 위해서  
는 그 심장에서 뛰는 한방울의 피도 허비하지 않  
으셨다.

시시각각 고통이 엄습하는 병석에서마저도 현  
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밝은 미  
소로 비래이시였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미소로 될줄은 누구도  
몰랐지만 그이께서는 이렇게 생의 마지막길도 웃  
으시며 가셨다.

어머니의 한생은 너무도 짧으셨다. 그러나 우리  
수천만의 일생을 다 합친대도 그이의 충정과 우  
리 혁명에 바친 고귀한 업적은 따를바가 못될것  
이다.

그래서 그이의 미소 역시 누구나 지을수 있는  
범상한것이 아니라 비범한 충정의 녀으로 빛나며  
준엄한 혁명의 길을 웃으며 헤쳐오신 혁명적락  
관의 상징으로 영생하는것이리라.

무엇인가 열렬한 호소가 느껴지는 어머니의 고  
결한 미소. 나는 그 미소가 무엇을 속삭여주고있  
는가를 알았다.

영원불멸할 귀중한 그 영상의 미소는 수백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강렬한 음향으로 오늘 우리모  
두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는것이다.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엄숙하게 말씀하  
시는것이리라.

우리의 운명이시고 생활의 전부이신 위대한 **김  
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여 오늘도 래일도 변심  
없이 충성으로 모시는 길만이 **김일성**민족의 변영  
이 있고 자기자신의 기쁨도 행복도 있으며 빛나  
는 삶이 있는것이라고.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오늘날 혁명의 일시적  
난국은 반드시 타개되고 강성대국건설위업은 반  
드시 이룩될것이니 고난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앞  
당기며 밝게 웃으며 힘차게 전진하라고 절절히  
당부하고계신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김정숙어머니께서 바라시  
는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  
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는것이다.

화초온실에서 나온 나는 주작봉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윽고 나는 높이 치달아오른 화강석계단  
을 힘있게 올랐다. 생존시에 높이 그리고 오래오  
래 모시지 못한 안타까움과 최대의 경모를 안고  
어머니의 반신상을 우러러, 그이의 위대한 미소를  
눈앞에 그리며.



## 백두산녀장군의 위인상에 대한 감동깊은 형상

김복희

수령형상소설을 기본의 기본으로 하여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는 주체적소설문학의 대화원에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이 찬연히 빛나고있다.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쳐나가는 보람찬 투쟁속에서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를 형상한 소설들이 왕성하게 창작된것은 우리 소설문학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과 주체사실주의소설문학의 면모를 과시하는 일대 경사이다.

우리의 주체적소설문학은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동서고금에 전례없는 충신의 최고전형,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최고화신, 백두산의 녀장군,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로 숭고하게 형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의 생리는 문학이 문학으로서의 생명을 가지게 하며 작품의 형상을 유기체와 같이 살아움직이도록 맞물려주고 이끌어나가는 원리이다. 작가가 주관에 사로잡혀 작품의 생리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형상을 죽여버리고 성격과 생활을 외곡하게 된다.》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를 창작의 지침으로 삼아 우리 작가들은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작품창작에서 그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함으로로써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소설은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어머니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진실하게 창조하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의 가장 위대한 귀감으로,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로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훌륭히 그리고있다.

우리 소설들에 모셔진 김정숙동지의 형상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장 충실한 충신의 최고전형으로 숭고하게 묘사되고있다.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로부터 시작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력사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의하여 최고의 높이에 이르게 되었다.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오랜 혁명투쟁은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사랑과 충성의 력사로 수놓아져있으며 그 길에는 헤아릴수 없이 수많은 충성의 별들이 빛나고있다.

주체혁명과 함께 전진하여온 우리의 소설문학에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충신의 전형들이 많이 빛을 뿌리고있다.

그러나 김정숙동지처럼 그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가장 친근한 혁명전우로, 동지로, 가장 충실한 전사로 한생을 충성의 한길로만 걸어온 충신의 전형을 찾아볼수 없었다.

충실성의 높이에 있어서나 그 깊이와 순결성에 있어서 김정숙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의 전형으로 되는것이다.

다부작장편소설로 이루어진 《충성의 한길에서》(1~6부)와 단편소설집 《불멸의 영상》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김정숙동지를 모신 작품들에서는 모두다 일관하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어머니의 한없는 충실성을 감동깊이 묘사하고있다.

참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절대적인것이고 순결한것이며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된것이다.

김정숙동지의 풍부한 내면세계와 사상정신생활을 통해서 생동하게 묘사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가장 숭고한 세계는 오늘 우리가 이어가고있는 충성의 력사가 어디에 뿌리박고있는가를 깊이 가르치고있다.

단편소설 《순간》(한익훈 《청년문학》 주체86.12호)은 김정숙동지께서 어떻게 위대한 수령님만을 충성으로 받들어모시였는가를 한 사진기자의 수기형식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첫모를 내신 미립벌에서 그 다음해 김정숙동지께서 첫모를 내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때 수령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을 촬영하여 세상에 널리 알린바있는 사진기자에게 어머니의 보내기장면을 다시 찍어올 영광이 차례지게 된다. 너무도 수수하게 차리시고 보내기를 하시기에 김정숙동지를 찾아내지 못한 사진사는 리농맹위원장에게 물어서야 겨우 어머니를 뵈게된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장군님만을 받드는 전사의 한사람이 예요.》라고 하시며 농민들을 많이 찍으라고 권고하신다.

백두산의 전설적위인의 겸허함에 눈물흘리며 가을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진찍을것을 기자는 말쑥드렸지만 김정숙동지는 그해 가을에 세상을 떠나셨던것이다.

작품은 하나의 작은 생활세부를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께서 지니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형상적으로 확장하는데 매우 효과있게 구사하였으며 단편소설의 생리에 맞게 미학적으로 분석 평가하고있다. 그러므로 소설은 감동이 있고 여운이 있으며 혁명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귀감으로서의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을 뜨겁게 부각하고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표현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우리 소설문학에 형성된 백두산의 녀장군김정숙동지의 형상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가장 투철히 체현하고있는 최고의 귀감으로 감동적으로 그려지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한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되시여 목숨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옹위하신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최고화신이다.

김정숙동지는 수령결사옹위의 제일선에서 싸워오신 천위전사이시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전과정에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자신의 시대적사명감을 깊이 자각한 전위투사이시였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와 같은 충신들에 의하여 개척되고 발전되어온 사상정신적 재부이다.

백두산의 녀장군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소설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옹호보위하고 받드는 길에 한생을 바쳐오신 어머니의 감동깊은 생활로차있다.

수령을 옹호보위한다는것은 곧 수령의 안녕을 지키고 수령의 사상을 옹호하는것이라는것을 잘 알고 심장으로 체득하신 김정숙동지이시기에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목숨으로 지키고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시였다.

장편소설 《총성의 한길에서》 제6부 《설령의 붉은기》에서는 김정숙동지와 림수산과의 대결 장면과 대사하치기전투에서 한몸으로 사령관동지를 옹위하신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통하여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을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일에서 천번중의 단 한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시며 한평생을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심혼과 지성은 혁명전사의 심장은 한생 어떻게 고동쳐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는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이다.

조선혁명의 창창한 미래를 안아키우신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동지는 그 누구도 대신힐수도 없고 오를수도 없는 특출한 지위를 차지하시고 인민의 경모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항일의 폭풍우속에서, 새 조국 건설의 벅찬 한계속에서 문무총효를 겸비하신 위대한 계승자를

높이 받들어올리신 위업은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길에서 쌓아올리신 김정숙동지의 가장 위대한 업적의 하나이다.

우리 작가들은 불타는 충효심을 안고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감격적으로 훌륭히 묘사하고있다.

단편소설 《고향의 가을날에》(《조선문학》 주체87. 4호)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령의 고향집을 돌아보시고 어머니의 동상을 찾으시여 두분이 서로 주고받는 속대사가 뜻깊게 펼쳐지고있다.

소설은 새로운 형상수법으로 백두산 3대장군의 위인상을 부각하면서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미래를 안아오신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으며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이 주는 긍정적시사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정일**장군이 나를 잘 받들어주고있다고 김정숙동지와 함께 심중을 나누시면서 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지 못한 자책감을 되뇌이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신다.

《(무슨 소릴 하오. 정숙동무는 백두광명성을 받들어올린것만으로도 우리 조국과 인민 앞에 커다란 공적을 쌓았소. 그 광명성은 오늘 우리 민족의 앞길을 찬란히 비치는 태양이요. 그 태양이 있어 이 땅에 오늘과 같은 현실이 펼쳐진게 아니겠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장군은 충효에 있어서나 덕망에 있어서나 의지에 있어서나 그 모두가 정숙동무의 성품을 많이 닮았다고 하시며 높이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바라보시면서 회령을 떠나시기에 앞서 강사에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지금 우리에게 **김정일**장군을 잘 받들어달라고 부탁하고있소. 그건 나의 부탁이기도 하오. 김정숙동무가 나를 받들어 한생을 바쳐 온것처럼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김정숙형의 충신이 되어 **김정일**장군을 받들어달라는것이 나의 소원이요...

사람의 심장을 흔들며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은 김정숙동지이시야말로 두분의 수령, 두분의 장군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이시라는것을 힘있게 가르치고있다.

작가는 참으로 단편이라는 아담한 그릇에 새로운 형상수법으로 위인들의 형상을 훌륭히 모셨으며 우리 작가들에게 귀중한 창작경험을 안겨주고있다.

단편소설 《고향의 가을날에》는 특색있고 참신한 구성기교로써 독자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3인칭소설이면서도 주로 위대한 수령님의 회상으로 두분의 위대성이 부각되고있으며 이와 함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도 잘 돋구어지고있다.

단편소설은 김정숙동지를 모신 작품들에서의 도식성을 극복하고 인간관계와 이야기줄거리 등의 구성조직을 얼마든지 참신하고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혁신해나갈수 있다는 좋은 창작경험을 주고있다,

우리 소설문학은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교육업적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작품도 적지 않게 창작하고있다.

단편소설 《새 아침》 (《조선문학》 주체87. 1 2호)은 김정숙동지께서 조국이 광복된후 북방의 도시《天》시에서 며칠간 사업하신 업적가운데서 새 조국건설에서 교육사업을 바로잡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교육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거기에 끝없는 로고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교원들과 학생들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는 감격적인 이야기를 담고있다.

단편소설은 교원들속에서 아동가요작곡가와 작가를 찾아내시고 키워주시며 해방된 시대정신의 요구에 맞게 광복의 새 아침을 노래하는 아동가요작품을 창작하도록 이끌어주신 김정숙동지의 교육자로서의 위대한 형상을 특색있게 그리고있다.

소설은 자기의 형태적특성에 맞게 해방직후 김정숙동지께서 교육분야에 쌓으신 그 많은 업적가운데서 극히 작은 하나의 사실인 첫 아동가요를 창작하도록 이끌어주신 감동적인 이야기를 간명하게 묘사하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국이 광복된후 북방의《天》도시에 도착하신 첫날부터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현실을 료해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안겨주시고 새 조국 건설에로 불려일으키시며 이곳에 파견되여온 항일투사들을 만나시여 사업보고도 들으시고 공장과 부두, 살림집들에 이르기까지 돌아보시며 산업시설복구정형과 인민생활도 알아보시면서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찾아 가야 할곳은 참으로 많으시였고 도처에서 그이의 손길을 기다리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교육사업의 중요성으로 하여 회령고향집을 찾는 일도 뒤로 미루시고 교육실태를 료해하시기 위하여 원흥인민학교를 찾아떠나시였다.

소설은 해방직후 원흥인민학교의 교육실태를 중심으로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서도 단편소설의 특성에 맞게 아이들에게 새로운 노래를 안겨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그리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날 교육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해결방도까지 토론해주신후 학교를 떠나시였다.

밤낮을 이어 사업에 몰두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투사동지들이 잠시 시간을 내실것을 소

원해도 꼭 찾아봐야 할 사람이 있다시며 일요일의 저녁휴식시간마저 아이들을 위해 바치신다. 광복된 조국땅에서 해방전에 부르던 슬픈노래를 부르며 학교로 오갈 원흥인민학교 학생들을 생각하시며 몸소 음악교원 김수균의 집을 찾으시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김수균이 이미 아동가요를 창작한 경험이 있다는것을 아시고 그에게 티없이 깨끗한 아이들의 가슴속에 조선사람의 녀을 부어주고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아동가요를 창작하는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랄수 없는 훌륭한 일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작곡가선생을 찾아온 용무의 하나도 아이들이 부를수 있는 노래를 부탁하려는데 있다고 간절히 말씀하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후대를 잘 키우는것은 혁명의 피줄기를 대를이어 곳곳이 이어나가도록 하는 중대한 사업이라고 가르치시였다고 깨우쳐주신다.

대작창작만 꿈꾸던 김수균은 위대한 항일의 녀성영웅에게서 아동가요창작의 중요성을 깨닫게되고 그 부탁까지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며 아동가사까지도 맡아주시는 김정숙동지의 넓은 도량과 너무나 평범하심에 완전히 매혹되고만다.

이와 같이 김정숙동지의 평범하고 겸허하신 풍모를 통해 그이의 위대성을 훌륭히 부각하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원흥인민학교 처녀교원인 장희영에게 교원의 긍지를 깨우쳐주시고 학급학생들을 위해 마련하신 학습장도 주시며 아동가요가 적혀있는 혁명가요집도 안겨주시였다.

김수균과 장희영에 의해 아동가요가 창작되자 몸소 아동가요합평회를 마련해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요들이 더 훌륭히 완성되도록이끌어주시며 노래제목을 《새 아침》이라고 친히 달아주신다.

원흥인민학교 학생들이 부른 이 노래는 해방후 처음으로 열린 설맞이어린이공연무대에 다시 올랐고 그해 조선소년단창립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전국아동가요현상모집에서 영예의 1등상을 받게 되였다.

소설이 담고있는 이야기는 아동가요를 창작하도록 교원들을 이끌어주신 작은 사실이나 거기에 담고있는 김정숙동지의 뜻은 참으로 높은것이다.

김정숙동지의 교육자로서의 형상의 위대성은 어머님께서 지니신 사상의 심오성에 의해 보장되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 첫 아동가요를 창작하도록 마음쓰시는 거기에는 그것을 수령님의 건국위업을 받드는 일로 여기시고 혁명의 대를 이어가는 사업의 하나로 보시며 교원, 학생들에게 반드시 해결해주어야 할 생활의 요구로 평가하시는위대한 사상이 담겨있는것이다.

소설에서는 성격론리, 생활론리를 진지하게 파고들면서 대조의 수법도 여러 측면에서 선명하게

잘 구사하여 김정숙동지의 위대성을 더욱 부각하고있다.

백두산녀장군의 위대하고 평범한 품모, 뜻깊은 말씀과 겸허한 성품, 거대한 의의가 있는 교육사업에 대한 실태료해와 사사로운 생활에까지 돌려주시는 뜨거운 인정을 잘 대조하여 형상을 선명히 하고있다.

복잡한 교육실태의 간결한 처리와 필요한 생활의 섬세한 묘사, 진지하고 담담한 언어묘사도 김정숙동지의 위대성을 잘 돋구어주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태양의 해발이 되시여 빛나는 새 아침을 펼쳐주신 어머니는 위대한 태양의 따사로운 해발이시라는것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우리들은 지난 창작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동지의 위대성을 더 높이 형상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숙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 그 내면세계를 심오하게 철학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수령결사옹위의 체험세계와 녀장군으로서의 사색과정을 더 폭넓게 그리며 위대

한 공산주의혁명투사로서의 강의한 의지를 깊이 묘사하여야 한다.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두분의 장군을 위해 정성을 바치는 길에 시련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으시였고 동지를 위한 길에서 마음고생인들 얼마나 많았는지 헤아릴수 없을것이다. 이런 생활에 깃든 사연을 생활의 모양대로 깊이 파고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김정숙동지의 위대성이 위대한 높이에서 부각될수 있다.

김정숙동지를 모신 소설의 형태도 끊임없이 다양하게 발전시켜야 할것이다.

지금 김정숙동지를 주인공으로 한 장편소설들은 《충성의 한길에서》를 비롯하여 몇편 창작되었으나 중편소설은 나오지 못하고있으며 단편소설도 많이 창작되고있다고 볼수 없다.

우리 소설가들이 하여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동지를 모신 소설은 응당 수령형상소설의 생리를 구현하여야 하며 사상적높이에 있어서나 형상의 풍격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게 창작되어야 할것이다.

## 영원한 초침소리

김 선 지

풍요한 조국땅에  
열매가 주렁지는 가을이 오면  
더욱더 그리워지는  
김정숙어머님

그리움을 안고  
대성산혁명렬사릉  
어머님앞에 서면  
수령님께서 손수 채워보내신  
손목시계의 초침소리  
오늘도 들려오는듯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인민의 행복을 위해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신 어머니  
너무도 일찌기  
너무도 뜻밖에  
우리결을 떠나시였으니

산천초목도 몸부림치고  
온 나라 인민의 마음  
눈물의 비다를 이루던 그날  
방금 웃던 사람이 갔다고  
그 불갈던 사람이 갔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수령님

옷 한벌 변변한것 없이  
너무도 일찌기 떠나시는  
그 생을 영원히 이어주고싶으시여  
몸소 만대업을 주어  
손목에 채워보내신 손목시계

그 초침소리  
오늘도 우리의 심장에 들려와라  
어머님 심장의 박동처럼  
어머님 충성의 숨결처럼

대성산혁명렬사릉  
어머님앞에 설 때면  
어머님 오늘도 그 시계를 보시며  
수령님을 보좌해드리시는듯  
금수산기념궁전 가까이에서  
오늘도 젊으신 모습으로  
어버이수령님 곁에 영원한 호위병이 되신듯

우리 레사로이 차고다니는  
시계의 무게를 알게 하는  
어머님 시계의 초침소리  
영원히 그 시계의 초침에 맞추어  
어머님 충성의 삶 그 한초한초를  
우리 삶의 자욱으로 이어가리라

## 혁명의 1 세대들의 래도

70년대초, 한 일군이 입원중에 있는 림춘추동지를 찾아갔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입원실안에서 《유격대행진곡》을 부르는 석섭하면서 힘있는 노래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다.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방안을 가로질러 왔다갔다하면서 주먹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던 림춘추동지가 환자같이 않게 반색하며 다가왔다. 《이게 누구야, 옛 세포비서가 아니야. 인제는자 전거를 탈출 알겠지 ?》라고 말하며 소리내어 웃었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일할 때 자전거를 탈출 몰라 빠스비를 많이 쓴것으로 하여 비판했던 일을 기억하고있었던것이다.

원탁을 마주하고 앉으며 병문안을 하자 그는 조용히 일어서며 창가로 다가가는것이였다.

《의사들이 내 심장이 앓아졌대. 그것을 아신 수령님께서 당장 입원치료하라고 하시여 이렇게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있지.》 이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조용하면서도 한마디한마디가 젓어있었다.

원탁우에는 찢어진 종이가 한가득 널려있었다. 소설책을 찢어놓은것이였다.

《선생님은 치료받고계시는 이 여가시간에 손자의 딱지를 만들고계시지 않습니까?》

로투사의 마음을 헤아려 생활적으로 말을 돌려보려고 룡조로 묻자 《그건 무슨 소리야?》하며 그는 의아한 눈길로 그 일군을 쳐다보았다.

조용히 웃으며 원탁우의 찢어진 종이들을 가리키자 그는 쓴 입을 다시며 《음, 그건 내가 쓴 〈청년전위〉 3부야. 수령님한테 서 비판받고 수정가필하는중이야.》라고 말했다.

《그러면 서기한테 시켜서 원고지에 올린후 가필한다던가 입원치료를 끝낸후 손을 대시지요.》

《아니, 아니, 내가 저지른 과오를 서기와 함께 고쳐서야 되나. 그리고 결함은 빨리 고치면 고칠수록 좋은거야. 빨찌산시절의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글을 쓰노라면 그때의 젊음이 되살아나구 병두 달아나누만.》라고 심중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다.로투사의 말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일군은 새로운 눈으로 원탁우에 널려있는 책장들을 살펴보았다.

종이여백에 씌여진 좁쌀같은 글씨가그의 고심 어린 사색을 말해주고있었다.

《동무는 내가 비판받은걸 모르겠구만. 옛세포비서가 그걸 모르면 안되지. 내가 전화를 걸어주겠으니 록음테프를 가져다 들어보라구.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알게 될거네.》

이때 문밖에서 《차렷》하는 웅글진 소리가 나고 문이 열리더니 오백룡동지가 들어섰다.

그는 거수경례를 하며 존경을 표시하였다. 그러지 림춘추동지는 그를 포옹하였다.

그 일군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니 선생님은 그냥 앉아있으라고 하면서 오백룡동지에게 소개하였다. 이때 복도에서 기침소리가 났다.

《아차 내가 김익현이를 복도에 세워놓고 들어와서는... 여, 들어오라구.》하고 오백룡동지가 말하였다. 김익현동지가 들어서면서 역시 림춘추동지에게 거수경례를 하였다.

선생님은 급히 마주 걸어나가며 《이 사람을 복도에 그냥 세워둘변했구만.》하고 웃었다.

림춘추동지는 그들에게 자기가 입원한것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가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오백룡동지는 정숙한 자세를 취하면서 며칠전에 위대한수령님의 접견을 받았는데 그이께서 림춘추동무가 입원하고있으니 병문안을 가보라고 하시였다고했다.

그 말을 듣자 림춘추동지는 눈굽을 찍었다. 그는 젓어드는 목소리로 《이렇게 와주어 고맙소. 고맙소.》라고 말하며 투사들의 손을 다시 뜨겁게 잡았다. 오백룡동지와 김익현동지가 병문안을 끝내고 떠나간후 그 일군은 림춘추동지에게 물었다.

《오백룡동지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직위가 있는백전로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을 매우 존대하는것을 보니 그 시기 선생님이 더 높은 직위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림춘추동지는 《아니, 아니.》하며 손을 내저었다.

《그건 수령님을 가까이 모시고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우리 투사들의 태도야. 혁명의 1세대들은 직위보다 그것을 더 귀중히 여겨. 그러니 내가 처신을 잘해야 하는건데 벌써 두번째 큰 과오를 범했으니. 그런데도 우리 수령님께서는 나에게 개준할 기회를 또 주시여어. 정말 우리 수령님의 사랑은 하늘에 닿지.》라고 말하는 그그의 눈은 축축히 젓어있었다.

박승록



## 푸른 하늘, 푸른 바다

최양수

나는 지금 수도의 밤거리를 걷는다.

이제 며칠후면 공화국창건기념일, 명절을 앞둔 수도의 밤풍경은 사방에서 얼른얼른하는 장식등들의 현란한 빛발속에 아름다운 전경을 펼쳐보인다.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면서 곧 써야 할 원고의 상을 무르익혀가며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여간다. 조국에 대하여,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반세기가 넘는 자랑스런 력사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글을 썼던가. 거기에 나의 작은 목소리까지 합치자니...

이밤은 끝없이 걷고싶기만 하다. 명멸하는 형형색색의 불빛들을 받으며 김일성광장에 들어선 나는 저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었다. 불야성을 이룬 대동강너머 저쪽 《주체》라는 금빛글발이 새겨진 대형탑신우에서 밤하늘을 활활 불태우는 봉화, 광장앞 건물우에 퍼져나가는 빛살들을 배경으로 우리 나라 국장과 세차게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를 형상한 갖가지 색깔의 장식등들... 붉고 푸르고 흰... 무엇인가 불시에 가슴을 쿵 울린다. 그 여파인지 머리속에 떠오르는 하많은 생각들... 과거와 현재, 미래... 각이한 상념들이 언뜻거리더니 점차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뇌리를 꽉 채운다.

문득 먼 산의 메아리마냥 귀전에 울려오는 속삭임소리.

나의 희망은 푸른 하늘

나의 마음은 푸른 바다

이것은 어릴적 나의 목소리이다.

이젠 까마득히 흘러가버린 철없던 시절, 고향의 바다가 모래불우에 앉아 쉬임없이 설레이는 푸른 바다 저 멀리 수평선가를 바라보며 소박한 마음과 꿈을 푸른 물결우에 실어보던 그 시절의 나의 목소리이다.

...바다가마을에서 자란 나는 어릴 때부터 공상을 즐기었다. 은빛파도가 기슭을 쓸어내리는 백사장우에 알몸뚱이로 네활개 펴고 드러누워 흰 갈매기 날아에는 아득한 하늘을 바라보기 좋아했다. 부슬부슬 흘러내리는 하얀 모래알들을 자꾸만 쌓아올리면 펄펄짐한 백사장에 자그마한 《산》이 솟아오르고... 썬- 처절썩 !... 하냥 기슭을 때리는 파도소리 씩없이 들려오는데 눈동자에 비끼는것은 온통 푸른 하늘, 푸른 바다!

하늘의 끝은 어디일까? 바다는 얼마나 클까?

푸른 하늘, 푸른 바다가 맞붙은 저기 저 미지의 곳엔 무엇이 있을까? ...

철부지시절과의 작별을 앞둔 그때엔 희망으로 한껏 부풀어오른 가슴을 안고 바다가 모래불에 앉아 하염없이 생각에 잠기기도 하였다.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될까?...

세월은 빠르게도 흘러갔다. 그동안 생활은 자기의 줄기찬 흐름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밤깊도록 불빛이 꺼질줄 모르던 교정의 창가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동무삼아 책갈피속에 온 심혼을 쏟아붓던 대학시절. 그후 당의 배려로 혁명의 군복을 입고 대자연을 길들이는 전투에 참가하여 응글은 발파소리를 랑만적인 노래처럼 들으며, 터져나오는 석수를 육탄으로 막아내며 불굴의 군인정신을 배워가던 나날...

언제부터였는지 나는 자기 마음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 일기장에다가 시를 쓰고 노래를 짓고 이야기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식을줄 모르는 청춘의 더운 가슴속에서 봄날의 들판에 피어난 새싹처럼 수집은듯이 움튼 생각들을 차곡차곡 담아놓은 작은 《그릇》에 불과했으니, 그 글들중 공사장에 취재하러 왔던 한 기자가 몰래 베껴간 한편의 시가 활자로 찍혀져 나의 이름과 함께 책이 되어 세상에 나올줄 어찌 알았으랴.

가슴속의 흥분을 진정할수 없어서 인쇄잉크냄새가 풍기는 책을 높이 쳐들어 흔들며 목청껏 소리치던 일.

《아, 나도 시를 썼다 !》

환희에 북받쳐 잠 못이루던 그날, 자기 존재에 대한 보다 뚜렷한 인식과 함께 발돋움하여 세상을 좀더 자세히, 좀더 멀리 굽어보게 된 그날 별안간 나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나도 전문시인이 될수 없을까? 작가가 될수 없을까?... 이부자리 보고 발을 퍼뼀다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래도... 아니, 될테다! 작가가 되어 무엇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어떤것이 참되고 정의로운것인가에 대하여, 나의 친근한 병사들, 동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싶었다 !

나는 그 높이를 가늠할수 없는 아아한 산정으로 치달아오르듯이 낮이나 밤이나 잠만 있으면 책을 읽고 원고지와 씨름했다. 눈가에 안겨오는 모든것이 그림같은 화폭이였고 귀가에 들려오는 음향들 모두가 시대의 벽찬 숨결이였고 노래였고 시였다. 때로는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기 위해 저

너점검시간이 지난지 이속한 병영마당으로 나가  
황홀경의 별바다를 펼친 검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슬렁슬렁 거닐기도 했다.

내가 언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가?...

착암기를 틀어잡고 억척같이 막아서는 암벽을  
밀어가며 이 땅우에 수풀처럼 일떠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어떻게 일떠섰는가를 깨  
달던 그 나날에였던가, 가도가도 끝이 없을상싶은  
과학의 천연수림속을 걷던 대학시절 은하수 흐르  
는 밤하늘의 별들을 세여보면서였던가, 아니면 그  
보다 썩 이전 고향의 바다가 백사장우에 오이씨  
같은 발도장을 찍어가던 그때부터였던가?...

정녕 알수 없었다. 언제부터 나의 가슴 깊은곳  
에 맑은 하늘가의 칠색무지개같은 꿈이 자리잡은  
것인지.

그런데, 남모르게 가슴속에 깃든 소원이 것처럼  
빨리 실현될줄은 미처 몰랐다.

첫 시를 발표하던 때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전문창작기관으로 소환되던 날, 너무나 놀  
랍고 흥분되어 나는 기쁨을 의식하기에 앞서 어  
리둥절해졌다. 꿈을 꾸는것 같은가 하면 현실이었  
고 현실인가 하면 꿈결인듯싶은... 그렇게 나는  
작가가 되었다 !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소리도 없는  
그 소중한것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 마  
중해왔고 멀리에서도 불원천리 찾아왔고 , 아름  
게 안겨지지만 했다. ...

밤은 소리없이 깊어간다. 나는 아직도 한자리에  
서 움직일줄 모른다.

추억의 노를 멈추고 눈길을 드니 어느새 뿌잇  
해진 망막속에 커다란 불덩이로 비껴들어 온 누  
리를 밝혀주는 태양인양 어둠을 몰아내는 주체사  
상탑봉화...

세상을 음미해볼수 있다는것은 자기를 안다는  
것이다. 하거늘 호기심과 환상 속에 흘러간 철없  
던그 시절 내가 자기를,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았

을가. 엄마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던 아가시절  
처럼《너는 이 길로 가거라.》하고 따듯이 안내해  
주는 정다운 손길이 항상 곁에 있고, 유치원시절  
진달래꽃문양의 창가림을 내리드리운 훈훈한 방  
안에서 시름없이 낮잠시간을 보내던 포근한 잠자  
리처럼 한없이 은혜로운 품이 자기를 안아주고있  
는줄 어이 다 알수 있었으랴.

가슴이 뭉클 젖어든다.

조국! 안기여 그지없이 파사로운 어머니의 체  
온과도 같은 그 품!

고마와라, 은혜로운 조국이여. 내 진정 무슨 말  
로 그대에게 감사드리랴.

조용히 입속말로 외워본다.

나의 희망은 푸른 하늘

나의 마음은 푸른 바다

내 유년시절 천진한 동심속에 바라보던 수평선  
은 어디? 즐거운 추억으로 아로새겨진 행복넘친  
길에 이어 앞으로 계속 가야 할 길, 그 끝은 어  
디?

비로소 세상을 둘러보고 자기도 알게 된 오늘,  
비로소 인생의 철이 든다는것이 무슨 뜻인지 비  
슷이 감득하게 된 오늘 마음속으로 가다듬게 되  
는 생각이 있다.

추호의 동요도 주저도 있어서는 안될 길, 고개  
를 높이 쳐들고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웃으며 노  
래를 부르며 가야 할 길, 그 길에서 내 쓰고 또  
쓰리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높  
이보시고 21세기와 더불어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부흥번영할 내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저 주체사  
상탑봉화처럼 광휘로운 내 조국의 위대함을, 저  
펼펼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처럼 눈부신 내 조  
국의 아름다움을...

# 동무들아 군복을 입자

리 영 철

우리는 열일곱 애젊은 나이에  
교문을 나신다  
동무들아 군복을 입자  
조국앞에 자기를 세울  
그날이 왔다

병사의 군복은  
조국이 주는 옷  
어머니가 지어주던 계절옷이 아니다  
눈에 열고 비에 젖어도  
푸른 빛을 버리지 않는 군복  
우리의 성격에 꼭 맞는 청춘의 옷이다

군복을 입으면  
선생님앞에 드릴 인사도  
병사의 씩씩한 거수경례  
렬차를 타도 우리의 렬차는 군용렬차  
주소도 군사우편대호  
우리의 삶을 군복이 다 말해주리

군복을 입으면  
가장 떼떽한 아들로 되리라  
사랑도 심장을 조국에 바치는 병사의 사랑

그것으로 우리의 가슴은 더 넓어지리라  
그것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먼길에  
빛나는 자욱을 남기게 되리

군복은 우리의 교과서  
학창시절 다 읽지 못한 진리를 주는 푸른빛  
군복을 입으면 모든것을 다 알게 되리  
사랑도  
증오도  
인생도  
조국도  
피와 땀으로 새기게 되리

아 군복을 입으면  
우리는 최고사령관기와 운명을 같이하는  
청춘  
그 붉은빛을 간직한 가장 행복한 청춘  
목숨을 바쳐도 장군님을 위하여  
동무들아 군복을 입자  
동무들아 조국의 옷을 입자

(주체 88년 6월 23일)

# 청춘, 사랑

김 정 철

청춘의 미쁜 장난입니까  
사랑의 산들바람입니까  
처녀는 이쪽 페루를 타고  
총각은 저쪽 페루를 타고  
손에 손 마주 껴잡고 갑니다

누가 멀리 더 멀리 가나  
가다가는 까르르 터지는 웃음소리  
웃음속에 꼭 잡는 손과 손  
마치도 이 처녀의 이 누리가  
두사람을 위해 있길라도 하는듯

황혼이 깃드는 먼 산굽이엔  
가락지처럼 흰 연기 감고 선 굴뚝들  
아마도 저녁밥이 찾는가보지요

하지만 서둘러 가고싶지 않아요  
청춘의 심장은 사랑의 다리는

뻗어가는 새 철길을 따라  
날마다 즐거움도 늘어가는 길  
그래서 바위와 바위를 뚫고  
한치라도 더 한치라도 더  
철길을 펼쳐간 그 마음이 아님니까

아, 제손에 제 행복을 틀어쥔  
아름다운 인간  
처녀와 총각, 사랑과 청춘이  
손에 손 마주잡고  
자신을 바쳐 위혼의 궤도를 늘이며  
함께 가고있는거랍니다

## 명절전야에

-한 주치의의 수기에서-

한 의 훈

전화는 길지 않았다.

림부주석이 불시에 출장떠나게 되었으니 빨리 중앙인민위원회로 와달라는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것 같았다. 한순간 등골에서 짜릿한 전율이 일기까지 했다.

《아니, 안되오, 절대안정해야 한다는걸 전혀 모르는것 같구만. 어쩌면 그럴수 있소. 오늘 당장 입원시키기로 하지 않았소.》

나는 분별을 잃을 정도로 흥분해서 목청을 높였다.

저쪽은 한숨부터 앞세웠다.

《알면 뭐랍니까. 오늘 류정군에 자신이 꼭 가야 한다면서 그냥 왕고집을 쓰시니... 현선생이 주치의의 자격으로 업포를 놓으면 어쩌실런지... 전혀 이가 들어가지 않으니 야단아닙니까.》

나는 경황없이 의료준비를 갖추후 서둘러 병원 대기차에 몸을 실었다.

하나 이런 맹랑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중앙인민위원회 청사에 당도하니 금방 림부주석이 떠나가버렸다는것이였다.

나는 헤덤벼치며 부르릉거리는 차에 뛰어올라 누구에게라없이 바쁜 소리를 내질렀다.

《빨리... 빨리 림부주석의 차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거리는 온통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는 명절일색으로 단장되어가고있었다. 명절선전화들이 나붙어 있는 크고 산뜻한 상점의 유리창들, 곳곳에서 눈을 끄는 경축판들과 기발뭉음... 보통문로타리를 지나면서 보니 벌써 가로등기발대에 람홍색공화국 기를 내걸고있다. 이틀후면 명절인것이다.

하늘도 우리의 명절을 알아주는것 같다. 어제 오전까지만 하여도 잔뜩 흐려가지고 늦장마질하던 가을하늘이 이 아침에는 거짓말처럼 건듯 들렸다. 솜사탕같이 부풀어오른 몇점의 구름이 떠있을뿐 쾌청하게 맑은 날씨다.

아직도 장마비의 여운처럼 락수물이 고층주택들의 수채통에서 번쩍거리며 흘러내린다. 물기를 머금고 축축해진 포장길 위에는 해빛이 반사되어 눈부시게 아롱거린다.

자동차에 탄 그 누구나 명절전야에 자연히 안겨드는 명쾌한 흥분으로 들떠있었다. 유독 나만이 입원시켜야 할 림부주석을 놓친것때문에 울적한

기분이였다. 목표를 잃은 항해사의 심정이랄가 온 가슴이 당황함으로 두근거리였다.

사실 림부주석은 출장가갈 형편이 못된다. 장기적인 협심증질환이 매우 위중한 상태에 이르러 심장의 삼분의 하나가 겨우 제구실을 하는 형편이다. 게다가 요즈음은 경색소견까지 심하게 나타난다.

그런 림부주석이 평안남도 한끝의 산골인 류정군으로 떠났으니 이런 난사가 어디 있는가. 나는 속이 바질바질 탔다. 생각이 번거로웠다.

과연 림부주석이 어떤분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차례에 걸쳐 건강해서옆에 오래 앉아있기만 해도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신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첫세대, 로투사들중의 한 사람이다. 이처럼 귀한분의 건강을 책임지고도 왕왕 지금처럼 주접이 들어 혈떡거리며 뒤쫓아가는 신세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나는 사람들속에서 대체로 성미가 너무 메마르다할 정도로 령정하고 날카롭다는, 좋게는 키는 작아도 고추처럼 맵다는 평판을 들어온다. 그런자신이 조용하고 친절하고 마음이 너그럽기만 한 림부주석의 주치의로 오래동안 일해오지만 늘 그의 뒤꽂무니를 《추격》하는 《가련》한 주치의로 지내왔다는 억울한 생각이 불같이인다.

오늘은 별스레도 해방직후에 뜻밖의 인연으로 림부주석의 건강을 책임지고 따라나서지 않으면 안되였던 일이 늘 그를 쫓아다니는 전조였던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나라가 광복된 그해 겨울 나는 평안남도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심장질환환자들을 전문담당해보고있었다.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는 어느날 밤이였다. 나는 구급과의 직일근무를 서고있었다. 한밤중에 갑자기 눈부신 전조등을 켜단 승용차 한대가 병원 현관앞에 달려와 멎어섰다.

승용차가 흔치 않던 그 시절이라 나는 웬 간부 어른이 온것으로 짐작했다. 몇사람이 성급히 담가에 의식없는 환자를 무겁게 담아싣고 구급과 방에 들어섰다.

환자는 건장없는 군복차림에 코숭이가 몽툰 커다란 가죽장화를 신고있었다. 항일투사로서 지금은 평안남도당 제2비서로 사업한다는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나는 숨가쁜 정신적인장감에 휩싸였다.

환자가 심장발작으로 의식을 잃은것은 조만식 폐당때때문이었다. 그놈들이 《대동단결》을 제창하는 글을 실은 어떤 출판물의 교정지를 미리 발견하고 너무 분개해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쓰러졌다고 했다.

나는 쇼크상태에 빠진 환자치료때문에 거의나 뜬눈으로 새웠다. 새벽에 저도 모르는새에 침대모서리에 이마를 얹고 감빠 졸았다. 비몽사몽간에 머리우에서 낮으면서도 잘 울리는 목소리가 먼 고장에서 우뢰치듯 웅글게 떨어져내렸다.

《의사선생... 수고가 많았습니다.》

번쩍 정신차리고 머리를 들어보니 키며 체격이며 모든것이 천부적으로 거방진 투사동지가 떡뽽치고 서있었던것이다. 체소한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정상적이면서도 위엄이 번뜩이는 두눈에서는 온화한 웃음이 떠올랐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을적에도 대단히 건강한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느새 옷을 다 입고 나루배같이 커다란 가죽장화까지 신고서있으니 구급과 방안이 숨차게 비좁아지는것 같았다.

나는 황급히 그의 목직한 손에 매달리었다.

《아니, 이러면 안되는데요. 며칠 꼭 안정해야 합니다.》

저쪽은 싱글벙글 웃으며 머리를 저었다.

《일없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걸요. 토지개혁준비때문에 오늘 저 장천군으로 급히 출장떠나야 합니다. 자 그럼 수고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그냥 불들이돌 용기를 내지 못했다.

환자라는 생각보다 항일투사출신에 평안남도당 제 2비서라는 위압감때문에 병원 현관에 따라나가 공손히 바래워주기까지 했다.

그가 떠난지 얼마 안되어 나이지숙한 원장선생이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방에 들어섰다.

침대가 빈것을 보자 그는 깜짝 놀래었다.

《투사동지는 왜 없소?》

《졸전에 떠났습니다. 오늘 급히 출장가야 할 일이 있다기에...》

원장선생은 제잡담 두눈이 곳곳해서 어성을 높이었다.

《현선생, 그런 위중한 심장환자를 내보내면 어찌하오.》

나는 한마디의 변명도 못하고 한숨만 내불었다. 더이상 중언부언 변명할 구실이 없었다. 얼굴이 화끈했다.

《이걸 어쩔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는데...》

원장선생은 안절부절하다가 한손을 책 내젓고 문밖으로 반달음쳐나갔다.

이윽고 다시 나타난 원장선생의 얼굴에는 승엄하고 경건한 감동의 빛이 한껏 어려있었다. 그는 내 손을 와락 잡고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걸어오신 전화내용을 전해주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그 투사동지가 항일대전때에 3년간이나 민족배타주의자로부터 《민생단》 혐의자라는 감투를 쓰고 뼈아픈 심적고충을 겪던 나날에 심장탈이 생겼다, 저돌적인 흥분상태에 빠지면 영악없이 심장발작을 일으킨다, 그런데 심장 쇼크까지 왔던 불편한 몸으로 먼 산골군에 출장 떠났다니 마음 놓이지 않는다고 못내 걱정이 크시였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히 대책을 취하겠다고 말씀 올렸소. 장군님께서는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아니, 꼭 그렇게 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현선생, 이제 선생네 과장선생이 출근하면 곧장 나한테 보내주시오.》

그순간 나는 속에서 다잡을수 없는 반감이 불끈 치밀었다. 자신이 무시당하는것 같아 몹시 분했다. 그리고 이 일에서 자신이 둘러나면 한위 후회감으로 가슴이 아플것 같았다.

조급한 마음에 문지방을 넘어서는 원장선생의 팔을 짹 잡았다. 저쪽의 의아쩍어하는 시선을 끝추 쳐다볼 용기는 없었다. 그러면서도 공연히 발끈해서 부르짖었다.

《제가 말았던 환자니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지요.》

원장선생은 내 손을 으스러지게 짹 잡았다.

《환자를 지켜 밤샘하느라고 눈에 피발까지 켜는데...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니 고맙소. 아무튼 빨리 서둘러주시오.》

그리하여 나는 귀에선 장천군이라는 산골군을 찾아 떠나게 되었다.

협궤차를 타고 어느 산간의 간이역에 내려서는 다시 30여리 산골길을 걸어갔다. 초행길이어서 걸음걸음 물어가며 힘들게 갔었다. ...

결국 나는 40여년전부터 림부주석의 심장병때문에 별난 《추격》걸음을 한셈이다. 그것이 그 어떤 움직일수 없는 전조로 되어 지금껏 드문하게 맹랑한 《추격》걸음을 하는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하나 오늘은 어렵도 없다. 류정군의 법무생활에 대한 문제토의에 림부주석이 꼭 참가해야 한다는 법이 없다. 그건 법무부의 해당 부서가 하는 일이 아닌가.

이제 만나면 림부주석은 늘 그랬듯이 별구실을 다 붙여대며 이 주치의를 녹여내려고 할것이 뻔하다. 하나 이 《고추》가 오늘은 주치의로서의 특권을 행사해서라도 기어이 림부주석의 출장걸음을 되돌려세워 입원시키교야말것이다.



어찌하나 림부주석의 차를 따라잡아달라는 내 제촉을 운전사도 고맙게 리해해주었다. 하긴 그도 림부주석의 건강이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가를 모르지 않을것이다. 어찌면 그도 림부주석더러 제발 출장걸음을 그만두고 입원해달라고 애바르게 권고 했을지도 모른다.

자동차는 몹시 들춰대며 산골짜기의 하얀 길로 속도를 높여 달렸다. 열어놓은 차창으로 비내린 뒤의 습한 공기에서 진한 송진내를 뭉클뭉클 풍겼다.

《류성군 4km, 장천군 10km》라고 쓴 리정표가 박혀있는 갈림길어방에서 우리는 다행스레도 림부주석의 승용차를 따라잡았다. 나는 숨이 나갔다.

장천군방향으로 제방석축용막돌을 무겁게 실은 화물차가 몇대 서있었다. 맨 선두차의 한쪽바퀴는 온통 진창투성이였다. 금방 도랑창에 빠진걸 건져낸것 같았다.

림부주석의 바지가랭이에도 흙탕이 점점이 튀겨있었다. 화물차를 진창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돕느라고 지체했을것이다.

《그럼 어서 떠나들보라구 . 거기서들 눈이 까매기다릴텐데 ... 》

림부주석은 모자를 벗고 꾸벅꾸벅 인사를 하는 운전사들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었다.

《가면 최현호국장에게 이르게. 이제 우리가 류성군에 들렀다가 그리로 간다고말이요.》

(뭐 장천군에까지?!...)

나는 허거픈 웃음이 절로 나왔다.

당장 되돌려 입원시킬 생각인데 얼마나 한심한가. 처음부터 탕개를 늦추지 말고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하겠다.

화물차들이 산모퉁이로 사라지자 림부주석은 병색이 확연히 알리는 부석부석한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나를 띄어보았다.

《오늘은 좋은 가을날인데 현박사는 신색이 좋지 않다... 어찌 그리 시퍼래서 독을 쓰는가?》

그는 벌써 뻥뻥해서 잡도리를 만만찮게 한 내 속을 넘겨짚고서 주의를 집중한듯싶은 그 총명한 시선속에 나를 끌어들이려고 애썼다. 나는 우정 그 시선을 피했다. 자칫하다간 생각지도 않게 림부주석한테 어처구니없이 주물리울수 있는것이다.

《부주석동지, 오늘 병원에 입원하기로 하셨는데 이렇게...》

《됐소, 됐소. 어서 타라구.》

그는 통명스레 나오는 내 말허리를 문질러버리며 한사코 자신의 승용차 뒤좌석에 밀어넣었다.

《임잔 한생토록 날 따라다니며 성화로군.》

자신도 내옆에 육중한 몸을 실으며 림부주석은 이마살을 찡그리었다.

《전들 부주석동지를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억울하다 할만치 분한 마음에 휩싸여있던차라 나도 맛받아 나가는데로 불만을 터뜨렸다.

《그건 또 무슨 소리나?》

《제가 안따라다니다는건 부주석 동지가 건강하시다는걸 의미하니깐요.》

《그참 현박사가 지금까지 하던 말중에서 기증 귀맛당기는 소리다. 결작이야.》

림부주석은 큰 손바닥으로 내 어깨를 탁 치며 꺾꺾 웃었다.

나는 아무 대책도 하지 않았다. 그냥 뻥뻥해서 림부주석의 손을 잡아 맥박을 재어보았다.

《괜한 일이야. 아까 가슴이 너무 결리더라니 나 혼자 재보았어. 별나게도 부정맥이 심한것 같아.》

림부주석은 무거운 한숨을 내불었다.

《별난건 아무것도 없습시다. 부주석동지, 맥박이 이 정도인데... 류정군에 가서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게다가 장천군에까지 가시겠다니 원.》

《아니야 이 사람, 장천군에도 가야 해.》

림부주석은 머리를 저었다.

《최현호 그사람네가 장한 일을 해놓은게 보구파서 그래. 두루 알아보니 50리 떨어진곳에 채석장도 꾸리고 그걸 나를 다리도 새로 놓고... 그래서 호천강제방을 번듯하게 다 복구해놓았다는만.》

이자 그 운전사들이 그러는데 이번 늦장마가 작년보다 더했는데도 제방이 끄떡없었다. 수제를 여러개 든든히 설치해놓아 여차하면 잃어버렸던 4-5정보의 땅이 도루 생겨날지도 모른다는게야. 그랬으면 작히나 좋겠나. 지금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니깐 이제 알쫓아 있었지.》

그리고는 팔목시계를 들여다보고나서 운전사의 어깨를 꼭 짚었다.

《좀더 밝으라구. 시간이 많이 갔구만.》

이건 말하자면 아무리 코가 세여도 이제는 충분히 리해되었을것이니 의사따위는 접어놓고본다는 태도였다.

《안됩니다. 어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 순간에 나는 조금도 흔들림없이 이렇게 딱 잡아떼야 할것이였다. 설사 림부주석이 푼수없다고 노발대발하더라도 지어 강박하러들어도 무작정 차를 평양으로 돌려세워야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백번 통절하게 후회되지만 그때는 그 무엇인가 따뜻하게 느껴오는 림부주석의 인정이 주치의로서의 강한 요구를 감동의 사슬로 엮어매 놓았다.

중앙인민위원회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년전 이맘때 엄한 처벌을 준 한 인간의 성장을 두고 그리도 기뻐하는 림부주석의 인간적진실(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에 나는 그냥 뻥뻥할수 없었다. 나도 기계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던것이다.

오늘 뜻밖에 떠난 림부주석의 출장걸음이 단순히 류정군의 준법정형료해때문만이 아닌것이 확실했다. 보다는 장천군 상중리의 호천강제반공사 진행정형을 보고싶어서였는지도 모른다.

내가 오늘 언제인가싶게 뽕뽕한 태도를 가뭇없이 털어버리고 림부주석의 출장걸음에 감동까지 하게 된다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

작년여름 장마철에 나는 림부주석을 따라 보름나마 산간지대군들을 돌아다니었다.

줄곧 비가 내리고 고산지대의 기압변동이 심해서 림부주석의 심장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 언제 일이 날지 모르는 위기일발의 사태를 예감하기에 지친 나는 시끄러울 정도로 이제는 그만 평양으로 돌아가자고 재촉했다.

때마다 림부주석은 우리가 간다고 해놓고 안가면 도리가 되냐면서 나를 꼼짝 못하게 주물러놓곤 했다. 이런 식으로 《한군데만 더》 한것이 이제는 여러 군들중 류정군과 장천군만 남았었다.

나는 언제 《시한탄》이 터질지 모르는 아짜아짜 한 심정으로 순간순간 속이 한줄만해서 지냈다. 정말 살이 폭폭 내리는것 같았다.

류정군으로 가던 도중 산골짜기에서 고산지대의 기압변동때문인지 그에 림부주석이 심장발작증을 일으켰다.

응급대책으로 바쁜 모퉁이를 넘겼을 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류정군이나 돌려보시구 그다음은 더 안됩니다.》

아무 응대없이 비가 창살같이 쏟아지는 차창밖만 지켜보던 림부주석이 부지중 가볍게 탄성을 올리었다.

《저것 보라우. 이 깊은 산중에도 저 구호가 있구만.》

그의 열기에 차서 번쩍이는 시선은 젖빛안개를 발치에 휘감은 높은 산등성이에 한글자씩 큼직큼직하게 세워놓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가리키고있었다.

《저 구호에는 우리 첫 세대들에 대한 영명하신 **김정일**동지의 분에 넘치는 크나큰 믿음이 뜨겁게 넘치고있네. 우리 첫 세대들이 인생의 마감까지 열렬한 애국충신으로 나라의 거울이 되어야 함을 자각케 하는 귀중한 좌표지.

그런데 이사람이 그래 지금 티없이 맑은 거울구실을 하고있는가? 부끄러워지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세우신 우리 주체위업의 력사적집이 송두리채 **김정일**동지께 실리었는데 그 한귀퉁이라도 덜어드리지 못하고 벌써 늙고 병들었으니...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서 키워나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보살피심속에 이제는 좀 일할 미련이 트이는가싶은데 어느새 인생의 저물녘에 이르렀거던. 어찌하나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대로 일을

잘해야겠는데... 날은 자꾸 가지 힘은 점점 더 딸리지 정말 몸부림이 나게 안타깝네.》

림부주석은 시름겨운 한숨을 내뿜며 앞의자등받이를 주먹으로 탕탕 두드리었다.

그 한순간에 나는 림부주석이 70고령의 늙고 병든 지금에 와서 더더욱 사업의욕이 왕성해지는가답이 죄다 병백히 깨도되는것 같았다. 겸임한 당과 국가의 여러가지 중책들을 수행하느라고 로심초사의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는 어쩔수 없이 심장병에 지쳐 신고하는 림부주석, 견인불발의 의지력으로 위중한 심병을 이겨내며 하나라도 더하지 못해 애를 태우면서도 늘 하는 일이 성차지 않아 불만스러워하는 림부주석이다. 그런데도 갈수록 더 심해가는 그의 심장질환을 완치하는 기적을 행여 바랄뿐 지금껏 현실적가능성을 못찾은 자신이 과연 무슨 려치로 심장의학 교수에 박사란 말이나 하는 말 못할 괴로움으로 나는 가슴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날 류정군 읍에 당도할무렵에야 림부주석의 심장발작증이 멎었다. 천행이었다.

비가 여전히 억수로 쏟아부었으나 림부주석이 도착하자 곧 군의 법무생활료해가 진행되었다. 중앙인민위원회 법무부 해당 부서와 도 그리고 군 일군들이 림부주석과 동행하였다.

시작은 매우 순조로웠다. 산림조성이 아직 불충분한것이 지적되었을뿐 거의 모든 부문에서 자못 낙관적이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세개 리의 화전들이 중뿔나게도 림부주석의 《토지옥편》에 걸려들었다. 말하자면 《토지옥편》에 등록되어있는 화전들이 폐경되어있었던것이다. 새로 임명한 어느 리의 젊은 관리위원장은 그런 화전이 있었다는것조차 모르는 한심한 형편이었다.

《토지옥편》말이 났으니말이지 림부주석은 천하지대본인 땅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데서 애국심의 금새가 속속들이 표현된다면서 《토지법》준수정형은 자신이 직접 말아보았다.

후에 안 일이지만 《토지옥편》은 림부주석이 토지감독국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품을 들여 만든것이였다. 거기에는 광복직후, 조국해방전쟁시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논과 밭들이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있다. 지어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느 리의 어느 논밭에 폭탄이 몇개 투하되었는가 하는것까지 등록되어있다.

은 나라의 크고작은 군들을 편답하는 나날에 한시도 림부주석의 품에서 떨어져본적이 없는 그 《토지옥편》은 수많은 숨은 애국자들을 찾아내었다. 그들의 성실한 애국적소행으로 하여 《토지옥편》에 등록되어있던 적지 않은 불모의 돌밭이 옥담으로 변했는가 하면 벌거벗었던 산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었고 바닥이 높아져 범람하던 강하천들

이 알뜰히 정리되어 적지 않은 새 땅이 생겨나기도 했다.

하지만 귀중한 토지를 무책임하게 폐경, 람용, 류실하거나 산림을 마구 판별하고 강하천을 잘 관리하지 않아 조국땅이 줄어 들고 불모양없이 만드는 현상들도 숨김없이 다 드러났다. 그럴 때면 림부주석은 너무나 분개해서 여불없이 심장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졌다.

여기 류정군에서도 폐외로 될수 없었다. 림부주석은 산림조성이 불충분한 현상까지 꺼들어가며 어제날 화전민들이 피눈물을 뿌리며 일궈놓은 땅을 이제는 배가 부르다고 켄버리는 군일꾼들모두를 눈뿌리가 빠지게 닥달질했다.

기분을 잡친탓으로 가뜩이나 씨원찮던 림부주석의 심장이 다시 발작증을 일으킨것은 두말할게 없다. 에까끼를 대여보니 예민한 눈금이 당장 일이 날 위중한 상태를 가리켰다.

나는 운전사더러 가능한한 최대속도를 놓아 평양으로 달려줄것을 부탁했다.

《아니.》

림부주석은 손을 내저었다.

《그냥 장천군으로 가자우.》

《안됩니다.》

나는 펄쩍 뛰었다.

《일없소. 건넌만해. 캄파나 한대 와달라구.》

그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한팔을 부들부들 걸어 올리기가까지 했다.

《우리가 간다고 해놓고 안가면 되나. 군에서 기다릴텐데 인사불성이지. 도에서도 나올게구...》

《정말 종전에 류정군을 떠나기 직전에 도국토관리국 국장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운전사결에 앉아있던 서기가 시커먼 두눈을 반짝 빛내며 얼굴을 돌리었다.

《현호국장한테서말이지, 왜 ?》

림부주석은 전에없이 어조가 성급했다.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부주석동지가 장천군에 오시는가고 물었습니다. 아마 발이 재린게지요.》

《발이 재리다니, 그건 무슨 소린가?!》

《...》

언제나 단정하고 침착한 서기는 얼굴이 벌개서 헛기침만 하다가 분개한 어조로 내쳐 그 까닭을 토설했다.

법무부에서 얼마전에 장천군에 대한 료해를 하었는데 상중리에 있는 호천강제방이 말썽이었다. 상중리의 호천강은 청천강지류로서 워낙 큰 강이기에 도에서 제방의 중심강토는 물론 석축도 다시 쌓아야 하고 아우강의 급류를 다스릴 수제도 여러 개 든든히 설치해줘야 했다.

그런데 도국토관리국장이 미처 손이 돌아가지 않으니 후에 보자, 설사 터져나가더라도 척박한 땅이 좀 없어지겠는데 그건 새발에 피다 하면서

자꾸 도강하천건설사업소의 제방건설계획에서 빼버리었다. 그러다나니 해마다 상중리가 장마위협을 받게 되어서 군적으로 큰 골치거리로 되고있다.

《결국 한 일군의 그릇된 사업으로 웅군 한개군이 골탕먹고있는셈입니다.》

서기는 진정으로 분개했다.

《현호 그 사람 통도 크고 제깎손도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동무말이 사실이라면 그것 참 문제다. 결코 그태서는 안될 사람인데... 정말 현박사도 알겠구만.》

림부주석은 문득 어깨로 내 팔을 가볍게 밀치었다.

《옛날 상중리에서 만났던 광영태령감이 생각나나?... 그령감 인젠 90을 바라보는데 여전히 땡땡해 서 고문산림보호원을 한다던지... 그령감과 함께 있던 쪼꼬만 코흘리개가 바로 지금 애기되고있는 도국토관리국장 최현호야.》

《생각납니다. 옛그제일같이 생생합니다.》

나는 환성이라도 올리듯 부르짖었다.

《그래 그래, 그런데 실상은 어처구니가 없게 40년도 넘는 아득한 옛날 일이야. 임자도 그후엔 다시 못가보았겠지 ? ... 그러나 임자도 감회깊을게야.》

림부주석은 더 말없이 차창너머로 묵묵히 비를 맞고있는 푸른 산밭들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잊을수 없는 먼 어제날의 추억속에 잠겨진것 같았다.

나는 그 순간에 향수에 가까운 야릇한 정서에 휩싸여버렸다. 척박하기 이룰데 없는 손바닥만한 패기밭들, 산락 여기저기에 떠엄떠엄 웅크리고있던 천정낮은 동기와집들... 지금에 와서 그고장이 어떻게 변모되었을가 하는 은근한 미련으로 나는 몹시도 가슴이 설레었다.

이렇게 또 나는 어떻게 없이 자연스럽게 림부주석에게 《주물리운》셈이다. 물론 나로서는 림부주석이 40여년만에 다시 찾아가는 류다른 감회로 하여 류성군에서 잡친 기분을 개운하게 가시리라는 타산이 없는것도 아니다.

차는 어느새 《장천군 4km》라고 쓴 이정표를 지나가고있었다. 나는 주치의로서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그지없이 강렬한 충동속에 아득히 멀어져버린 그날에로 깊이 빠져들었다.

...광복직후 그 겨울날에 별나게도 심장발작을 일으켰던 투사동지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게 된 나는 장천군이라는 산간군을 찾아가고있었다.

초행걸음에 눈이 많이 내려서 몹시 멀고 지겨웠던것으로 기억된다.

혈금씨금 어느 산모퉁이의 갈림길에 들어서는데 뜻밖에도 깎아지른듯한 벼랑턱 그늘속에서 그 건장한 체구의 투사동지가 불쑥 빠져나왔다. 나는 눈을 비비었다. 목적하고 찾아오는 사람을 너무도 수나롭게 만나게 되니 얻어진 행운이 꿈처럼 잘

믿어지지 않았다. 저쪽도 역시 의아해져서 두눈만 깜빡이었다.

나는 무등 반가와서 마주 달려가 그의 목직한 두손에 매달렸다. 그리고는 숨이 차서 헐떡이면서도 흥에 겨워 투사동지를 찾아오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다.

《우리 장군님께서요?!...》

투사동지는 왈각 터지는 흐느낌으로 하여 더 말을 못잇고 돌아서서는 억센 두어깨를 물결치듯 세차게 떨었다.

그순간 나도 한 전사의 건강을 넘려하시여 의사까지 파견해주신 **김일성**장군님의 지극한 어버이사랑이 새삼스럽게 가슴속에 밀물처럼 짙게 차들어 두 눈곱이 쿡 쭈서났던것이다.

한동안이 지나서 투사동지는 별절게 짓물린 두눈을 손등으로 씻고나서 내 팔굽을 꼭 짚었다.

《그래서... 그래서 선생이 왔구만. 지금 상중리로 가던 길이요. 저기가 내 무릎에서 숨을 거둔 전우의 고향이어서...》

우리는 상중리라는 산골마을로 함께 갔다.

어느샌가싶게 우리는 서먹서먹한 관계를 잃어버렸다. 서로 허물없이 나이짚도 해보았다. 그는 나보다 네살이나 우연 서른한살이었다. 그래도 그는 아직 총각이었다.

그는 말했다.

《최일이. 그는 늘 이방땅에 태를 묻은 내앞에서 제 고향 자랑이었소. 조국을 광복하면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자기네 고향에 꼭 함께 가보자고... 자기는 두팔이 휘도록 제 고향땅에서 실컷 농사를 지어보는것이 소원이라고... 그랬던 그는 오지 못하고 이جت만...》

그는 흐느낌으로 뒤말을 사무리고 몸을 뒤쳐 주먹만한 주머니를 꺼내었다.

《이건 최일이 간직했던 고향땅이요. 고향을 안고 산 그의 넋이라고 할지...》

상중리는 강천군의 막바지산골이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첩첩한 산인데 깊은 골짜기를 꿰지르고 꽤 넓은 호천강과 아우강이 우중충한 산 그림자속에서 시퍼렇게 흐르고있었다. 그 두강의 합수목에 척박하기 이룰데 없는 빼기밭들이 줄곧

줄곧 널리어있다. 산귀통이에 의지하여 불성모양의 동기와집들이 여기저기 웅크리고있었다.

《계십니까?》

투사동지가 한집 문앞에 다가가 조용히 찾았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크게 불려도 손등으로 부엌문을 두드려도 감감 대답이 없었다. 섭섭한 소외감이 들어 나는 속이 불끈거리기까지 했다.

얼마후에야 우리는 그 집이 텅 빈 집임을 알수 있었다. 가마를 들어낸 한산한 부엌, 흙붕당의 구들, 머리를 쳐들수 없게 낮은 천정... 다른 몇집을

가보아도 모두 매한가지였다. 참 별일이였다. 도무지 영문을 알수 없었다.

그때 산등성이의 관목숲이 와솔랑거리더니 산양이나 발붙일 깎아지른듯한 산턱길로 내려오던 구레나룻의 장정이 어리둥절해서 내려다보았다.

《뉘들이신지요?》

어깨에 쌍대배기사냥총을 거느적이 멘 거쿨진 몸집에 어울리게 묻는 어조도 시원하게 탁 터졌다.

그의 옆에는 코를 쿨적거리는 더벅머리총각애가 두눈이 울롱해서 꼭 다가붙어있었다. 그애의 앙증한 손에서는 재빛산토끼 한마리가 대롱거리었다.

《혹시 최일이라고 생각나시는지요?》

투사동지가 묻자 구레나룻장정은 곧장 벼랑턱길로 먼지를 일구며 덩굴듯 미끄러져내렸다. 그래서 투사동지의 앞까지 바싹 다가와 우뚝 멈춰서서 머리를 가로 저었다.

《난 **김일성**장군님 휘하의 장수로 된 우리 마을의 최일이 그 사람이 온줄 알았수다... 우린 이제나 저제나 하고 그가 오기만을 기다린다우. 이애가 그 사람의 조카애지요.》

그러자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개처럼 확 번지였다.

《네가... 네가 최일의 조카란 말이지!》

투사동지는 장대한 몸으로 쪼꼬만 총각애를 던지듯 와락 다그어안았다.

어찌나 세팔게 그러안는지 넓은 품안에서 총각애가 울가망이 되어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너래도 찾았으니 됐다. 혈육들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너때문에 최일이 늘 걱정이 컸더랬는데... 동북지방 어디에서 헤맬줄 알았던 네가 여기에 와있을줄은 몰랐구나. 내가 네 삼촌을 대신해서 왔다.》

투사동지는 총각애의 붙이며 손이며를 두루 쓸어보다가는 애가 소리를 지르는데는 무관계로 다시다시 으스스리게 다그어안았다.

토방에 걸터앉은 구레나룻장정이 담배쌈지를 꺼내어 손가락같이 굵직한 마라초를 말아 피워물었다.

《유격대를 원호한것이 죄가 되어 하루한시에... 왜놈들의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이에 부모들이 당부하더라오... 현호야, 고향에 찾아가라, 그래야 산다, 네 삼촌이 왜놈들을 죽치고 꼭 고향에 찾아올게다... 그 당부를 명심하고 이 어린게 독하기로 한겨울에 두발을 뽕뽕 얼구면서 해방되기 전 해에야 여기로 찾아오지 않았겠소... 어서 담배나 마시우.》

총각애를 꼭 껴안은 투사동지는 소리없이 웃으며 머리를 저었다.

《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마을의 집들이 모두 텅 비었습니까?》



장정은 구레나룻수염새로 독한 담배연기가 한숨과 더불어 저물어오는 허공에 후 내뿔었다.

《해방이 되었는데 이런 척박한 땅에서 그냥 죽물만 먹겠느냐, 해방덕에 우리도 좋은 땅에 나가 흰쌀밥을 먹어보자며 모두들 떠나갔지요. 나야 워낙 불질로 산짐승이나 잡아 살아오느터이고 또 이 현호의 삼촌도 기다릴겸해서 이렇게 그냥 눌러앉아있수다.》

《참 그러니 해방덕에 이 땅은 오히려 척박하다고 버림받았군요.》

투사동지는 어깨를 푹 떨구며 불같은 한숨을 토했다.

두메산골의 겨울은 빨리도 저물었다. 나무우듬지들사이에서 설린 저녁해빛이 번쩍거리는듯싶더니 어느새 땅거미가 깃을 폈다.

구레나룻장정은 귀한 손님들을 굶기겠다며 움에서 감자를 한합지 담아가지고 왔다. 내가 우겨서 감자껍질을 벗기고 주인은 잡아온 산토끼를 손질했다.

투사동지는 은은한 달빛을 받으며 총각애를 꺼안은채 땀기발가에 뿌리박은 너럭바위우에 그냥 걸터앉아있었다.

《아저씨, 왜 우나요? 어디 아프나요?》

총각애의 놀라움에 찬 쉿쉿한 부르짖음이 문득 어둠의 고요를 흔들었다.

《아프다, 몹시 아프다.》

투사동지의 말소리는 흐느낌에 삼키여 자꾸 동강났다.

《이 땅이 척박해도... 이 땅을 찾기 위해 네 삼촌은 피를 흘렸단다... 이 땅도 우리가 한가슴에 안아챘은 조국이란단다.》

나는 심장전문의사의 예감으로 투사동지가 몹시 흥분되었음을 간파했다. 저런 저돌적인 흥분은 심장을 되게 자극하는 법이다. 어쩌면 심장발작이 도지지 않겠나 하여 나는 잔뜩 긴장되었다.

문득 투사동지가 가슴을 쥐 여뜰는것 같았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네 삼촌이 늘 가슴에 간직하고 다니던 이 고향땅이 담긴 주머니다.》

나도 안도의 숨이 나갔다. 그러니 투사동지는 품속을 뒤져 전우의 흙주머니를 꺼낸것이였다.

《삼촌은 비록 못왔지만 그의 뉘은 이렇게 왔다... 삼촌의 뉘이 깃든 이 흙을 네가 이 땅에 뿌려라... 그래 그래, 장하다... 장차 네가 자라서 주인이 되여 이 땅을 잘 걸구어라... 고향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다 모여들게말이지.》

《아저씨, 그런데 왜 자꾸 우나요? 아프면 저기 의사선생한테 ...》

《됐다. 의사선생도 이 아픔만은 못고친다.》

세차게 물결치는 투사동지의 어깨가 달빛속에 윤택하게 띄었다.

《애야, 정말 분하구나.... 어쩌면 그럴수 있니... 해방덕에 잘살아보겠다구 모두들 이 땅을 버리고 가면 누가... 과연 누가 이 척박한 땅을 걸군단 말이나... 네 삼촌이 살아왔다면 몰라도...정말 네 삼촌이 이 사실을 알면 눈을 감을것 같지 않구나.》

나는 다시 간이 콩알만해졌다. 원한과 분노에 사무친 투사동지의 심장이 당장 일을 칠것 같았다.

《에익, 해방덕에 환장한것때문에...》

산토끼를 손질하던 구레나룻장정이 갑자기 부엌바닥에 식칼을 활 던져버리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투사동지앞에 이르러서는 두무릎을 꿇고 격정에 차서 부르짖었다.

《용서해주시우다. 유격대어른, 우리가 하도 째지게 못살다나니 모두들 해방이 되었다구 미쳐버렸지요. 마음놓으시우. 내 이제 유격대어른을 울린 그녀석들을 모두 뒤덜미를 잡아 끌어오겠수다. 제 배꼽물은 고향땅을 버리고 어디들 가냐구 소라기를 지르긴 했지만 그냥 붙들어두지 못한 이놈의 잘못도 크우다.》

구레나룻장정도 투사동지의 품에 엎어지듯 안기며 엉엉 소리내여 울었다.

그 이튿날에 우리는 장천군 읍에 내려왔다. 투사동지는 토지개혁준비사업으로 한순간도 짬없이 돌아쳤다.

저녁에는 농촌위원회방에 들었다. 밤이 이슬하자 카바이드등불이 켜지고 한사람 두사람 떠나갔다. 방안에는 세사람만 남았다. 앉은책상을 마주한 농촌위원회 위원장과 투사동지는 문건대조에 여념없었고 나는 방벽에 기대여 심장의학원서를 읽었다.

밖에서 누군가 성급히 방문을 두드리었다.

《누구요?》

몸이 갹빻한 농촌위원회 위원장이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방문을 열어주자 상중리에서 만났던 그 구레나룻장정이 털모자를 벗어들었다.

《유격대어른,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왔수다.》

무슨 짐승토시를 낀 그의 한손이 마당을 가리켰다. 그의 손에 물어난듯 달의 후광이 희뵈히 비친 산말랭이를 등지고 꺼꺼부정하니들 서있는 사람들이 띄었다.

《좋은 땅에 나가 흰쌀밥을 먹어보겠다고 통 미쳐버렸던 시라소니들이지요.》

《그래요!》

투사동지는 맨발바람으로 마당에 달려나갔다.

그러자 방문앞에 모여섰던 농민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면서 한마디씩 어쭈게 뇌었다. 《잘못이 크우다.》, 《종아리를 쳐주시우.》, 《최일이 그 사람이 피흘려 찾은 땅을 버릴번했으니 천벌받을 큰죄를 지었소이다.》...



투사동지는 무릎이나 바지혼술에 긴장해서 맞잡아온 농민들의 손을 나꾸어채듯 잡아 흔들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 이렇게 다시 와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레나룻장정이 한결을 나서며 투사동지의 팔을 잡았다.

《이 사람들이 우리 최일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온 유격대어른을 제 마을에 모셨으면 하우다. 일이 신통히 될 때라 내 용노에 오늘 중소만한 메돼지가 걸려들었습니다. 제발 다시 가주시우. 유격대어른을 울리고 그냥 보내면 한뼉 우리네 마음이 편하지 못할가봐 그러우다.》

투사동지는 선선히 응해나섰다.

주눅이 들어 찢찢 매던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왁자지껄하면서 투사동지를 에워싸고 상중리에 다달을 때는 자정이 가까웠다. 그래도 마을은 잠들 줄 모르고 명절날처럼 법석이였다. 어느 집에서나 새벽까지 고콜불이 꺼질줄을 몰랐다.

나는 그날 난생 처음으로 메돼지고기를 실컷 먹어보았다. 록두지집에 순두부, 말려두었던 산채 볶음도 무득무득하고 텁텁한 탁배기도 동이채로 들어왔다.

지금에 와서야 림부주석이 담배를 안피우고 술은 《주》자만 들어도 취해버린다는것을 잘 알지만 그때에는 그 우람찬 체격에 세병의 술이 들어가도 끄떡없을것으로 짐작했었다. 그도 그럴것이 이상하게도 그날 림부주석이 두사발의 탁배기를 안주도 없이 수나롭게 비웠던것이다.

어느 기회에 내가 탁배기 두사발을 쉽게 마시던 이야기를 상기시키자 림부주석은 두손을 뻗내저었다.

《들큰해서 멋모르고 마셨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잃은줄 알았던 전우의 고향사람들을 다시 찾은 기쁨에서였던지 별로 취하지는 않더구만.》

그래서 내가 배를 그러안고 웃었다.

《취하지 않으셨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그날 부주석동지가 어찌나 취하셨던지 춤을 춘다는게 자꾸 훌쩍훌쩍 뛰어들어서 그 광영태령감내 천정을 온통 마마자국으로 만들지 않았던가요.》

하자 림부주석이 하는 말이 걸작이였다.

《그랬던가, 아무튼 너무 기뻐서 훌쩍훌쩍 뛰었겠지. 술에 취한놈 거꾸러지기마련인데 그 탁배기가 분명 무슨 조화를 부렸던게로구만.》

...

나를 엮어매었던 명상의 사슬은 부지중 여지없이 끊어져나갔다. 장천군 읍에 당도한것이다.

그런데 40여년만에 찾아오는 장천군은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다. 군당을 비롯한 군급 기관들이 전부 접수실 경비만 남기고 텅 비어있었다. 하늘에 평 구멍이나 뚫렸는지 그냥 한본새

로 들이퍼붓는 장마비에 상중리의 호천강제방이 위태로와져서 그리로 모두 떨쳐나갔다는것이였다.

《유감스럽게도 서기동무가 하던 말이 틀리지 않는것 같구만. 빨리 상중리로 가지요.》

림부주석은 언짢은 기색으로 어성을 더러 높였다.

내 생각에는 차가 들썩거리며 너무 속도를 낸것만 같은데도 림부주석은 왜 이리 더딘가, 더 밟으라고 전에없이 운전사를 조급하게 다몰아대었다.

장천군에서의 림부주석의 기본전환을 믿었던 나의 기대는 첫걸음부터 씨원치 못했다.

상중리의 호천강변에는 사람들이 하얗게 덮였다. 림부주석이 차에서 내리자 군의 책임일군들이 달려와 마중했다.

《호천강이 어쩡다는지요?》

림부주석은 제잡당 군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라고 인사하는 사람에게 따지고들었다.

《마주 흘러드는 아우강이 불어나면서 호천강의 제방을 물어뜯었습니다. 워낙 급류여서 대책을 세우느라고 했지만 견디여내지 못하고...》

《터져나갔다... 그게 다요?》

《저...》

림부주석의 두눈에서 번뜩인 분노의 섬광에기가 질리였던지 상임부위원장은 고개를 떨구고 헛기침질했다.

그때 사람들속에서 머리 하나가 더 .크고 몸이 장대한 장정이 림부주석에게 다가와 꾸먹 인사했다.

《음, 현호국장도 왔구만.》

(...?!)

나는 깜짝 놀랐다. 40여년전에 코를 쿠척거리던 쪼꼬만 총각애가 저렇게도 몰라보게 성장했다는게 믿어지지 않았다. 세월의 조화란 참 신비하기 그 지없었다.

《내가 알기에는 이 호천장도 그래 저 아우강도 그래 다 국가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강으로 아는데, 웬소?》

림부주석의 안색은 근엄해지고 어조는 흥분으로 해서 떨리였다.

《4령입니다.》

《그런데 터져나갔으니 어찌된 일지요?》

《제가 미처 관심하지 못했습니다. 웬자면 호천강제방을 석축하고 아우강의 물살을 막는 수제를 여러개 설치해야 하는건데... 그랬으면 땅이 흘러가는 일도 없었을것입니다.》

《영, 똥단지같이 땅이 틀러갔다는건 무슨 소린가?》

림부주석의 두눈이 당장 불을 튀길듯 번쩍했다.

《네, 너무 엄청난 일이여서 아까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워낙 아우강이 급류여서...》

《됐소, 그건 이미 들어서 아오. 그래 얼마나 떼웠소?》

림부주석은 이마살을 찡그리며 상임부위원장을 쫓았다.

군일군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갑자르는데 비를 맞아 엉망이 된 모자를 비틀어짜던 최현호국장이 혼연 히 말했다.

《4~5정보가랑 나갔습니다. 다행히도 별로 시원찮은 땅입니다. 물론 미리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사실 여기에 돌릴 건설력량까지 모두 청천강하류의 제방을 보강하는데 돌렸기에... 솔직히 말해서 폐경이나 시킬 척박한 땅 4~5 정보를 떼운 대신에 비옥한 간석지논밭 2만 5천정보를 살렸지요.》

《설마 그러라 했더니 사실이였구만.》

혼자소리로 탄식하며 뇌이는 림부주석의 말 뜻을 제 나름으로 이해한 최현호국장이 다시 제가 한 말에 그루를 박았다.

《네, 자칫하다간 기름진 2만 5천정보가 녹을번 했습니다.》

《그것때문에 여기 상중리땅 4~5정보를 잃은게 그렇게도 장한가?... 언제부터 동무한테 좋은 땅, 나쁜 땅을 가르는 고약한 버릇이 붙었소? 이 땅 한치한치가 삼촌의 귀중한 피로 얼룩진 귀중한 땅인줄 모르는가? 헛, 동무한테서 내 최일의 모습을 찾아보리라고 기대한게 어리석었소.》

림부주석은 흠칠 몸을 떨더니 한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으며 비칠거리었다.

《피로 찾은 4~5정보를 별찮게 여기는... 그런 머리통을 가지고서는... 이제 4~5정보가 아니라... 2만 5천정보를 잃어버리고도 동무는... 눈섭 한오리 까딱 안할거야... 나라에서 삼촌의 넋을 지니라고 품을 들여 금지옥엽으로 키웠더니... 뭐 좋은 땅, 나쁜 땅... 흥.》

림부주석은 최현호국장을 지름해보던 자세로 굳어지며 그만 의식을 잃었다.

모재비로 쓰러지는 그를 다행스럽게도 최현호국장이 언덕받이에 미끄러지며 온몸으로 부축하여 안았다. 한몸치가 된 두사람우에 누군가 커다란 우산을 펼쳐들었다.

내가 다급히 구급대책을 취했으나 림부주석은 쉽게 피어나지 못했다. 너무나도 분개한탓에 심장 발작을 심하게 일으킨것이였다.

모여든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비소리를 짓누르며 갑자기 《누가... 누가 유격대어른을 쓰러뜨렸어?》 하는 추상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길을 띄워주는 새로 백발의 구레나룻로인이 장골의 허우대 큰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여 채머리를 떨면서 다가왔다. 구레나룻수염으로 미루어 나는 그가 90나이를 눈바투 바라보는 팍영태로인임을 제격 짐작할수 있었다.

수복히 내리덮인 흰 장미밑에서 두눈이 마주 보기 두렵게 열기를 띠고 번뜩이였다.

《누구나, 썩 나서라!》

로인은 지팡이로 땅을 구르며 흐느낌소리와 같은 목멘 부르짖음을 터치였다.

이제는 심신이 쇠락하여 가버린 시절의 범같은 기상의 흔적이 오로지 그 목소리에만 남아있는듯 싶었다.

《할아버지, 고정하십시오. 저때문이였습니다. 제가 땅을 잃어버려서...》

《임자가?!...》

로인은 짚고있던 지팡이를 놓쳐버리고 최현호국장의 턱밑으로 바싹 다가들었다.

《내 임자 꼭 일치는 이런 날이 올줄 알았어. 온 마을이 달라붙어 한사람같이 애를 쓰는데... 저 호천강제방이 마음에 딱 걸려서... 참 이 늙은것만도 몇번이나 제기했나... 그런데도 임잔 언제부터 코대가 높아져서... 아래사람들의 말을 방귀만 치도 여기지 않았지... 삼촌의 피를 탄 임자가 어찌면... 어찌면 이 상중리를 그렇게도 천시할수 있나말일세. 영...》

로인은 두다리를 뭉쳐 잘리우기나 한듯 림부주석앞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팡팡 두드리며 비명에 가까운 장탄식을 토했다.

《어제는 해방덕에 잘살아보겠다며 모두들 이 상중리를 버려서... 유격대어른을 크게 울리고...

40여년만에 다시 찾아온 귀중한분을... 원참 아예 쓰러뜨리기까지 했으니... 과연 이 상중리에 사람이 사느냐?》

비소리를 짓누르며 터져나오는 그 애절하고 비통한 목소리는 피를 토하는듯싶었다.

그날 급기야 평양에 도착하여 제때에 구급대책이 취해졌기마정이지 큰일이 나는줄 알았다.

림부주석이 병을 털고 퇴원한 며칠후에 나는 검진차로 병원에 온 법무부장으로부터 최현호국장이 중앙인민위원회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불리어와 엄한 처벌을 받았다는것을 알았다.

최현호국장은 자기의 잘못을 숨김없이 현현하게 다 털어놓았다.

호천강제방건설공사는 크게 품을 들여야 할 대상이였다. 중심강토를 새로 한데 기초해서 짧지 않은 거리에 석축을 입혀야 했다. 게다가 아우강의 급류를 다스리는 수제도 뿌리깊이 여러개 설치해야 하였다.

이것은 결국 50여리 떨어진고장에 채석장을 새로 전개하고 그 석축용돌을 날라들일 다리도 건설해야 하니만치 도강하천건설사업의 웅근 건설력량을 들이밀어야 하는 가법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깊은 산골의 강이었다. 어찌다가 제방이 터져나간다고 해도 척박한 땅 몇정보가 잃어질것이였다. 그래서 큰것을 위해 작은것을 희생시킨다는 배심으로 청천강

하류제방공사에만 관심을 돌리었다. 호천강제방공사같은것은 후에 보자는 식으로 자꾸 뒤전으로 밀어버리다나니 오늘의 엄중한 사태가 빚어졌다.

법무일군들의 비판은 준절했다. 모두들 3개월 무보수로동처벌을 주는데 일치하게 동의한후 최현호국장에게 언권을 주었다.

줄창 학질이나 만난것처럼 머리를 깊이 떨구고 두어깨를 떨던 최현호국장이 땀과 눈물로 매닥질이 된 얼굴을 들었다.

《저에게 상중리의 그 호천강제방 건설을 맡겨 주십시오. 제 어찌하나 이 심장을 꿰이여 제방쪽 공사는 물론 잃은 땅을 다시 찾는것으로 자기가 저지른 죄를 씻겠습니다. 참다운 애국자로 된다는 것은 주체됨을지 몰라도 아무튼 이 성스러운 공화국을 받드는 깨끗한 공민으로 되기전에는 절대로 무보수로동처벌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10년이고 100년이고말입니다.》

목메여 부르짖는 그의 결의가 하도 절절하게 가슴을 두드려서 모임에 참가한 일군들이 모두 크게 감동되었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꼭 1년남짓이 되어오는 오늘이다 그동안 림부주석의 마음속에는 늘 최현호라는 존재가 크게 자리잡고있었을것이였다. 원칙과 어그러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크던 작던 절대로 용수부동인 직한 성미지만 인정이 력없이 무른 림부주석이 절친한 전우의 조카에게 엄한 처벌을 준 마음의 고충이 얼마나 컸으랴. 그것이 새삼스레 헤아려지는 지금에 와서 장천군에까지 기어이 가겠다는 림부주석의 결음을 한사코 막아나서기는 참으로 어려우리라는 생각에 나는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정말 나는 호미난방의 처지에 빠지고말았다.

나는 이런 식으로 왕왕 주치의로서의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림부주석의 마음에 어쩔수 없이 끌려들어버린다.

1년만에 다시 류정군 읍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다.

림부주석이 급작스레 가슴을 움켜잡았다. 심장이 조여드는것 같으며 얼굴을 찌프리었다.

《보십시오. 입원해서 절대안정해야 하는건데 괜히 고집을 세워 떠나셨지요.》

해당한 구급약을 투약하고나서 나는 어지간히 기분이 돌아선 림부주석에게 투정 비슷이 건네었다.

림부주석은 소리없이 웃었다.

《괜히 온건 아니야. 내가 퇴를 났으니 나와보는 게 옳은 처사지.》

류정군은 인상 좋게 우리를 맞았다.

며칠동안 내린 장마비 뒤끝이라 산골짜마다에서 여울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오고 눈에 안겨드는 모든것이 산뜻했다. 확실히 작년에 왔을적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한결 커지고 산천도 아름답게 바뀌었다.

나는 순간의 긴장도 늦추지 않고 파종한 심장 부담을 이겨나갈 림부주석의 결에 딱 붙어다니었

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림부주석은 품종별로 식수를 잘한 산밭이며 옥답으로 걸구어놓아 감자작황이 좋은 화전들이며 오랜 세월 높고있던 여울물에 세개씩이나 건설해놓은 중소형발전소들을 돌아보면서 점점 더 활기에 넘쳤다.

《바로 우리의 영명하신 김정일동지께서 기대하시는데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니 자연 군살림이 몰라보게 윤택해지고… 온 나라의 매군이 이렇게 커지는데 따라 우리 공화국의 룡성변영이 힘있게 담보되거던.》

림부주석이 군의 한 책임일군더러 손가락으로 위협하는 시늉을 하고 웃자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따라 흥겹게 웃었다.

이제는 장천군에 둘러보지며 차에 오른 림부주석이 또 아까 올 때처럼 가슴을 움켜쥐었다. 창백해진 얼굴에 식은땀이 내번지고 두터운 입술이 거뭇게 죽어들었다. 이건 매우 좋지 않은 징조였다.

《갑과던지 뭐나 좀… 오늘은 왜 이리도 심장이 자꾸 조여드는가… 별래, 눈앞이 가물가물하고… 이건 전혀 없던 일이었어.》

나는 서둘러 구급치료대책을 취했다. 하나 호전의 기운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심장경색이 또 말썽부리는것인지 모르겠다. 나는 몹시 당황했다.

한동안 땀을 푹땹 떨구며 가쁜숨을 몰아쉬던 림부주석이 조용히 머리를 흔들었다.

《아무래도 오늘은 현박사의 말대로 해야겠어. 장천군엔 후에 들리지. 자신없어. 류정군에서는 사람들이 자라고 땅과 재산이 늘어난것이 기뻐서 그만 아픔을 잊었었는데… 괜히 장천군에 갔다가 작

년처럼 덜컥 쓰러지거나 하면 또 그곳 사람들을 걱정시킬가봐 겁나는구만.》

림부주석은 것처럼 완강하게 장천군에 가야 한다면 고집을 자기스스로 포기했다. 이것은 내가 림부주석의 주치의로 지내는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결국 오늘 림부주석을 《추격》한 일이 이제야 순조롭게 해결된셈인데도 나는 왜서인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자신이 바라는대로 림부주석이 순순히 응해나서는것이 도리어 말 못할 불안을 몰아왔다. 드디어 림부주석도 어쩔수 없이 기력이 완전히 쇠진해버렸구나 하는 비통한 애수의 감정이 싸늘하게 가슴속을 저미는것이였다.

림부주석은 평양에 채 못이르러 맥박이 건잡을 새없이 푹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심장이 완전쇼크상태에 빠져버린것이 었다.

온 병원이 법석 끊었다. 여러 병원에서 이름있는 심장전문 의사들이 모여들었다. 의사들도 간호원들도 모두 조급해져서 반달음칠쳐다니였다. 간혹 성미급한 의사들은 공연히 화도 내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나무람게 여기지 않았다. 일각을 다투는 급한 순간이어서 그런것에 신경을 겨를이 없었던것이다.

부족되는 산소를 공급받고 점적기로 혈관에 고성능구급약을 주입받고있는 환자옆에서 때없이 긴급협力の가 열리었다. 그 협力の 결심여하에 따라 새라새로운 비상대책이 강구되었다.

최첨단의학기구들은 예민하게 림부주석의 심장이 매우 불우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가리키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저도 모르게 짓군하는 무거운 한숨과 절망어린 눈빛들은 사태의 준엄성에 대한 무언의 의사표시였다. 70고령의 장기협심증환자가 심장경색까지 겹치여 최악의 상태에 이른 지금에 와서까지 의학적예측을 무시하고 행여 다시 의식을 회복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기적도 있는가.

커다란 창문허리에 락조가 깃들무렵에 림부주석이 거짓말처럼 의식을 차렸으니말이다.

나는 너무도 기쁘고 반가와서 림부주석의 두손을 부여잡은채 흐느껴울었다.

허리를 일으켜 높은 베개에 기대인 림부주석은 맛은편의 벽시계를 쳐다보고 빙그레 웃었다.

《꽤나 오래 잠들었었군,》

그리고 침대머리에 서서 손수건으로 두눈곱을 찍는 서기를 손저어 찾았다.

《거 〈토지옥편〉과 원주필을 좀 주게나. 안경두.》

한참 책을 뒤적거리더니 류정군에서 새로 찾은 화전들을 기록해놓았다.

《좀전에 법무부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유평탄팡에서 침몰되였던 땅을 다 복구해놓았답니다.》

《그것 참 기쁜 일이구만. 그제 아마 백정보가 넘을게야.》

《150정보랍니다.》

《그것 보지. 나라가 또 커졌군. 사람들이 자랐어... 서기동무, 거 장천군 상중리 호천강재방공사장에 전화를 좀 대달라구.》

림부주석은 지금껏 사생의 기로에서 헤매던것 같지 않게 《토지옥편》을 뒤적거리며 지우기도 하고 새로 적어놓기도 했다.

그순간 나는 다잡을수 없는 커다란 감동에 휩싸였다. 그 어떤 귀중한 인생철리에 대한 새로운 깨우침으로 온 가슴이 쿵쿵거리는 심장으로 가득 차는듯싶었다.

지금까지 나는 림부주석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놀라웁게 의식을 회복할 때마다 단순히 생의 욕망이 비상히 강렬한것으로 여겨왔다. 지어는 천부적인 체력의 덕분으로도 생각해왔다.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생각해온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워진다. 인생의 마감순간까지도 한치의 땅이 더 불어난것을 두고 인간들이 커졌다고 저리도 기뻐하는 림부주석의 모습에서 나는 내 조국에 자신을 송두리채 바치고 내 나라를 송두리채 안고 몸 부림치는 한없이 열렬히고도 숭고한 애국충정의 넋을 뜨겁게 느끼었다.

정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으뜸가는 강성대국으로 확고히 이끌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룡성변영에 자신을 초불같이 깡그리 태워바치려는 넋의 몸부림으로 거치는 생리적심장을 억척같이 부활시켜온 림부주석이었다. 수령과 조국을 받드는 충신의 귀감인 애국의 불씨! 공화국의 영원한 정신적재부! 오늘의 우리들은 물론 먼먼 래일의 후세들도 혁명의 첫세대들이 꺼질줄 모르는 숭고한 넋의 몸부림으로 값높게 올려준 이 애국의 불씨, 이 정신적재부로 줄달음칠진대 우리 공화국은 후손만대로 변함없이 무궁변영할것이다....

《이 사람 현박사.》

《토지옥편》에서 눈길을 든 림부주석이 처음 보기라도 한것처럼 나를 찬찬히 건너다보았다.

《임자가 아침에 뒤했더라?... 그래 그래, 나를 쫓아다니는게 불만스럽다고 했던가?... 인젠 임잘 골탕먹이기도 단것 같아.》

후 한숨을 내불고 머리를 짓는 림부주석의 행동과 어조에서 나는 그 어떤 절망적이라 할만치 비통한것을 감촉했다.

《부주석동지, 그 무슨 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야, 내 병이 이제는 심상찮아.》

그는 두툼한 입술언저리에 어설픈 웃음을 지었다.

《이 심장이 너무 지쳤어. 더 빨리 다그쳐 살지 못하게 분하거던. 일을 잘해서 자랴를 안고 김정일동지께 보고올리려고 했는데...》

아직 첫걸음에 불과한데 벌써 쓰러져버렸으니 말일세.》

《...?!》

나는 아무 대책도 하지 못했다. 겁이 덜컥 났다. 자신의 심장이 이제는 더 어쩔수 없는 피치 못할 상태에 이르렀다는것을 림부주석이 예감하는듯싶었다. 그러자 말 못할 미묘하고 날카로운 애수가 내 가슴벽을 아프게 뻗 곱었다.

웅접실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리었다. 서두르며 방에 들어서는 서기의 가슴에는 선이 매달린 하얀 전화기가 안겨있었다.

《호천강공사장의 최현호국장이 나왔습니다.》

《나왔군그래. 이리 주게나.》

림부주석은 허리를 일으키며 송수화기를 끌어당기었다.

《현호국장인가! ... 음, 일이 갑자기 급하게 제기되어 못들리고 그냥 왔어... 아니, 그런 걱정 말라구. 늙은게 숨차기마련이지... 음, 병원에 약탈일이 있어 들린거야.》

림부주석은 나를 향해 능청스럽게 한쪽눈을 찡끗했다.

《걱정놓게, 아무렴 내가 이쯤 심장병에 거꾸러지겠는가... 그래 이번 장마비에 무사히 건디었다지?... 뭘 물이 줄어들었는데?... 뭘 뭘 5정보가 생겼다?... 반갑소, 반갑소... 거 팍영태령감을 만나거들랑 좋은 세월에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바란다고 내 인사를 전해주게나.》

림부주석은 훌쩍 몸을 일으키었다. 창백하던 얼굴에 놀라웁게도 혈조가 번지여갔다.



《우리의 영명하신 김정일동지를 받들어갈 큰 밑천이 또 자랐소. 아무렴 대밭에서 대가 나겠지. 최일을 다시 찾은것만치나 기쁘구만. 저런 애국의 배심이라면 이제 5정보가 아니라 5천정보, 5만정보의 새땅을 찾지 않나 보게.》

림부주석은 성급하게 다시 《토지옥편》을 뒤지더니 상중리의 잃어진 4~5정보라는 수자를 뺄뻔 지웠다. 그리고는 그우의 여백에 《5정보를 새로 찾음》이라고 큼직하게 적어놓은후 비칠거리며 실내화를 켜신었다. 서기가 황황히 다가와 한팔을 부축했다.

《농게나, 건딜만해.》

서기의 팔을 털어버리고나서 림부주석이 조용히 일렀다.

《어서 법무부에도 알려주게. 장천군 상중리의 그 호천강제방이 다되구 잃었던 4~5정보대신에 5정보 땅을 찾아냈다구...》

로대로 나가던 림부주석은 옆에 붙어서는 나를 주의를 집중한듯싶은 그 특징적인 시선으로 여겨보았다.

《그래 임자네들이 나를 병원에 오래 붙들어둘 십산인가?... 빨리 나가야 할텐데...》

나는 간절함과 기대에 차서 번뜩이는 림부주석의 시선을 피했다.

《왜 빨리 나가실수 없겠습니까. 부주석동지의 직한 성미에 어떻게 병원에 오래 계시겠습니까.》

나는 본의아니게 공연히 불이 부어 뇌까렸다. 그렇지 않으면 금시 흐느낌이 터질것 같았다.

내가 너무도 천연스럽게 병상태가 위중하지 않음을 암시한것이 효과를 보는것이 틀림없었다. 림부주석은 저으기 활기를 띠고 내 팔목을 잡아흔들었다.

《현박사가 어린할텐가. 어떻게 좀 빨리 일어나게 솜씨를 보여주게나. 최일의 녀이 꽃피워놓은 장천군에 꼭 가게말이지.》

나는 왈각 흐느낌이 터지는것을 다잡을수 없었다. 겨우 입술을 꼭 깨물고 한걸음 물러서며 요란하게 헛기침질했다.

다행스럽게도 림부주석은 당황해나서 안절부절하는 나의 돌변한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 순간에는 그런 림부주석이 고맙게까지 여겨졌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대구... 참 좋은 저녁일세.》

로대가름대를 건너시 쥘고 수도의 거리를 주욱 굽어보며 림부주석은 큰숨을 몰아쉬었다.

《온통 명절맞이로 단장했구만... 우리 공화국기는 모두록새 힘차고 산뜻해... 저 저녁노을은 또 얼마나 황홀하고 장쾌한가.》

《네, 정말 황홀하고 장쾌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순간에 내 마음은 시적이라고도 말할만한 정서적흥분으로 한껏 충만되어 울렁이였다.

진정 별일이였다. 체육관앞 공지에 주련이 세워진 기대들에 높이 게양되어 펄럭이는 람홍색공화국기발, 그를 마주하여 백발을 날리며 곳곳이 서있는 림부주석... 웬일인지 그 모습을 띄어보느라니 부지중 이 나라 애국충신들의 티없이 깨끗한 선혈이 한데 모여 비긴듯한 붉은 저녁노을속에서 금시라도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힘차게 울려나올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방안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 법무부와 전화를 하는 서기의 침착하고 확고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문득 한마디가 내 가슴을 요란하게 두드리였다.

《...아마 부주석동지도 꼭 나가보실 의향갑습니다.》

(...?!)

한순간 그 말에 몹시 의아쩍어졌지만 나도 서기의 태연자약한 그 말이 너무나 옳은것으로 여겨지면서 갑자기 목이 확 메여올랐다.

## 벽시

차돌같은 암벽이  
산악처럼 맞서도  
땅속호수 물주머니가  
폭포처럼 터져나와도  
오직 앞으로 !

내 가슴으로 안아올린  
검은금  
그것이 그대로 불이기에  
불이 되어 활활 타는 성미  
앞으로 !

## 앞으로!

## 오 재 신

뒤돌아보아도 후회가 없고  
앞을 보아도 희망찬 래일  
그밖에 다른 길 몰라  
내닫는 성미  
앞으로 !

천길땅속 탄발을 열어가는 길  
굴길은 때로 구부러져도  
장군님 따르는 마음엔 구배가 없어  
앞으로 !  
앞으로 !



## 두번째 상봉

한 용 빈

이것은 벌써 10년전의 일로 된 제13차 세계 청년학생축전때에 있는 이야기이다. 지금은 주체88년, 1999년이다. 우리 집 창문가에서 바라보이는 거리의 곳곳에 서있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힘차게 이어나가자!》라는 구호들은 지나온 10년의 간고함과 격동하는 오늘의 숨결을 잘 말해주고있다.

그런데 나는 왜 굳이 10년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것인가. 학교에서 돌아온 팔애와 함께 텔레비존화면에 나오는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온 나라 근로자들의 투쟁모습을 보며 왜 하필이면 오늘이 아니라 10년전의 일로 생각을 달리고있는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주체78(1989)년 여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나는 안내 겸 통역으로 참가했었다....

그때 세상사람들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두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세계청년학생축전이라는것으로 하여 마치 다른 행성에서 진행되기라도 하는듯 벽적 떠들어댔으나 나에게는 도리어 그들이 떠들어대는것이 더 놀라왔다. 과연 우리 조국의 수도 평양을 내어놓고 그 어데를 반제련대성, 친선, 평화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단 말인가.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열세번째만에야 비로소 자기의 고향을 찾아왔다고 하는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만큼 나는 축전에 참가한 외국인들에게 가장 훌륭하고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주체조선의 진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강렬한 사명감을 느꼈다. 반면에 우리 조국의 영상을 흐리게 할수 있는것이라면 그 어떤 사소한것이라도 없기를 간절히 바랐다.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은 대다수가 우리에게 대한 이해와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대한 적의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것이다.

나는 이미전부터 사회주의제도의것이라면 마른 나무일 하나를 놓고도 나무전체가 말라죽어간다는 식으로 떠들어대기 좋아하는 《서방세계》에 대하여 얼마간 알고있었다. 언젠가 《그들》은 고층살림집과 그아래에 있는 자그마한 림시건물인 수매소를 함께 찍은 사진을 신문에 내면서 고층살림집에서는 간부들이 살고 낮은 집(수매소)에서는

로동자들이 산다는 식의 기발한 설명을 달았다고 한다.

그런만큼 나는 축전기간에는 《그들》이 그런 트집을 잡을수 없을만큼 모든것이 더 훌륭하기를 바랐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더 아름다웠으면, 그들의 웃음이 더 밝고 친절했으면, 장식을 하나라도 더 화려했으면!

사람들이 외국인들의 물음에 무뚝뚝하게 대답하거나 우물쭈물할 때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다.) 얼굴이 달아올랐고 단물매대나 과실매대 앞에 줄지어서서 떠드는 사람들을 볼 때면 참기 어려운 불만을 느꼈다. 왜 꼭 그 단물매대에서 목을 추겨야 하는가, 지금 꼭 과실을 먹어야 하는가.... 버스정류소에 줄지어서서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볼 때면 막 소리치고싶었다. 《여러분! 한두정류소쯤이야 걸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모든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우려였던가 하고 생각된다. 흐르는 강물의 수면에 때때로 떠오르는 거품을 두고 강물이 밝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것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때는 그저 초조와 우려만을 느꼈을뿐이다. 지금보다 10년이나 전이였고 더우기 당시의 나로서는 외국인들과 대상해본 경험이 없었었다....

물론 그때 나의 그런 녀려는 전혀 무지에서 오는것이라고만 할수는 없는것이였다. 한번은 단물매대앞에 우두커니 서있는 한사람을 보고 동행하던 외국인이 뜻밖의 질문으로 나를 이만저만아니게 당황케 한적까지 있었던때문이다.

《저 사람은 돈이 없어서 저렇게 서있는게 아닙니까?》

《예 ?》

동냥을 바라고 서있지 않느냐는 뜻이였다.

그들의 생각은 종종 하도 기상천외하여서 한두번만 아니게 나를 놀래우곤했다. 어떻게 그런 묘한 생각이 떠오르는지 《감탄》할 지경이였다.

그런데 딱한것은 우리 사람들속에 그들의 그런 《묘한 측면》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였다. 단물매대앞에서 만났던 사람도 그러했다. 그는 나이가 서른대여섯몸에 이마가 좀 벗어질사한 매우 총명해보이는 사람이였다. 눈정기가 있고 주름살 하나 없는 이마에서는 해빛이 반사되어 눈에 못지 않게 반짝거리고있었다. 이런 얼굴을 보고 사람들은 《총명함이 이마에도 비껴있다.》 고들 한다.

《실례합니다.》

하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미안하지만 왜 여기 서계십니까?》

《누굴 좀 만나려고요.》 그의 이마에 의혹과 불만이 동시에 나타났다. 《그런데 왜 그렇니까?》

나는 먼저 내가 누구라는것을 설명하고 이렇게 말해주었다.

《외국손님들도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매대앞에 서있으면 보기가 어떨겠습니까? 저 외국손님은 손님이 돈이 없어서 서있는것 같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는 나와 저쪽에 서있는 외국인을 번갈아보며 눈을 깜박거렸다.

《별난 사람이구만요. 돈이 없는데 왜 서는 있단 겁니까?》

《총명함이 이마에까지 내비낀》 그 사람도 생각이 《동냥》이라는 말에까지 중시 이르지를 못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하기는 외국인과 한주일나마 같이 다닌 나조차도 그의 묘한 물음에 잠시동안 의혹과 놀라움으로 바라보기만 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내가 《동냥》이라는 말을 뒀겨주어서야 그는 외국인의 물음의 뜻을 이해했고 단번에 이마가 빨강게 되었다. 그것은 의심할바 없이 분노의 빛이었다.

《안내원동무는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 있었소. 예? 타격을 줘야지요, 타격을 ! 우릴 뭘로 알고... 이제 도발이 아니면 뭐요?》

나는 그날 외국인때문에 또한 《총명한 사람》 때문에 한바탕 땀을 뺐어야 했었다.

이쯤되고보면 내가 외국인과 동행하는동안 가는곳마다에서 일마다 자주 우려를 느꼈을것인지를 능히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내가 더 자주, 더 많은 우려를 느꼈던것은 단순한 로파심때문에만이 아니었다. 사실대로 말하면 나의 동행자가 하도 류달라서이기때문이었다.

그는 《서방세계》 어느 나라의 기자였는데 몹시 까다로운 동행자였다. 기사답게 호기심도 많았고 (그것은 마음에 들었다.) 그에 못지 않게 또 의심이 많았다.

그는 사회주의나라에서는 모든것이 의도적으로 조직된 선전을 위한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웅장화려한 광복거리도 직접 가보고서야 그것이 촬영을 위한 무대세트가 아니라 실지 사람들이 사는 거리라는것을 마지 못해 믿는듯한 인상이었다.

그는 내가 이런저런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답해줄 때면 빈번히 의혹을 표시했고 익살을 부리듯 눈을 찡뜨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불만과 초조감을 느꼈고 무엇으로 어떻게 납득시켜야 할지 알수 없어 약이 오르곤했다. 그 무엇이던 놀랄만한것으로 눈이 휘둥그래지고 기웃거리던 목

이 곳곳해지게 만들고싶었다. 그러나 그 《무엇》이라는것을 나는 좀처럼 찾아낼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아마 축전이 끝나기 전날이었을것이다.) 나는 그와 함께 보통강유보도로 나갔었다. 원래는 어떤 기념비적건축물이나 황홀한 예술 공연으로 그를 놀라게 할 계획이었으나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당신들이 훌륭한 건축술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나는 믿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5월 1일경기장 같은것은 세상에 없을것입니다.》

《...》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것인지 인차 가늠할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거의 교활해보이기까지 하는 의심장한 미소를 띠고 나를 보았다- 고대로마에도 웅장한 건축물은 많았습니다. 오늘의 뉴욕은 마천루의 <숲>입니다. 그러나 마천루밑에는 <할렘>이 있습니다. <할렘>은 고대로마에도 있었습니다. 글로써 남은것은 없지만 나는 코로세움도 휴관때에는 빈민들의 거처였으리라는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은 코로세움의 웅장함을 찬양한 글줄들에 밀려나고말았겠지요. 지금까지의 력사는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일수록 사회의 어둠을 가리우고 무능한 군주의 위엄을 돋구는데 기여했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습니다. 집이 클수록 그림자도 큰 법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혼탕을 이룬 그의 생각에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에게서는 력사가 발전이 아니라 부단한 반복과정에 불과한것인듯했다.

《당신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

《예, 예. 다르단 말씀이겠지요?》

그의 눈에서는 꾀바른 미소가 반짝거렸다. 비유를 좋아하는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악마의 미소》와 같은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럼 옛날로 돌아가봅시다. 당신도 말했지요? 옛날에는 당신들의 이 아름다운 도시에 또 <할렘>이 있었다고말입니다.》

《토성랑말입니까?》

《예, 예. 토성란 ! 옳습니다. 그곳으로 가봅시다.》

그러하여 우리는 보통강기슭으로 나갔다.

나의 동행자가 체육관이며 인민문화궁전, 병상관 등 웅장한 건축물들의 밑에 불행과 눈물, 천대와 오욕 등 옛 토성랑시대의 《화석》이 묻혀있음을 좀체로 믿으려 않던 이야기는 그만두기로 하자.

여기에서 내가 말하려는것은 옛날과 오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때문이다. 아마도 오늘과 《오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것이 정확할것이다.

보통교와 만수교사이의 보통강기슭에는 태고적부터 자라온듯싶은 느낌을 주는 아름답리 황철나

무들이 무성하게 늘어서있다. 그러나 그 거목들의 밑둥을 베여본다면 어느 나무에서나 마흔서너들기에 지나지 않는 년륜을 읽게 될것이다. 그것은 전 후복구건설이 시작되던 때와 일치하는 《년령》이다.

그속에 들어서면 비옥한 흙으로 변해가는 묵은 나무잎의 습기찬 짧은 냄새를 맡을수 있고 화분에 쓸 거무스레한 흙을 파가는 사람들을 만날수 있다.

거기에서는 만수교 저쪽 회색빛 고층건물의 거리도 보통강너머의 화려한 《탑의 거리》도 잘 보이지 않는다. 황철나무들이 너무 높고 무성하기때문이다. 황철나무의 꼭지 긴 잎사귀들은 가느다란 비람결에도 민감하게 수선거리고 그 수선거림속으로 새들의 조용한 지저귀이 바람처럼 떠돈다. 도시의 새들은 언제나 조용히 지저귀는듯하다. 아마 거리의 소음때문에 그렇게 느껴질것이다. 마치 깊은 수림속에 들어선듯하다.

그속에 들어서자 나의 까다로운 동행자도 잠시는 《속세》를 잊은듯 나무를 쳐다보는 눈에 미소가 어렸다.

나는 그와 나란히 걸으며 생각했다. 어떻게 이런 까다롭고 의심많은 성격이 생겨났을가, 믿기에 앞서 의심부터 하는 성격... 성격은 그 인간의 력사라고 한다. 성격이란 하루이틀에 형성되는 단순한것이 아니라는 뜻일것이다.

의식은 불안의 산물이다. 항상 불안스러워하는 듯한 성미, 그런 성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수 있을가. 하루이틀도 아닌 긴긴 일생을...

나는 그에 대한 못마땅함과 불쾌감이 어느 정도 사그라짐을 느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은근한 동정을 느꼈다. 세계 여러 출판물에서 이름있다고 자부하는 그를 동정했다! 불안만큼 인간을 질식시키고 압박하는것이 무엇이라. 그는 나에게 자랑스레 말한적이 있었다.

《집도 있고 안해와 아들이 있습니다. 승용차도 있지요. 행복합니다. 나는 아직 해고될 걱정은 없으니까요.》

그는 《아직》이라고 말했다. 《아직》이란 먼 후날일수도 있지만 래일일수도 있고 더 가깝게는 한시간후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다고 했다. 과연 행복과 불안이 랑립할수 있을가. 불안스러운 행복, 그런 행복이 있을수 있을가. 만일 있다면 그 행복부터가 동정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유보도에는 여느날처럼 사람들이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대동강유보도가 동적이고 군중적이라면 보통강유보도는 정적이고 생활적이다. 걷는 사람보다 걸상이나 잔디밭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많다. 책을 읽는가 하면 장기를 두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걷는 사람들에게서도 정적인 기분이 느껴진다.

물가에는 낚시꾼들이 대렬을 지은것처럼 주련이 앉아있었다. 그것은 사색에 잠긴듯도 하고 초조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활기가 느껴지고 흥겨움을 자아내는 이상한 《행렬》이었다. 그들은 주위로 흘러가는 온갖 생활의 흐름에는 전혀 흥미가 없는듯 강물위에 뜬 감부기만 지켜보고있었다. 마치 낚시줄이 잠긴 강물속에 인생의 가장 심오한 진리가 숨어있기라도 한듯하다.

그들의 옆으로 외국인과 함께 천천히 걸던 나는 저도 모르게 주춤하였다. 이미 스무해도 더 지났으나 거리에서 종종 만나는 중학동참인 친구가 그 《사색적인 행렬》속에 끼여있기때문이었다. 그는 낚시대를 물에 드리우고 앉아 뗏배를 피우고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알은체하기보다 그의 뒤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지나가버리는편을 택했다. 그와 마주섰다가는 어떤 딱한 일이 생길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중학교때에만도 동무들을 난처하게 만든적이 한두번이 아닌 친구였던것이다. 얼마나 단순하고 고지식한지 4학년때인가 천리마학급관정을 받을 때에 있었던 일은 두고두고 이야기거리로 되었던다.

관정을 앞두고 우리는 학습장을 정리한다. 신문 잡지에서 자료를 뽑아 교양자료집을 만든다, 교실을 꾸린다 하는 등의 사업으로 보름나마 분주히 지냈다. 한가지 실례만 들어도 교실의 마루바닥을 얼마나 닦고 문지르고 했던지 내려다보면 제얼굴의 눈섭까지도 세여볼수 있을 정도였다.

관정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무슨 모임때(질의문답 비슷한것이였다.) 끄떡끄떡 줄고있던 《나의 친구》가 한 관정성원의 눈에 띄었다.

《학생은 어제밤 제대로 자지 못한 모양이로구 만?》

그것은 굳이 대답을 요구한 물음이 아니라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던져진 한마디 통담에 가까웠다. 얼굴을 좀 붉히며 잠자코 있었으면 그대로 지나가버렸을것이였다.

그런데 그는 푸시시해서 일어났다.

《제대로 못잤습니다.》

《뭘 하느라고 못잤소?》

《교실을 꾸리고... 청소했습니다.》

《무슨 청소를 밤새껏 했던 말이요?》

다음의 대답은 우리모두의 등골에 찬물을 쏟아 붓는듯했다.

《천리마학급관정을 한다가에...》

《?!》

...

그때로부터 스무해도 더 되는 세월이 지났으나 거리에서 종종 만나 이야기해보면 그 성미가 조금도 변한것 같지 않았다. 여전히 단순했고 고지

식 했다. 룡담도 진담으로 받아들여 말을 꺼낸 사람이 딱해지기가 일쑤였다.

그러한 《나의 친구》가 이 까다로운 외국인과 마주앉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상대로는 백천번 적당치 않았다. 나는 은근히 걸음을 더 빨리 하였다. 몇 걸음만 더 옮기면 그의 뒤를 완전히 지나가버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한무리의 청년들이 떠들썩하게 노래소리가 울려나오는 록음기를 흔들면서 지나갔다. 노래소리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이 마치 흔들리는 록음기 안에서 물처럼 출렁거리는 것 같았다.

그 품을 떠나선 못살아

그 품을 떠나선 못살아

...

그러자 그 친구는 머리를 돌려 청년들 쪽을 바라보았다. 그 서슬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그와 눈길이 마주치고 말았다.

《어- 박동무!》

나는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려 했다. 그런데 나의 동행자가 어느새 그를 보았다.

《당신을 찾지 않습니까?》

일은 종시 내가 우려하던 대로 되고 말았다.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친구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때로부터 한시간을 나는 어떻게 지나보냈는지 기억하기 어렵다. 때로는 얼굴에 모닥불을 뒤집어 쓴 듯하고 때로는 등골에 찬물을 쏟아붓는 듯하던 순간들... 물음이나 대답은 온통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굵으로 줄달음쳐갔다. 나는 그 물음과 대답을 쫓아가느라고 줄곧 헐떡거려야 했다....

《직업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동행자》의 첫 질문이었던 것 같다.

나의 친구가 대답대신 의아한 기색으로 나에게 반문했다.

《직업없는 사람도 있나? 내 참.》

나는 그에게 세상에는 실업자가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것, 이 나의 동행자의 나라에도 실업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기자에게는 그가 기계공장의 조립공이라고 알려주었다.

《집은 있습니까?》

친구는 이번에도 대답대신 나에게 반문했다.

《무슨 집?》

《살림집 말이지, 무슨 집이겠나?》

《무슨 말인지 도무지 원, 사람이 집없이 어떻게 사나?》

나는 어이없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다. 그는 외국인이 아니라 나와 담화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신문을 보지 않나? 집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걸 읽지 못했나?》

《아하!-》

그제야 둔감한 나의 친구도 약간 깨도가 되는 지 긴 감탄사를 내뿜었다.

《그러니 이 사람도 그런 나라에서 왔구만?》 하고는 동정하듯 물끄러미 바라보며 머리를 절레 절레 흔들었다.

《살기가 험치 않겠수다.》

나는 그 말을 그대로 통역해 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의 친구가 목욕탕과 위생실이 달린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아-》

나의 동행자는 감탄부호가 붙지 않은 입소리를 길게 냈다. 직업도 집도 다 있다는데 어지간히 실망한 듯한 소리였다.

그때 또 한패의 젊은이들이 떠들썩하게 록음기를 들고 지나갔다. 록음기들도 무척 많았다.

나의 친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불행한 사람》으로부터 눈길을 록음기로 돌렸다.

나의 동행자는 그의 눈길을 따라보더니 재빨리 물었다.

《집에 록음기가 있습니까?》

나의 친구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없수다.》

그런 대답에는 통역이 필요 없었다.

《없단 말이지요?》

나의 동행자는 활기를 띠었다. 이야기는 내가 우려했던 대로 가고 있었다.

생활에는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불만스러울 때도 있다. 그런데 그런 측면만 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면?...

나는 친구에게 낮게 말했다.

《잘 생각해서 대답하라구.》

《뭘?》

나의 친구는 말귀조차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나의 동행자는 나의 친구가 둔감한 그만큼 민감했다. 그는 승리자 연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말했다.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친구와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은 벌써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웁습니다. 그런데 부디 이분이 말하는 그대로 정확히 통역해 주십시오. 물리에르의 뽀르끼예 말처럼 되지 않게 말입니다.》

나는 약이 올랐다.

《나는 정확히 통역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는 그가 메고 있는 록음기들 가리키며 쌀쌀하게 말했다.

《후에 확인하시지요?》

《아- 의심하는 건 소금도 아닙니다. 조금도.》

이렇게 되어 교활한 나의 동행자와 끝없이 단순한 나의 친구사이의 《면담》이 벌어졌다....

《록음기도 없으면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나의 친구도 어지간한 지각이 있으면 《존경할만한》 외국의 기자선생이 자기를 어디로 물고가려는것인지를 알아차려야 할것이였다.

그런데 나의 친구는 별로 생각해보는 기색도 없이 수월히 대답했다.

《아이들 넷하구 처가 있지요.》

나는 다시 설명해줄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은 자네네 집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가 구 묻는거네.》

《물건 ? 》

나의 친구는 눈을 껌벅거렸다. 그는 얼떨떨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 버릇이 있었다.

《별난 사람이구만. 집이야 사람사는데지 물건 두는덴가? 창고처럼.》

나는 기가 막혀서 웃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어떻게 통역은 해주어야 했다. 그것도 정확히!

《이 사람은 집이란 사람사는곳이지 창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기자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했다고 생각한듯 재빨리 사과했다. 지나칠만큼 레절이 밝았다. 그러나 나는 그 깎듯한 레절의 뒤에 숨어있는 사냥군과 같은 교활성과 인내성을 보고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다닙니까?》

《두명만 다닙니다.》

《두명만 ?》

나의 동행자는 신이 났다. 가운데손가락 두개를 쳐들어보이며 따져물었다.

《학교에 못가는 아이가 둘이겠습니까?》

《그렇습지요.》

나의 친구는 외국사람이 산수계산을 빨리 하는데 감탄한듯 그가 쳐든 두개의 손가락을 보며 시원스레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는 외국인이 무엇을 목적하고 파고드는지 여전히 짐작도 못하고있었다.

《학교에 못가는 두 아이는 뭘합니까?》

《뭘할게 있나요? 한놈은 유치원에 가구 맨 작은놈은 탁아소에 가지요.》

《예 ?》

나의 동행자는 한동안 멍-하니 나의 친구를 건너다보기만 했다.

한편 나의 친구는 그 태도가 이해되지 않아 눈을 껌벅거리며 마주보기만 하고있었다....

아마 그들처럼 대조적인 대화자는 찾아보기 어려웠을것이다. 까다로운 속대사를 품고 자기가 바라는 대답을 얻기 위하여 이런저런 물음을 던져보는 교활무쌍한 기자와 그 물음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전혀 짐작도 못하고 아무 생각없이 대답하는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한 나의 친구... 그들

의 대화는 제대로 어우러지는듯하면서도 완전한 동문서답이였다. 기자는 매번 처음에는 자기 의도대로 이야기가 끌려간다는것으로 기뻐했으나 얼마후에는 《동문서답》에 만족했음을 깨닫지 않을수 없게 되군했다. 이것은 완전무장한 교활성과 완전무방비상태의 단순성과의 《대결》이였다.

이제부터는 그들의 대화를 아무런 설명없이 그대로 옮겨놓는것이 더 좋을것 같다.

기자: 아이들이 넷이니 걱정도 많겠지요?

친구: 하루도 마음놓을 날이 없수다.

기자: 아, 그렇겠지요. (활기를 띤것은 물론이다.) 무엇이 제일 걱정입니까?

친구: 애녀석들이 장난에 팔려 공부를 제대로 못할가봐 걱정이지요. 또 유치원에 다니는놈은 어찌 장난이 세찬지 매일 말썽거릴 만들어내지요. 글썽어제는 부엌바닥에 수도물을 채워놓고 종이배를 띄우며 떠드는게 아니겠소. 복도로 해서 아래층에까지 물이 흘러내려 큰 소동이 났지요.... 그저 그것들때문에 늙지요.

기자: (한동안 침묵)리해되지 않는데요?

(이것 역시 한차례의 동문서답이였다.)

기자: 한달에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친구: 이번달에는 꽤참게 받았지요. 상금까지 해서.

기자: 딸라로는 얼마나 될가요?

친구: 글썽요.

기자: 한 90팔라, 아니 100팔라쯤 된다고 합시다.

친구: 그까짓건 아무렇게나.

기자: 그 돈으로 여섯식구가 살아갈수 있습니까?

친구: 물론이지요.

기자: 리해되지 않는데요?

친구: 허, 그것 참!

기자: 그럼 말해봅시다.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보낼 생각입니까?

친구: 다른데야 갈데가 없지요.

기자: 아이들이 더러 앓기도 하겠지요?

친구: 그럴 때가 있지요. 감기에도 걸리고...

기자: 또 먹고 살아야겠지요? 여섯식구가...

친구: 아,그저야 뭐.

기자: 좋습니다. (예비적인 공격준비를 끝낸 그는 만족하여 두손을 마주 비비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수입으로 모든것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친구: 왜 못한단 말입니까?

기자: 우선 집세를 물어야겠지요? 나의 수입은 무척 많지만 절반이상이 집세로 들어갑니다.

친구: 절반이상? (놀라움) 그럼 한달수입이 20원 정도밖엔 안되는 모양이구만. (물론 나를 보며 한 말이다.)

기자: 아니, 훨씬 많습니다.



친구: 어떤든 절반이상이 집세라니 그만큼밖에 안되는셈이지요. 우린 한달에 10원정도씩입니다.

나는 기사에게 우리에게는 집세라는것이 없다는것, 주택사용료라는것이 있을뿐이라는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침묵을 지켰다.

대화는 잠시후에야 이어졌다.

기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데는 돈이 필요하겠지요?

친구: 돈이요? 그건 왜서요?

기자: 왜라니요? 학교라면 교원들이 있겠지요?

친구: 물론이지요.

기자: 교실도 있고 교구비품도 갖추어야겠지요?

친구: 그럼요.

기자: 그러니 돈을 내야 할게 아닙니까?

친구: 글썄 그건 왜 낸단 말입니까? 학교라면야 그런게 다 있기 마련인데.

기자: 예?

...

결국 이야기는 처음으로 되돌아간셈이 되었다.

그대로 두면 《그건 왜요?》 하는 식의 끝없는 대화가 계속될것이었다. 나는 동행자에게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무료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고 설명해주었다. 그러자 그는 나를 보지 않으며 시무룩해서 중얼거렸다.

《그런 말은 벌써 들었습니다.》

그리고보면 의심이 빚어낸 《무지》였던것이다. 의심이란 사람을 똑똑하게도 만들지만 그 반대로도 만드는것 같았다....

기자: 그건 그렇다 합시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앓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 진료소나 병원에 가지요.

기자: 거기서야 돈을 내야겠지요?

친구: 그건 왜요?

기자: 치료받거나 입원해야 할게 아닙니까?

친구: 그런데 돈은 왜 낸단 말입니까?

기자: ? ...

(이번에도 이야기는 또 처음으로 돌아갔다.)

나 역시 어떻게 대답해야 적중할지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몇분간이 지나서야 겨우 《무상치료제》라는 말이 생각났다. 태어나서부터 그속에서 살아오다보니 세상이란 그런것이거니 하고 생각하게끔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나는 새삼스레 발견했다. 오히려 다른 생활에 대하여 놀라게 되었던 것이다. 아마 그래서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동행자에게 《나의 발견》을 말해주지 않았다. 《들은적이 있습니다.》 하고 말할것이 뻔했기때문이었다. 참으로 의심이라는것이 똑

똑하고 현명한 사람을 어느 지경에 이르게 했는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나의 동행자에 대한 일종의 동정비슷한 감정을 다시금 느꼈다.

허나 나의 동행자는 물려서지 않았다. 집요성도 기사들의 직업상 고유한 기질인것 같았다.

《그럼 당신에게는 돈이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왜 필요없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사이다를 사주려고 해도 그렇고 비행기를 태워주려고 해도 그렇고, 유희비행기말입니다...》

《...》

기자는 리해할수 없다는듯 어깨를 으쓱하며 두팔을 짝 벌렸다.

나의 친구는 그의 손이 얼마나 벌려지는가가 흥미있는지 눈을 껌벅거리며 바라보더니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한듯 낚시줄데로 얼굴을 돌렸다...

《면담》은 싱겁게 끝나고말았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지... 기억나지 않는다. 인민문화궁전의 맞은편 뽀트장이 있는 유보도에서 몇몇 외국인들이 우리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고 수표를 교환하는것을 부럽게 보던것만이 기억난다. 나에게는 왜 저런 호의적인 외국인의 안내가 차레지지 않았을가 하는 유감스러운 생각을 했던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이미 나의 동행자가 우리의 동정자와 벗으로 될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잃고있었다.

그때 새로 나타난 낚시군이 나의 친구옆에 와 앉더니 낚시도구를 펼쳐놓기 시작하였다.

그는 성미가 무척 급한 사람같았다. 낚시줄이 잘 풀리지 않고 엉키자 와락와락 잡아당기며 화를 내기 시작했던것이다.

《이런 ! 망할놈의것 ! 이걸 그저...》

그때 그를 기웃하고 보던 나의 친구가 반가운 소리를 쳤다.

《아니 ? 이거 직장장동무 아닙니까?》

《응 ?》

그 사람은 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반가움에 반가움으로 대답할 대신 도리어 《동무요?》 하고는 외면해버렸다. 얼굴에는 더욱 화난 표정이 어렸다.

그러나 나의 친구는 가장 반가운 인사라도 받은듯 도와주려고 서둘러했다. 엉킨 낚시줄을 제앞으로 끌어당기며 연신 《훈시》를 해냈다.

《아, 아 당기지 마시우...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뽑으시우. 그렇지... 그렇지... 댔수다 ! 미끼를 쓰실려우 ?》

《나도 미끼가 있소 !》

직장장이라는 사람은 호의를 단마디로 일축해버렸다. 두사람사이에 단단히 기분나쁜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직장장은 분명히 성미가 무척 급한 사람이었다. 낚시줄을 던지고나자 나의 친구에게 머리를 휘둘렀던것이다.

《어제는 그게 도대체 뭐요? 사람이 어찌면 그럴수 있소? 온 공장이 모인데서 이 직장장을 그렇게 깎아내려야 시원하겠소?》

그러자 나의 친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반문했다.

《아니 ? 내가 언제 직장장동무를 깎아내렸단 말ियो?》

《시치밀 떼지 마오 ! 로봇트시운전이 성공한 마당에서 하필이면 직장장이 처음부터 찬성했다라면 석달전에 똥을거라는 말을 할건 뭐요? 그런 경사스러운데서 꼭 그런 말을 해야 시원하겠소?》 나의 친구는 눈을 맹렬히 껌벅거렸다.

《그게 왜 직장장을 깎아내리는건지요? 그저 문득 생각나서 사실대로 한 말인데...》

《여보, 제발 모르는체하지 마오 !》

나는 단박에 어떻게 된 일인지 짐작할수 있었다. 학교때 있었던것과 비슷한 일이 있는것이 분명했다. 시운전이 성공한 기쁜 마당에서 옛날 천리마학급판정때 우리모두를 난처하게 했던것처럼 직장장을 난처해지게 만들었을것이였다.

《그럼 직장장동문 내가 잘못했다 말하겠수다 ?》

직장장은 눈을 흘겼다.

《누가 잘못했다고 했소? 나도 <직사포> 같은 강동무 성격을 모르는건 아니요. 강동무를 밟다는 사람은 더러 있지만 옳지 않다는 사람은 없다는 것도 알고있고... 그렇지만...》

이런 칭찬도 비난도 아닌 말에 나의 친구는 저 으기 당황한듯했다.

《글쎄... 석달 앞당겼다고 말할수도 없고... 무슨 다른 말을 할게 있어야지. 그치 기쁜김에...》

《사람두 참 ...》

직장장은 어느사이 화가 가라앉은듯 한숨처럼 말했다.

《됐소. 그래서 강동무지.》

그래서 강동무다. 그 한마디속에는 나의 친구의 전부가 들어있다고 말할수 있었다. 우리의 생활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드물지 않게 있다. 그들의 지나친 솔직성때문에 딱한 경우에 빠지면서도 미워할수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기자의 물음에 나는 친구의 공장에서 한 생산 흐름선의 로봇트화가 실현되었다는것을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두사람의 상봉이 왜 기분나빴는가를 어떻게 설명할가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다. 그런 일로 노동자가 직장장을 《비판》하였다는것을 어떻게 리해시킬것인가...

그런데 그는 의외에도 내가 말을 채 하기도전에 크게 머리를 끄덕거렸다.

《알만합니다 ! 》

《?! 》

나는 놀랐다. 알만하다? 방금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놀랄만한 《진보》, 《비약》이였다 ! 그도 자신의 《진보》가 기쁜듯 활기있게 말을 계속했다.

《저 두사람의 사이가 왜 나쁜지 리해됩니다.》

《?》

나는 그가 이제까지 우리 말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느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두사람의 미묘한 관계를 리해할수있단 말인가.

《내가 말해볼가요 ?》

그는 의기양양했다.

《저 사람들은 그 로봇트때문에 직업을 잃게 되어 우울해있는것이지요?》

《예 ?》

나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말았다. 웃지 않을수 없었다. 《사람이 아무리 걸음을 크게 내짚어도 바지가랭이너비를 넘지 못한다》던 말이 떠올랐다. 유럽사람들의 격언이었던지... 사람은 아무리 비약해도 자기 생활에서 벗어나날수 없다. 손오공이 석가모니의 손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듯이. 나의 동행자의 눈부신 《진보》 역시 자기 생활권내에서의 《진보》였던것이다.

《왜 웃습니까?》

《실례했습니다.》

나는 내용을 설명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그는 껄바른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내 말을 가로막았다.

《난 저 사람과 직접 말하고싶습니다.》

하고 그는 나의 친구에게 물었다.

《당신은 로봇트의 도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거야 기쁜 일이지요.》

《당신은 혹시 로봇트가 당신이 할 일을 대신하게 되리라는것을 망각한것이 아닙니까?》

《그래 서 좋은거지요.》

《좋다구요? 당신의 일자리가 없어지는데두요?》

《일자리가 없어지다니요?》

《로봇트가 당신이 하던 일을 대신하게 되니 당신은 일자리를 잃을게 아닙니까?》

한때 력사에 등장했던 《기계파괴론자》들의 론조같은 말을 나의 친구가 리해할리 없었다. 그는 나를 건너다보며 어리둥절해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만.》

동문서답이라기보다 완전한 언어불통이였다. 두사람사이에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물리해의 장벽은 더 높아지는듯했다. 서로 상대방의 복잡함과 단순함을 리해 못하는것으로하여 그 장벽은 두 제도의 차이보다 더 높아지고 있었다.

나는 안타까움을 참다 못해 친구에게 말했다.

《우리 나라엔 실업자가 없다는 말이라도 할수 있지 않나 ?》

《뭐 ?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하고 놀래던 친구는 불현듯 나에게 화를 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라는건가? 우리 나라에 대해서 가짜거져도 모르는 사람한테 !》

아무 말이나 기탄없이 망탕 해대는데 나는 당황했다. 아무 말이나 모두 기자가 메고있는 록음기에 그대로 옮겨지고있을것이기때문이었다.

나는 친구의 말을 부드럽게 《가공》하여 전달했다.

《당신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좀 알게 되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합니다.》

기자의 얼굴이 좀 창백해지는데 보였다. 그는 거의 도전적으로 나의 친구에게 따져물었다.

《당신은 그럼 일자리나 주택에 대해서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는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러나 성실한 나의 친구는 그의 물음에 구체적인 대답을 줄 착한 생각만을 하고있었다.

《그렇수야 없지요. 이달 계획을 앞당겨 끝내자고 했는데 해내겠는지, 또 오작품이 나오지 않겠는지, 집을 두고 말해도 또 애녀석들이...》

《그저야 불안이 아니라 걱정이지요.》

《예 ? 걱정은 뭐구 불안은 또 뭐가요?》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기자는 서둘러 일어났다.

《갑시다 ! 》

나는 그의 갑작스런 《면담중지선언》에 놀리지 않을수 없었다. 무슨 일에서나 어떤 경우에도 지나치게 각중한 레의를 중시해오던 《신사》가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일어서버린것이였다. 이것은 명백한 무례함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그의 무례함에 대한 불쾌감보다 의혹을 더 강하게 느꼈다. 세계 여러 나라를 거의 다 다녀보았다고 자부하고 어떤 웅장한 것에도 화려한 것에도 아름다운 것에도 놀라거나 감탄하지 않고 표정변화도 없던 그가 어찌하여 나의 친구의 단순하고 평범한 말에는 표정이 여러차례 변하고 천성으로 된듯하던 신사의 레의까지 잃어버렸을까? 지나친 단순함에 대한 실망때문이었을까? ...

어떻든 실패한 《면담》, 《완전한 실패작》이다 ! 그의 뒤를 따라가며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다.

기자는 몇걸음 걷고야 나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나는 그가 자기의 무례함을 사죄하려는것으로 알았다. 길에서 남의 팔소매를 스치여도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고야 지나가는 사람이였기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사죄가 아니였다.

《불안을 모른다는건 있을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아마 솔직하다면 천당에도 불안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제우스도 불안속에서 살았습니다. 현대인들의 생활이란 불안과 불안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구요 ?》

그는 종시 자기의 무례함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있었다. 나는 알수 없었다. 나의 친구의 말에 도대체 무슨 특별한것이 있기에 이 《신사》를 이렇게 혼란시켰을까.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

발밑에서 기름진 검은 흙이 부근부근하게 났었다. 습기찬 대가, 묵은 나무잎의 짧은 냄새, 그것은 쉬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있는 대지의 신선한 향기이다.

얼마앞에서 붉은넥타이를 목에 두른 한 소녀가 소령이에 흙을 담고있었다. 화분에 쓸 흙일것이다. 그애는 나의 동행자를 보고는 얼른 일어서서 소년단경례를 하며 방긋 웃어보였다. 가느다란 손끝에는 축축한 검은 흙이 탐스럽게 묻어있었다.

그애의 걸을 지나 몇걸음 걸었을 때 나의 동행자는 갑작스레 걸음을 멈추었다. 소녀를 돌아다보고 나를 보는 그의 눈에서는 미묘한 미소가 반짝거렸다. 마치 상대방이 깊숙이 감추려 했던 비밀을 간파하기라도 한듯한 눈빛이였다.

《확실히 당신들은 놀랍니다 !》

《?》

나는 의아하여 그를 보았다. 무엇이 놀랍다는것일까. 감탄인가, 비난인가...

그러나 다음 말에 나는 아연해지고말았다.

《저 사람이 정말 노동자가 옳습니까?》

《?! 》

무슨 일을 하는것인가? 나는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나의 침묵에 그는 더욱 의기양양했다.

《아니, 노동자일수 없습니다 ! 》

그는 자기가 묻고 지기가 대답하며 더 활기를 띠었다. 나는 그가 통남을 하는줄로 알았다. 하마 트면 웃을번했다. 그런데 그는 미소도 없이 끝없이 진지하게 말하고있었다.

《만일 당신의 친구가 정말 노동자라면 노동자들까지 그렇게 준비시킨 당신들에게 감탄할수밖에 없습니다! 》

《?! 》

어떻게 되어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가. 나의 친구가 무슨 특별한 말이라도 했던 말인가? 아니, 그는 그저 있는 그대로 말했을뿐이다. 먹고 입고 사는데서 불안이 없는것은 진실이지만 결코 화려하지는 못한 생활이라고... 그런데 어찌하여 이 외국인에게는 웅장화려한 거리나 극치를 이루는 예술공연보다도 이 끝없이 평범한 생활이 더 비현실적인것으로 보였을까... 우리 생활, 매일처럼

영위하고있어 이제는 대기처럼 습관되어버린 생활.

《불안을 떠난 생활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보고있었다. 그리고 나의 생활을 보고있었다. 한 노동자의 한없이 솔직한 고백이 온 세계를 다 보았다는 기자에게 사회주의제도를 미화분식하기 위한 《선전》으로 생각되게 한 우리의 생활...

머리우에서 무엇인가 떨어졌다. 파란 나무잎이였다. 어느 명랑한 새가 떨어뜨렸는지, 보통강의 서늘한 강비람이 떨어뜨렸는지, 그것은 천천히 눈앞으로 미끄러져내려 땅에 떨어졌다. 그우로 무성한 나무잎들을 꿰지르고 들어온 한줄기 햇빛이 조용히 따라내려왔다. 바람이 불면서 빛의 그물이 눈앞에서 물결무늬처럼 일튼거렸다...

그때 나에게서는 문득 언제인가 본적이 있는 《인공위성으로 본 지구》라는 기록화면이 떠올랐다. 거기에서는 내가 매일 보고있고 살고있는 이 땅이라고 생각하게 하는것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구》라는 설명이 없었더라면 다른 행성으로 인정했을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외국인의 눈으로 본 우리 생활과 우리 눈으로 본 우리 생활이 바로 그러한 차이를 가지고있지 않을까. 멀리에서 본 우리 생활과 가까이에서 본 우리 생활...

그때로부터 근 10년이 지났다...

10년, 그10년은 단순한 3,650일이 아니였다. 눈썹이 저절로 찌릿하게 젖어오른다. 그 10년사이에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사변들을 겪었다.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웅근 한세기동안에도 겪을수 없을 격동적인 사변들을 겪었다. 영원한것으로 보였던 이전 소련이 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수다한 자본주의나라들로 산산조각이 되었고 뒤이어 거의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세계 제국주의의 포위속에 들었다. 그런속에서 우리 인민은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하였다.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결을 떠나시였다. 그때부터 몇년째 련속되는 파괴적인 자연재해, 자연까지도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와 고립 압살책동에 합세한듯하였다.

하여 우리는 《고난의 행군》길에 올랐다. 60년 전 우리 선렬들이 걸었던 그 고난의 행군길우에 우리는 1990년대에 다시 올랐다. 《고난의 행군》은 끝났지만 아직도 어려운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부족한것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거리의 장식 등들과 가로등 불빛도 밝지 못하다.

...

똑똑똑- 문두드리는 소리가 생각을 토막냈다. 인민반장이였다.

《진료소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예방주사 ?》

텔레비존을 보고있던 딸애는 걱정스레 종알대는데 부엌에서 들어온 안해는 대뜸 탓하는 말부터 한다.

《학교에 서 돌아오면 옷부터 갈아입어야지. 그게 뭐냐?》

딸애는 마치 못해 일어나며 입을 비쭉거린다.

《엄만 그저 그 말박엔 몰라.》

이것은 저녁마다 거의 어김없이 벌어지는 어머니와 딸의 말씨름이다. 딸애는 이번에 선물로 받은 교복이 마음에 들어 입으면 벗으려 않고 안해는 또한 《이런 어려운 때에 어찌면-》 하고 눈물지었던 선물교복이니 달리 될수 없다.

창밖의 도로는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져있어 어스름하다. 자동차불빛들도 그리 많지 못하다.

그러나... 나는 인민반장의 문두드리는 소리에 동강났던 생각을 다시 이어갔다. 과연 우리 생활에서 달라진것이 무엇인가? 잃은것이 무엇인가... 10년전까지도 우리는 미처 몰랐다. 습관되어있었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였을 때에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것을 가지고있는가를 새삼스레 깨달았다. 모스크바, 와르샤와... 거리들에 차넘치는 실업대군, 집없는 사람들, 배움터를 잃은 아이들, 병원문앞에서 숨진 사람들... 그러나, 그러나 ! 우리의 생활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변함없이 하나의 궤도를 따라 흘러가고있는 우리 생활, 우리의 생활...

길 맞은편에서는 가로등불빛과 궤도전차, 자동차 전조등불빛속에서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는 구호가 숨쉬듯 힘있게 두드러진다. 그리고 저 무한한 우주공간에서는 우리의 《광명성1호》가 강성대국의 척후병인양 출기차게 질주하고있을것이다.

북도에서는 매 집의 문들을 빠짐없이 두드리며 알리는 《진료소에 빨리 가서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 하는 목소리가 멀어지며 끊임없이 들려온다 ...

X

이제는 내가 왜 오늘 부디 10년전의 일을 회상하게 되였는가를 말해야겠다. 바로 오늘 나는 10년전의 그 까다롭던 동행자를 다시 만났기때문이다. 물론 이 두번째 상봉은 직접적이 아니라 신문지면에서 이루어진것이기는 하지만...

그는 신문에서 이렇게 썼다.

《은 세계가 현대인들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절망과 불안만이 있을뿐이라고 하는 오늘 나는 절망과 불안을 모르고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친 사람들이 사는 땅을 발견하였다. 그 땅이 바로 내가 10년만에 다시 찾아온 이 땅이다...》

10년전 이 나라의 거리에 장식등이 황홀하게 명멸하고 눈부신 가로등불빛이 밤나비의 날개무

니까지 사진처럼 보여주던 그때에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불안을 모르고 산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나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거쳐와 장식등도 많이 켜지 않고 가로등불빛도

어스름한 오늘의 이 나라 거리를 걸으면서 이 땅이야말로 절망과 불안을 모르는 땅,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찬 땅임을 알게 되었다...》

## 고지엔 병사들만 있지 않다

리 명 옥

351 고지여

이 땅의 영웅병사들을 품안고 솟은  
그대 장한 위훈의 갈피갈피엔  
사나이들만 있었던가...

그날

바위마저 불타던

결사의 그 15분을 넘어

기적의 탄생을 소리치며 람홍색기발이 휘날릴때

고지여, 목메여 흐느끼는 그 영웅진사들속에  
이 나라 녀인들은 없었다

그 결전의 흔적 세월에 덮여

솔향 짙은 숲속에 새가 울고 꽃이 피는오늘

그날의 영웅들 못내 추억하시며

우리 장군님 숭엄히 고지에 오르실 때

351 고지여, 너 다시금

번쩍이는 영광으로 세계의 면전에 솟구쳤나니

그때에도 거기 녀인들은 없었다

히나 사람들이여

나는 이 나라의 한 이름없는 녀인으로

그 시각

장군님과 함께

병사들과 함께

그자리에 있는듯한 느낌을 가졌다

어찌하여 나뿐이 아닌

이 땅의 어머니들과 련인들과 안해들이

그런 느낌을 가졌던가

말해다오, 351 고지여

불타던 15분우에 너 다시 머리들던 그날에

화점 향해 돌진한 그 병사가

터발의 흙 한줌 정히 싸 배낭에 넣어준

그 안해와 함께 오르지 않았단 말인가

삼대베듯 적을 치며 맨먼저 고지 오른그병사가

하얀 손수건에 뒤흔의 진달래 수놓아준

그 처녀와 함께 오르지 않았단 말인가

오늘 우리 장군님

못내 대견하시여 치하해주는 병사들의 뒤에

그렇게 안아내세운 어머니들이

눈물머금고 섰지 않았더라 말인가

오, 병사들만 있지 않았다 고지엔

수정처럼 맑디맑은 마음이

다함없는 정이

불같은 기원이

병사들을 위훈으로 받들어주며 있었다

이 나라 착한 녀인들이 함께 있었다

평범한 날에 속삭인 녀인들의 사랑이

준엄한 날에 무적의 힘이 되고

목숨같은 애국이 되었어라

녀인들의 그 사랑이 불씨라면

용사들의 용맹은 거기서 피어난 불

나는 감히 생각해본다

이 땅에 영웅들이 많은것은

훌륭한 녀인들이 많기때문이라고

오늘도 그런 녀인들이

병사들의 어머니이고 련인이고 안해여서

장군님의 기쁘신 미소 철의 신발들에 흐르고

내 나라는 이토록 무적으로 강한것이 아닌가고

오, 인류전쟁사에

사랑을 격파한 창검이 없었듯이

이 나라 녀인들의 열화같은 그 사랑이

병사들을 지켜 뿌리깊은 소나무처럼 고지에 있

는 한

그들의 심장을 뚫을 총탄은 없다

그 심장들이 고지를 지켜 서있는 한

내 조국의 고지는 영원한 철벽의 고지!



## 영원한 복부

리중홍

### 머리말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말은 곧 사람이다.》

펜을 들기에 앞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을 곰곰히 음미해보느라니 이제 내가 쓰려는 글은 곧 나자신이라고 말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어쩐지 펜이 굳어진다.

허나 나는 우리 사회앞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민족의 령수로 높이 모시고 주체위업완성의 길로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는 우리

김일성대민족의 거창한 행군대오앞에 무엇인가 꼭 말하고싶다. 영원한 전사의 자격으로-

그래서 나는 이 펜을 잡았다.

### 침지끝인 아들

부득불 나는 이 이야기를 몇해전으로 거슬러올라가야겠다.

주체 84(1995)년.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이 대국상을 당한 7월의 그날로부터 한해후인 그 이듬해 4월 6일이였다.

그날 늦은아침, 나는 부대지휘부와 멀리 떨어진 어느 한 구분대에 가있었다. 먼길에 지친 길손이 강가에 퍼터버리고앉아 두발을 물에다 잠근듯이 아치를 강우에 깊숙이 드리운채 기슭바투 나앉은 초소였다.

아무때 가보나 알뜰한 살림살이숨씨가 느껴지는 초소로서 높지 않은 세멘트담장으로 꼭 둘러막힌 그리 넓지 않은 마당 한구석엔 체육기재들이, 반대편 구석엔 맵시나게 우개를 해썬데다 파란 뽕끼칠을 한 무기소제강이 상사되게 들어앉았고 뒤뜰에 가면 3층짜리 토끼우리며 허리만큼이나 되게 나무바자를 두른 넓은 계사니우리며가 군대초소라기보다 어느 농촌집 뒤울안을 련상케 하군했다. 그런데... 계사니우리옆에 붙여지었던 닭우리가 어찌선지 앞마당 체육장옆에 옮겨져있었다. 쇠그물로 빙 둘러막은거며 합각식으로 멧을 내어 지붕을 엮은거며 우리는 그전 그대로인데 장소를 옮긴것이였다.

나는 구분대장에게 닭우리를 옮긴 이유를 물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뜻밖이였다.

《그건 부장동지가 옮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 전번에 왔을 때 뒤울안은 통풍이 잘 안되기때문에 닭의 생육에 지장이 있다면서 여기다 옮기라고...》

한달전엔가 왔을 때 그랬었다는 생각이 났다. 그래 고개를 끄덕이는데 구분대장이 나를 쳐다보며 조용히 물었다.

《부장동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

속으로 반문하며 나는 그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얼굴색이 좋지 않습니다.》

슬며시 시선을 떨구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는데 그의 말을 속으로 받아외우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동문 가서 할일을 하시오. 난... 좀 혼자 있고 싶구만.》

구분대장은 의아쩍은 눈길로 나를 쳐다보다말고 말없이 거수경례를 붙이더니 돌아서 가버렸다. 병실 옆모서리로 천천히 사라지는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그가 던진 말을 무심중에 되풀이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 무슨 일이...》

그렇다. 있었다. 오늘아침 나는 이미 달포전에 제대명령서를 받은 부참모장동무를 떠나보낸것이였다. 제대된 부참모장동무로 말하면 나와 또 다른 한사람과 합하여 우리 부대에 셋밖에 안남은 전쟁로병이였고 나이도 동갑으로 그는 12월생이고 나는 11월생이였다.

나는 주체39(1950)년 8월에 초중을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했었고 그들은 주체41(1952)년에야 군복을 입었었다. 나는 조국해방전쟁전기간 전선동부에서 싸웠고 그들은 서부와 후방에서 싸우다보니 전쟁때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그들을 알게 된것은 10년전부터였다.

올해(주체84년)에 우리는 다같이 예순돛을 맞았다. 그러나 예순돛생일상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해놓은 일이 적다는 자격지심때문이었다고 할가. 좀더 솔직히 말하면예순돛생일상을 받는것이 곧 자신의 군사복무에 스스로 종지부들 찍는것으로 되는것 같은 속생각때문이었다.

그랬는데 이해에 나를 제외한 그들 두사람 다 한달간격을 두고 제대명령서를 받은것이였다.

입대와 복부 그리고 제대.

이것은 군복을 입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겪어야 할 과정이다. 사람에 따라 입대날과 복무년한, 제대날이 서로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피할수는 없다. 하여 제대명령을 받고온날밤 우리는 범상하게 마주앉아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해야 늘 주고받곤하던 전쟁때 이야기, 전후복구건설시기의 이야기 등... 서로가 서로를 모를 때의 이야기들이었다. 이젠 너무나 들어서 자기의 일처럼 잘 알고있었지만 우리는 누구도 그런티를 내지 않았다. 좌중에 다른 감정이 엿쉬이는것을 누구도 원치 않았던것이다. 그저 보통날처럼 평범하고 범상한 감정이기를 내심 비라고들 있었던것이였다.

하지만 막상 그를 떠나보내는 마음은 결코 범상하지 않았다. 범상할수가 없었다. 그래 머리속에 달라붙어 떨어질줄 모르는 그 생각을 쫓아버리려고 초소에 나왔는데 그만 구분대장동무한테 잊으려 했던 속마음을 드러내보인것이였다.

표리를 달리해야 하는 로련한 정탐일군이 아니고서는 속에 품은 생각, 특히는 심장을 더위잡는 감정을 도무지 숨겨낼수 없는것이 바로 인간의 천성인것 같다. 나더러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격정스레 묻던 구분대장동무도 부참모장동무가 제대된것을 알면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못할것이였다.

사실 부참모장동무는 시인에 가까운 사람이였다.

《나의 조국》이며 《어머니》며를 쓴 현대시인들은 물론 우리 나라 초기 프로레타리아문학건설시기의 리상화며 김소월이며 박팔양을 거슬러 중세문학을 대표하는 김시습과 최치원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훈련장의 월참 오락회때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 데 저 혼자 슬그머니 일어나 만성적인 기관지천식때문에 섹섹하는 목소리로 김소월이나 박팔양의 시들을 곧잘 읊곤하였다.

...

이 가난한 시인더러  
진달래꽃을 노래하라 하십니까

...

국화처럼 오래오래 피지도 못하는 꽃을  
백일홍처럼 붉게붉게 피지도 못하는 꽃을  
노래하느니 차라리 불들고 울것이외다

...

그럴 때면 조국이 없던 그 세월의 울분이 그의 눈가에 번뜩이였다.

몇십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당시의 시인이 탄생하여 시를 읊조리고있는듯한 환각에 듣는 죄중도 눈물이 핑 돌곤하였다.

군사일군으로서는 보기 드문 서정가, 감정가였다. 아니, 잘못말했다. 그는 그야말로 군사일군다운 군사일군이였다.

군사가란 무엇인가?

총과 대포와 작전지도로 이루어진것인가? 아니다. 총을 다루고 대포를 다루는 사람, 작전지도우

에 그려진 화살표와 각종 군사전술부호들을 따라 걷고 뛰고 총포를 쏘며 싸우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총체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군사가는 작전지도와의 사업보다 사람과의 사업을 우선으로 틀어쥐고 나가는것이다. 그런데 서정이 메마르고 감정이 없다면 어찌 되겠는가? 있어야 한다.

그에게는 그것이 넘치도록 있었다.

예순살이 넘도록 마음의 밑바닥이 늘 생활로 젖어있었고 감정의 굵이 마를줄 몰랐다.

그런 그가 제대되였다.

군복을 입고 예순살을 넘긴 대좌!

섭섭할것이 없었지만 허전한 마음은 어쩔수 없었다.

부참모장동무는 바래주러 마당으로 나온 내 손을 붙잡고 웃으며 말했었다.

《부장동무, 최고사령관동지의 은덕이 고맙수다. 별로 능력도 없고 해놓은 일도 없는 나같은걸 환갑이 넘도록 군복을 입게 해주셨으니... 며칠전에 로친한테 제대될것 같다는 말을 슬그머니 비쳐봤더니 <령감, 됐수다. 군대에서 예순살을 맞구 제대되는건 최우등졸업이라구들 합디다.>이러질 않겠소. 허허, 한평생 같이 살면서 우리 로친이 그렇게 유식한 말을 하는걸 처음 들었수다.

물론 로친네 말이 그런데야 없지만 내 마음 갈아서는 군복을 입고 한생을 마치고싶단 말입니다. 또 그게 진짜 최우등졸업이 아니겠소?》

《웁소, 그게 진짜 최우등졸업이지.》

물은 그의 음성도 어쩐지 젖었고 받는 나의 음성도 역시 젖었다.

무엇때문에 젖었는지 그것을 그 순간에 설명해낼 길은 없고 단지 귀전에 와닿는 먼먼 목소리가 있었다.

《어머니, 최우등졸업을 했어요.》

그것은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기전해 가을 우리 마을에서 백리나마 떨어져있는 읍에서 초중을 졸업하고 돌아온 날 밤 어머니앞에서 한 나의 말이었다.

그 순간 부참모장동무는 최우등으로 마친 고중졸업의 날을 생각했을런지도 모른다. 했다면 그도 분명히 밝고 명랑하게 울렸을 자기의 옛목소리를 기억해냈을것이다.

꼭같은 최우등졸업인데 입에 올리는 그 어조는 판판으로 달랐다. 하나는 기쁨으로 맑고 하나는 무엇때문인지 젖고... 그래선지 텅빈 초소뒤마당에 서있는 그 순간에도 아침에 주고받은 그 음성이 귀전을 다시금 아프게 울렸다.

《웁지요, 최우등졸업이?》

《웁소, 최우등졸업이...》

최우등이란 무엇인가?

학교들에서 수학, 물리학, 생물학, 력사학, 지리학, 문학 그리고 도덕품행에 이르기까지 5점만점을 받은 학생에게 주는 성적이다. 하다면 군대에

서는 어떤 때 최우등복무로 되는가? 물론 군대에서도 학교에서처럼 새 학년도 훈련때마다 매해 반복하여 배우는 과목들이 있다. 우리 지휘관들의 경우는 년에 한번씩 꼭꼭 반군하는 조상학이라는 것도 있다. 여기서 《우》, 《량》, 《급》 해가지고 군대식으로 점수도 매기긴 하지만 어쨌든 군대에서는 대학이나 고등중학교들에서처럼 최우등생이니 우등생이니 하는 밀을 즐겨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놓고볼 때 다시금 물고싶다. 군사복무의 최우등졸업이란 무엇인가? 지금은 그 대답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그날에는 대답이 궁해졌다. 알듯말듯하면서도 딱히 이거다! 하고 찍어 말하기 어려웠다.

나는 좀처럼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 그 질문을 안은채 천천히 뒤마당을 돌아보고 앞마당으로 나왔다. 무기소제장에서 근무교대를 마친 전사들이 무기소제를 하고있었다. 체육장에서는 웃동을 활 벗어내친 병사들이 울근불근한 근육을 자랑하며 기계체조훈련을 하고있었다. 나도 한때는 온 군단을 들썩 들썩다놓는 권투선수였다. 기계체조선수였지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아주 귀중한것을 속절없이 잃었을 때처럼 마음속 한구석을 아프게 자극하며 뇌리를 얼릴 스쳐지나갔다.

발걸음은 저도 모르는 사이 마당을 꿰질러 대동강가로 향해졌다.

4월의 따뜻한 봄해빛이 반짝반짝 부서지는 강우로는 크고작은 짐배들과 러객선들이 흰 물갈기를 일쿠며 천천히 미끄러져가고 펄 살찌보이는 갈매기들과 몸매가 갈람하고 동작이 민첩해보이는 흑갈색의 물오리들이 수면위로 ,스칠듯이 내려쫓지다 가는 내릴 때처럼 기운차게 솟구쳐오르곤 했다.

(이 강을 거슬러 가고가노라면...) 하는 생각이 문뜩 떠올랐다.

대동강만 보면 언제나 들군하는 생각이였다. 하지만 언제 한번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앉아있을 겨를이 없었다. 아니, 그런 감상적인 생각에 잠겨있을만한 정신적여유가 없었다고 할가,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고 할가...

그러나 그날에는 이무리 쫓으려 해도 그 생각이 좀처럼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강을 거슬러 가고가노라면...)

그렇다. 대동강을 거슬러 가고가노라면 이 강이 시작되는곳에 나서자란 나의 정든 고향마을이 있다. 미림갑문을 지나 강동으로 해서 북창에 이르러 깊고 좁은 득장골에 들어서 대동강은 점차 폭이 가늘어지다가 덕천,녕원땅에 이르러서는 아주 내물처럼 되어버린다. 바로 그런 자그마한 골짜기중의 하나인 철치골이간데가 나의 고향이다. 뽕나무가 많고 누에고치를 많이 내는 고장이라 하여 잠상리라고 이름붙은 거기서 나는 세상에 태어났고 자랐으며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열여섯 어린 나이에 충을 메고 전선으로 나왔다.

우리 나라 그 어디를 가보아도 그렇듯이 내 고향은 참으로 아름다운 고장이다. 물이 많고 산세가 기기묘묘하고 들에는 곡식이 잘되고 사람들의 마음씨 또한 비단같이 곱고... 골이 깊고 산이 높은곳이긴 하지만 물량이 풍부한 대동강을 끼고있는데다 아래로는 예로부터 인종이 많고 산업도 제법 흥했던 순천땅을 딛고 우로는 버덩이 넓고 탄이 많아 살기가 좋은 덕천땅을 이고앉은 고장이다보니 고구려때나 고려때 외래침략자들과의 싸움의 불이 지나간 흔적도 많고 그와 관련된 전설도 많은 땅이였다.

나는 그 전설들을 주로 할머니한테서 들었다.

여름날 저녁이면 모기쑥 타는 연기가 자욱한 방에다 우리 다섯남매를 앉혀놓고 할머니가 해주던 많고많은 이야기중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다. 그중의 하나가 《뒤집바위》니 《개바위》니 하는 이름들을 가진 우리 마을의 기묘하게 생긴 바위들에 대한 전설이고 다른 하나는 《룡소》니 《어미소》니 해가지고 대동강에 깃든 전설들이였다.

우리 마을에서 강을 따라 조금 우로 더 올라가면 강기슭에서부터 산우로 벼랑에 가까운 경사를 이루며 높이 솟은 미끈하고 편편한 바위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바위를 《뒤집바위》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어째서 그런 괴이한 이름이 붙었는지도 모르고 어른들이 부르는대로 같이 불리는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그 바위이름에 우리 고장 옛선조들의 높은 애국정신이 깃들어있었다.

고구려때 외래침략자들이 쳐들어와 나라에란이 일어나면 마을 좌상로인의 주관하에 마을장정들이 그 바위우에서 자기들의 육체적준비상태를 시험받고는 곧장 싸움터로 달려가군하였는데 그 시험이라는것이 랑손을 허리뒤에 모아 뒤짐을 지고 50메터가 실히 되는 그 경사바위를 단숨에 오르는것이였다. 조금만 주춤거려도 시험에서 가차없이 불합격을 당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난 뒤 우리는 그 바위앞에 달려가서 옛선조들식으로 뒤짐을 지고 바위정점을 향해 단숨에 달려올라가는 내기를 해보았다. 하지만 우리포래 아이들중에는 그 《시험》에 합격되는 아이가 한명도 없었다. 열대여섯살 먹은 형님들속엔 물론 힘들게지만 더러 합격되는 축들이 있었다.

미국놈들이 이 땅우에 전쟁의 불을 지른 50년 그해 여름, 우리는 한시바삐 전선으로 달려가고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군사동원부로 뻔뻔하게 오르내리다보니 전선으로 떠나는 날에도 그 《뒤집바위》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고있었다.

그랬는데 전선으로 떠나가는 우리를 바래주려나왔던 마을의 좌상할아버지가 우리들을 쫓돌러보더니 《뒤집바위》에 들렀다 왔느냐고 묻는것이였다. 그제서야 그 바위생각이 난 우리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뿐 대답을 못했다.

좌상할아버지는 시허언 장미를 쫓다하더니 조상전례로 내려오는 마을의 법도를 어겨서는 안된다면서 우리를 데리고 《뒤집바위》가 있는데로 갔다.

온 마을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 여섯이서 치른 그 시험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마을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서서 지켜보았고 우리는 온몸의 힘을 다 모아 그 시험을 치르었다. 여섯중 제일 어렸던 관계로 나는 맨 나중에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솔직한 말로 나는 그 시험을 뺏뜨림에 두키로는 실패할 모래주머니를 달고서야 겨우 합격한 군사동원부의 신체검사시험보다 더 힘들게 치르었다. 《힘들게》라는 표현에는 좀 어폐가 있다. 정확하게는 더 엄숙한 심정으로 치르었다. 나는 두근두근 방망이질하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이를 꼭 악다물고 한걸음한걸음 침착하게 그러면서도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가며 단숨에 그 바위를 올랐다. 그렇게 바위정점에 다 오르자 아래편에서 지켜보던 어른들이 소리없는 웃음을 보내주었다. 박수를 치는 사람은 없었다. 박수를 쳐주기에는 아마 그 장소에 너무나도 심각한 의미가 깃들어있었던때문이었는지...

얼굴에 함뿍 내뿜은 땀을 씻으며 바위를 내려서는 나를 좌상할아버지는 말없이 잔등을 두드려주었고 어머니는 웬일인지 품에 꼭 껴안고 소리없이 울었다. 아직 철도 채 들지 않은것이 전선에 나가겠다고 어른같은 큰애들과 섞여 돌아가는 모양이 가슴에 걸렸던 모양이었으리라.

시험을 다 치르자 좌상할아버지가 우리를 세워놓고 연설이라기보다 어딘가 격조한 어조로 타이르듯이 조용히 떠들떠들 말하는것이였다.

《이제 전선에 나가 싸움을 하느라 죽기로 힘을 때가 많을게다. 오늘의 이 시험에 비기겠느냐? 그럴 때마다 이렇게 시험을 치고나가 잘 싸운 선조들을 생각하거라.》

사실 전선에 나가 싸우는 동안 좌상할아버지의 그 말을 잊은적이 없었다. 좌상할아버지는 우리들 먼저 시험을 치르고나기 잘 싸운 먼먼 조상들을 잊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한것은 우리들이 치르고온 시험 그자체였었다. 나에게로 향해졌던 마을사람들의 그 소리없는 웃음이며 나의 잔등을 두드려주던 좌상할아버지의 그 다정한 손길이며 나를 안아주던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이며... 그것이 어려울 땐 모자라는 힘이 되어주고 신심이 부족할 땐 엄한 채찍이 되어주었다고 나는 믿는다.

그 《뒤집바위》를 얼마 못미처 묘하게 생긴 산굽인돌이에 둥그스름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벼랑이 나지고 그 벼랑을 뚫아오르면 밑에서는 전혀 알려지 않는 동굴입구가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 산벼랑을 가리켜 《개바위》라고들 했다. 어느쪽에서 어떻게 보든지 조금도 개모양을 닮지 않은 그

벼랑에 그런 이름이 붙은데는 역시 그럴만한 전설이 있었다.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통치배들이 우리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외래침략자들을 끌어들여 백제를 병탄하고 북쪽의 강국인 고구려를 앞뒤로 협공해들어오던 그 시기에 있는 일이라 한다.

한피줄을 이은 동족의 너절힌 배신행위로 외래침략자들의 노예로 전락되게 된 그 모욕을 참을 길이 없어 방방곡곡에서 청장년들은 다 싸움터로 떠나가고 많은 아녀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던 그때 사랑하는 남편을 전장으로 배웅해주고 돌아오던 우리 마을의 젊고 뛰어나게 용모가 고운 한녀인이 그새 벌써 아래마을인 봉창리까지 들어온 외래침략자들이 잠상리쪽으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은것은 바로 그 산벼랑밑에서였다. 뒤에도 적, 앞에도 적, 옆으로는 발붙이기조차 어려운 산벼랑... 너는 빠질데가 없다는것을 깨달은 녀인은 벼랑아래 평평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큰소에 내려가 맑은 물에다 빗을 적셔가지고 삼단같이 함함한 머리를 빗었다. 마지막 몸단장을 하는것이였다.

푸른 산, 푸른 하늘이 그대로 비껴흐르는 맑은 물에다 아직도 님과의 작별로 붉어진 수집음이 채 사라지지 않은듯 발그레 홍조된 얼굴을 비쳐보며 정히 머리를 빗던 녀인은 뒤쪽에서 무엇인가 킁킁거리는 소리에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뒤쪽의 물덕 조그만 바위우에 흰 강아지 한마리가 덩그러니 올라앉아 녀인을 굽어보며 킁킁 소리내어 울고있었다.

(너도 집을 잃고 주인도 잃고 이렇게 강가에 홀로 나앉았구나.)

그놈이 무척 불쌍한 생각이 든 녀인은 빗을 손에 든채 강아지한테 다가갔다. 그러자 그놈은 기쁜듯이 더욱 킁킁거리며 녀인의 치마폭에 마구 감겨들었다.

(너도 사람을 만나니 반가운 모양이구나.)

저도 모르게 솟아오른 맑은 눈물이 녀인을 울려다보며 분명 무슨 말인가 하는듯싶은 강아지의 눈에 점점이 떨어져내렸다.

아래마을쪽에서 어지러운 말발굽소리가 들려온것은 그무렵이였다. 놈들의 기병대가 벌써 가까이 오는 모양이였다.

강아지의 눈언저리에 떨어져내린 자기의 눈물 자욱을 씻어주고난 녀인은 그놈의 머리를 벼랑뒤 숲으로 향해 세운 다음 가볍게 엉치를 때려 쫓았다.

《저놈들이 달려들기전에 어서 숲에 들어가 숨어라. 그래야 산다.》

몇걸음 쫓기는듯하던 강아지가 인츰 돌아서 다시 오더니 이번에는 녀인의 치마폭을 물어당기며 킁킁 울어댔다.

이놈의 강아지가 왜 이렇가? 혹시 겁먹은게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든 녀인은 점점 더 가까와오는 말발굽소리를 잠시 여겨듣다말고 강아지를 안고 행길을 건너갔다. 벼랑과 숲이 맞붙은 어름에



다 강아지를 가져다놓고 가느다란 회초리로 몇대 때렸다. 깨갱-하고 몇걸음 도망치던놈이 이번에도 다시 돌파서서는 애처로운 눈매로 녀인을 쳐다보다가 공공 앓음소리를 내며 돌아서 걷기 시작했다.

이제는 가려는가부다하고 강쪽으로 돌아서 한 두걸음 옮겼는가 했는데 또다시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돌아서보니 저만치 가선채 이쪽을 바라보던 강아지가 녀인과 눈길이 마주치자 살래 살래 꼬리를 저으며 다시 돌아서 숲쪽으로 종종

걸음을 놓는것이였다. 그렇게 종종걸음을 놓다 가는 돌아서 녀인을 빠르게 쳐다보고 그러다가는 다시 돌아서 걷고... 혹시 이놈의 강아지가 날 어데로 데려가려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피뚝 떠오른 녀인은 그놈의 뒤를 따라 주춤주춤 걷기 시작했다. 어둑컴컴한 숲그늘이 드리운 수림속으로 한참 올라가니 두개의 커다란 바위가 이마를 뚫 마주대고 서있는 째새로 꼭 한사람이 모로 들어갈만한 굴아구리가 나졌다. 의아쩍은 생각으로 거기까지 따라온 녀인을 할곳할곳 돌아다보며 그 굴속으로 들어가버린 강아지가 얼마 안있어 빠르게 대가리를 내밀고 또다시 공공 앓음소리를 냈다.

녀인이 굴아구리에 다가가자 울기를 그만둔 강아지는 굴안으로 들어갔다. 녀인도 따라 들어갔다. 한참 어둑속을 더듬어 들어가보니 곁에서 보기와는 달리 꽤 깊고 넓은 동굴인데 굴아구리에서부터 꺾임목마다 번쩍번쩍하는 석영이 박혀있어 바깥빛이 넓은 굴안까지 희빛하니 반사되어 비쳐왔다. 굴안쪽에는 언제 누가 가져다놓았는지 알수없는 산열매며 감자며 조이삭 같은것들이 쌓여있고 동굴바닥으로는 물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숨어살면 되겠구나!)

강아지가 왜 그토록 안타까이 자기를 여기로 유인해왔을가 하는 그 말 못하는 뜻을 그제서야 알아 차린 녀인은 기쁜듯 정쟁이를 활으며 돌아가는 강아지를 품에 꼭 껴안아주었다. 그리고 그 날부터 녀인은 싸움터로 떠나갔던 남편네들이 원썩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 굴에서 강아지와 함께 살며 남편네들이 마을을 되찾는 성스러운 싸움도 힘껏 도왔다고 한다.

우리가 전선으로 떠나간 뒤의 일이지만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때에는 그 바위굴이 인민군대와 마을자위대가 순천쪽에서 북창, 덕천쪽으로 넘어오는 적들을 대복했다가 불이 나게 답새기는데 크게 리용되었다고 한다.

할머니가 들려준 옛 이야기, 물도 맑고 풍치수려한 내 고향의 그 바위 하나하나에 깃든 그 전설들이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구태여 론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린 나이에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포병정찰수로 싸우는 나날에 나는 가끔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이야기를 상기했고 그 비위들을 그려보곤하였다. 특히 전투가 뜸해졌을 때 나이많은 동무들이 모여앉아

구수한 담배연기를 피워올리며 두고온 고향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면 너무도 어린 나이로 북판에 나앉아 측에 끼우지 못하는 대신 눈앞에 고향의 《뒤집바위》며 《개바위》머를 조용히 그려보곤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나고 제대되었다가 곧 다시 군복을 입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안녕을 몸가까이 지켜가던 나날에도 그리고 예순살을 훨씬 넘긴 로병으로서 손자, 손녀들한테서 《할아버지》로 불리우고 부대에서는 가끔 직무나 군사칭호대신 《아바이》로 불리우는 지금도 그 이야기가 느닷없이 귀전을 울리고 그 바위들이 눈앞에 선히 밟혀오며 평리한 강아지의 도움을 받았다는 그 녀인이 바로 나의 어머니인듯이 친근하고 가깝게 생각키우곤한다.

애국심이란 어떻게 생기는것인가?

조국애란 무엇을 바탕으로 생기는 감정이겠는가?

여기서 새삼스레 이렇다, 저렇다 하고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얼마나 많은 문필가들이 시와 소설, 영화들에서 그것을 애써 증명했던가! 그 모든 주의와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조국애란 하루아침에 비온 뒤 참대순 자라듯이 불쑥 자라 올라 온 녂을 메우는 그런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사는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아끼고 사랑할줄 알며 고향의 이름없는 바위돌 하나, 내물 한줄기에 깃든 선조들의 녂을 알도록 교양해야 한다고 그토록 간곡하게 가르쳐주고계시지 않는가!

나는 강기슭에 한벌 널린 동글납작납작한 조약돌중에서 눈에 걸리는것을 하나 골라잡았다. 메추리알만큼한 크기의 조약돌이였다. 색깔도 거뭇거뭇한 바탕에 흰점이 드문드문 박히고 푸릇푸릇한 얼룩이 그려진것이 신동히 메추리알 비슷한데 나에게서는 그것이 우리 마을의 그 《뒤집바위》에서 떨어져내린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우리 마을의 그 《뒤집바위》도 전체적으로 메추리알색같이었던것이다.

과연 그럴수 있지 않을까? 그 바위의 어느 한 귀퉁이에서 떨어져내린 조각이 아닐까? 떨어져내릴 때에는 호박이나 동이만큼 큰데다가 모가 삐죽삐죽했던것이 여기까지 흘러내려오는 사이 이처럼 동글납작하게 모가 닳고 줌안에 쭉 들도록 조그마해지게 아닐까!

나는 나의 어린 시절 자취가 스민 귀중한 유물이라도 찾아권듯한 희열을 맛보았다. 그 희열은 참으로 오래동안 내 가슴속을 후덥게 해주었다. 나에게서는 끝없이 흘러내리는 대동강이 아득히 잊혀져버린 나의 어린 시절 흔적들을 싣고 내앞으로, 내앞으로 끝없이 소리치며 흘러드는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나는 츤츤 기슭을 스치며 유유히 흐르는 강을 거슬러 천천히 걸었다. 발밑으로 파릇파릇한 잎새를 내민 새싹들이 뻗히 내려다보였다.

그렇다. 어언 봄이 왔다. 아니, 봄이 온지 이미 오래다. 길쭉구며 물쭉이며 민들레며 한것들이 양지바른 강기슭에 연연한 잎새를 내민지는 벌써 이슥하고 산기슭의 진달래도 망울이 부풀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그곳엔... 나의 고향집이 있는 찻지골에서는 이제야 눈석이가 한창이고 강물도 흙빛으로 붉게 물들었을것 이다.

눈석이때의 그 붉은 물을 우리 마을에서는 겨울잠을 잔 룡이 돌아누우면서 흐려놓은 흙탕물이라고들 했다. 그러면 대동강엔 전설의 룡이 과연 있었던 말인가.

아버이수령님께서 자주 말씀하신것처럼 대동강류역일대는 석회암지대로 곳곳마다 물에 석회암이 풀리며 생긴 자연동굴들이 많았다. 우리 마을에서 웃쪽으로 퍼그나 올라가면 희속희속한 석회암동굴밑에 맑은 물이 팔팔 흘러나오는 큰 소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소를 가리켜 《룡소》라고 불렀다. 그 동굴밑에 커다란 룡이 들어앉아서 큰물도 일으키고 가물도 내는 등 물을 가지고 갖가지 조화를 부린다는것이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4월하순쯤 되면 그 동굴밑으로 검붉은 물이 룡트림하듯 고괘치며 흘러나오는것으로 실명했다. 겨울동안 잠자던 룡이 곤잠을 깨고 돌아눕느라고 생긴 흙탕물이라는것이였다. 그리고 그 흙탕물이 일어난 다음날부터 씨뿌리기를 시작하곤하였는데 간혹 그것이 늦어지면 사람들은 그해 절기가 늦어지는것을 룡의 게으름에 빙자하여 《저놈의 룡이 금년에는 왜 저리 오래 자는거요?》 하고 없는 룡을 욕하곤하였다.

지금은 다 옛말로 되었지만 이렇듯 항간에서는 자연철리에 맞지 못한탓으로 분명한 과학이 때로는 비과학적인 전설로 전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것이다.

얼마전에 《로동신문》을 보느라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동강에 숨어들어 갇은 천지조화를 다 부리던 다섯마리의 룡을 휘잡아 서해, 미림, 봉화... 등 여러개의 갑문을 세워주시여 대동강류역의 사람들은 억년 자연재해를 모르고 살게 되었다고 쓴 기사가 실렸었다.

과연 옳은 비유이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이지만 머나먼 옛날부터 태수로 불리워오는 대동강을 길들여 우리 인민에게 억년 복만을 주는 락원의 강으로 만드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은 항일혁명투쟁의 어렵고 간고한 나날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된것이였다. 아니, 여기 대동강기슭의 작은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유년시절을 눈물많은 대동강과 더불어보내시며 그 강이 류역인민들에게 입히곤하는 큰물재난을 가슴아프게 체험하시던 그

시절에 심장속깊이 새겨안으신 구상이 아니겠는가!

(순진한 우리 마을 어른들이 지금도 살아들 있었으면...)

불쑥 치미는 그리움 비슷한 감정을 안고 강웃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느라니 언제인가 대동강의 시원을 찾아 떠났던 생각이 났다.

...우리 일행은 해마다 방학때면 멋진 중학생모자를 빼딱하니 제껴쓰고 마을에 있는 친척집으로 놀러 오곤하던 열대여섯살난 읍거리의 중학생과 열뒤살짜리 동네아이들 셋 그리고 열살도 채 안된 나까지 모두 다섯이였다.

우리가 마을에서 백리도 훨씬 넘는 가린봉으로의 탐험의 길을 떠나게 된 동기는 간단했다.

어느날 한무리의 떼몰이꾼들이 마을어구에 있는 강기슭의 너부족한 바위우에다 발구에 싣고온 음식들을 퍼놓고 뒤시간가랴 쉬여간적이 있었다.

그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말하자면 얼음이 완전히 풀렸다가 다시 얼 때까지 우리 마을앞을 지나 흐르는 강물을 따라 긴 떼를 물고 내려갔다가 다음날 말발구를 타고 다시 마을앞 행길로 해서 토장까지 올라가곤하는 떼꾼들이였다.

그때 우리는 그들이 퍼놓은 음식에 끌렸던지 아니면 용감한 사람들의 상징으로 여겨오던 떼꾼들에 대한 호기심에서였던지 슬금슬금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러자 떼꾼들은 우리를 옆에 붙들어 앉혀놓고 민물고기자반까지 입에다 넣어주며 가린봉에서 잡아온 산천어라고 하는것이였다.

《아니 가린봉에도 물이 있게요?!》

누군가가 의아쩍어하며 물어보았다.

《있지 않구, 커다란 호수가 있다.》

《저 룡소보다 큰거요?》

《아무렴, 더 크고말고. 거기서부터 이 대동강이 시작되거든.》

《그럼 거기에 이런 고기도 있니요?》

《있지, 팔쪽시만한것들이 옥실옥실하단다. 너희들도 한번 가봐라. 아니, 못갈게다. 못간다. 길이 대단히 멀고 험하거든.》

이 말을 남긴채 그들은 가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위돌우에서 날이 어둡는것도 모르고 열렬히 론쟁하였다. 얼굴들이 벌개가지고 손을 뻗뻗 내저으며 갑론을박했다.

론쟁의 초점은 하나였다.

가린봉우에 과연 그렇게 큰 호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처음 론쟁에 올랐으나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느라 이제 가보면 알게 아니냐는 식으로 곧 중동무이되고말았다. 래일 당장 그리로 탐험을 떠나자는 의견도 더 론할것 없이 의견일치를 보았다. 어느 한 아이도 가보고싶지 않은 아이는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아이들보다 네댓살이나 아래인 나를 데리고가느냐 떨궈두고 가느냐 하는것

이었다. 물론 나는 무조건 가야 한다고 고집했다. 다른 고장에서 놀러 온 중학생이 완고하게 반대하는 립장이었다. 하루동안에 백리도 넘는데를 갔다와야 하는데 아홉살짜리는 어방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갔다올수 있다고 딱딱 울리받쳤다. 나이로 보아 둘째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앞마을 아이가 내편을 들어주었는데 그는 내가 역빠르다는 것을 큰애들에게 납득시키려고 별의별 말을 다 했다.

《차손인(나는 우리 집에서 둘째였던 관계로 그렇게 불리웠다) 아이는 작아도 못하는 일이 없어. 난 못했지? 전번에 저 어미소밀에 짬봉해 들어가 바닥에 까맣게 갈았은 밤을 건져다 먹을 때 차손이 제일 많이 건져왔었어.》

《맞아. 물에서 짬봉도 제일 잘하지만 밤팔 땀 나무우에도 제일 높은데까지 기여올라가.》

그런식으로 아이들이 나를 잔뜩 취울리는 바람에 중학생도 어찌지 못하고 데리고가는데 동의하였다. 그대신 어른들모르게 마련해야 할 준비품에서 밥을 지어먹을 냄비와 쌀은 내가 맡아야 했다. 그리고 탐험대의 우두머리격인 중학생의 심부름은 전적으로 내가 하기로 했다.

그래도 나는 좋았다. 내포래의 다른 애들은 염두도 내지 못할 대동강의 시원을 제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이었다.

언젠가 텔레비전으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인 히말라야의 주물랑마봉을 제일먼저 정복한 어떤 탐험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될 때 나는 주물랑마봉으로 이끌린 그 탐험가의 심정과 가린봉으로 가던 우리의 심정이 어찌면 비슷했을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탐험이란 어찌보면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라고 할수 있다. 저 산우에 무엇이 있는가? 저 아스라한 절벽우에 물이 있다니, 과연 있긴 있을까? 거짓말이 아닐까? 저 깊디깊은 수림속, 시퍼런 대낮에도 해빛 한점 스며들지 않는 저 울울창창한 대수림속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나무는? 짐승들은? 그들은?... 등등 이러루하게 련속 꼬리를 물고 머리속에 떠오르는 갖가지 의문들이 불려내는 호기심에 이끌려 한자욱 두자욱 미지의 세계로- 아찔한 벼랑과 무시무시한 수림속, 깊디깊은 해저로 육박해가는 것이 탐험이 아니겠는가?

물론 어른들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탐험가들인 경우에는 학술적성격을 띠겠지만 그 학술적성격이라는것도 어쨌든 레의 단순한 호기심을 전제로 하는것만은 사실인것이다. 지구가 둥글다는것을 목숨을 내건 해상탐험으로 증명한 마젤란이나 벌써 십여세기전에 중국대륙으로 해서 오늘의 인디아, 이란 등 동방일각을 다 밟아본 우리 나라의 최초의 탐방가 해초도 어쨌든 거기엔 무엇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살고있을까 하는 호기심을 안고 출발했을것임에 틀림없다.

밥 지어먹을 냄비를 가만히 꺼내는것도 그리 쉽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내내 열쇠를 몸에 간수하고 다니는 함통안의 쌀을 가만히 꺼내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어서 나는 생각다못해 모든 것을 할머니한테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했다. 단지 가린봉으로 간다는 말은 안하고 뒤산골짜기에 가서 야유회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할머니는 산불을 주의하라고 거듭거듭 주의를 준 다음 부모들 모르게 퍼그나 되게 쌀을 꺼내주었다.

우리는 부지런한 어머니들도 아직 깨기전인 어둑새벽에 마을동구밖까지 각개로 빠져나와 모인 다음 곧 떠났다. 집을 나설 때 할머니는 삿잡문밖까지 따라나오며 늦지 말고 돌아오라고 신신당부했다. 나는 늦으리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찍 오겠다고 대답했다.

그 탐험길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는것은 이루 말할수가 없다. 우리 마을에서 가린봉까지의 거리는 백리가 아니었다. 이백리도 훨씬 넘는 길이였다.

우리는 이틀밤을 중도에서 로숙하면서 사흘째 되는 날 그것도 중낮이 되어서야 가린봉우에 올랐다. 들던것보다는 그리 높지 않은 산봉우리였다. 그런데 산우에는 그렇게 바라고 온 호수가 없었다. 잔디도 아니고 새초도 아닌 잡풀이 한벌 쪽 깔린 넓고 평퍼짐한 구덩이가같은것이 있을뿐이었다. 놀라운것은 구덩이가끼이의 풀포기들을 밟자 물이 한발씩 튀겨오르는것이였다. 좀더 내려가자 풀잎과 나무잎에 덮인 물이 나졌다. 호수라고는 볼수 없었지만 여름내 물이 고였다가 가을부터 봄까지는 말라버리곤하는 계절호수쯤 되는것이였다.

고기는 없었다. 하긴 그리로 통한 강줄기가 없는데 고기가 있을리 없었다.

큰 호수를, 그보다는 팔뚝시같은 고기를 바라고 왔던 우리로서는 허전하기 짝이 없었지만 우리고장에서 아직 누구도 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을 밟아보았다는 긍지만은 감출수 없었다. 만일 그 궁지마저 없었더라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 이틀동안 신고하여 돌아올수 없었을런지도 모른다.

집에 돌아오니 온 마을이 떨쳐나서 대소동이였다. 하긴 다섯집의 다섯아이가 며칠동안 어디 간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사라져버렸으니 소동이 일어날수밖에 ...

생각외로 누구보다 경을 덜 친것은 나였다. 자초지종을 다 듣고난 아버지는 그 큰 주먹으로 내머리를 한대 쥐어박더니 《망할녀석, 남의 집까지 들어다주면서 그런 걸음을 해? 미물같은니.》 하고 한마디 핀잔할뿐이였다.

아버지로서는 아마 내가 가린봉에 갔다왔다는 사실보다 사내녀석이 남의 심부름꾼노릇을 했다는것이 더 거슬렸던것 같다. 하지만 그때로서는 그 말뜻을 인츰 이해할수 없는 나였었다. 그래 이제 더 크게 떨어질 된매를 기다리며 이마를 숙이

고 서있는 나의 턱을 꺾꺾하고 꺾꺾한 손으로 쳐들어 올린 아버지가 의외로 부드럽게 묻는 것이었다.

《그래, 산우에 호수는 있더냐?》

《없어요. 그저 물웅덩이가 있었어요.》

《고기두 없구?》

《없어요.》

《없어?!》

하더니 아버지는 왜그런지 히죽이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지금도 알 길이 없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허나 그것은 개별적인 어떤 사실, 사건들을 녀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다 말하지 않은채 품고간 마음속의 생각을 무슨 수로 알아낸단 말인가? 그저 이렇게 저렇게 제나름으로 추측할뿐인 것이다.

나는 지금도 아버지의 그 웃음을 상기하고는 여러가지로 가정해보곤한다.

아버지의 그 웃음이 지나가는 때군들이 취중에 던진 말을 끝이 듣고 그처럼 위험한 걸음을 단행한 철부지자식들의 행동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지은 어이없는 웃음이 아닐가? 혹은 우리 아버지도 그 가린봉에 올라가보지 못한것이 아닐가? 심분 그럴수도 있다. 그날 아버지자신이 은근한 호기심을 품고 호수가 있긴 있던가, 고기도 있던가 하고 물어보지 않았는가?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당의 부름따라 나보다 세살 맏이로서 인민학교 교원을 하던 형님과 한달간격을 두고 전선으로 달려나간 나를 두고 어머니는 이렇게 걱정했다고 하다.

《큰애는 듚적해서 별 근심이 없지만 차손이녀석이 맘뇌질 않수다. 그 발개돌이때문에 지휘관들이 어지간히 속썩일거우다. 몸성히 돌아오기나 할려는지?...》

그러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통을 놓았다고 한다.

《모르는 소리, 두고보오. 큰녀석은 몰라도 둘째녀석은 역빠르고 이악해놔서 꼭 몸성히 돌아오지 않나?! 내 말이 틀리나 두고보우.》

전쟁이 끝난 다음 제대명령서를 받고 돌아온 나를 붙잡고 어머니가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해주던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형님은 2차서울해방전투에 서 전사했다.)

그리고보면 그날의 그 미소가 무엇이든 일탄해보고싶은 마음이 동하면 꼭 해보고야마는 나의 끈질긴 성미를 두고 대견하여 지은 웃음일수도 있다. 무엇에나 반응이 빠르고 승벽이 센 그 성격을 가지고 나는 오늘까지 살아왔다. 전쟁이 일어나고 한뜨래처럼 같이 뛰놀며 공부하던 형님들이 군대에 나가자 군사동원부에 가서 며칠동안 때

를 써가지고 열여섯나이로 군대에 입대한것도 어찌보면 그 성미의 덕이라고 생각된다.

그 성격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고 드물게지만 치하도 더러 받았다. 그 성격때문에 전쟁때에는 몇번 죽을고비에 들기도 했고 반대로 어쩔수 없는 죽을고비에서 요행 살아나기도 했다. 정전직후 민족보위성적으로 진행되는 체육경기때면 48키로 그람급 권투결승경기에서 늘 나의 적수로 맞다들리곤하는 전선서부의 사동탄광대기 분대장한테 번마다 지는것이 악에 받쳐 어느날엔가는 경기가 끝난 다음 그를 대동강기슭에 불러내어 권투장갑도 끼지 않은채 밤새도록 승부없는 《프로권투》를 하고는 아침에 화해의 잔대신 대동강물을 함께 떠마시고 헤어진적도 있었다.

정치부중대장을 거쳐 한개 부대의 정치일군으로 일해오는 지휘관시절에는 그 성미가 다른 중대, 다른 대대, 다른 부대보다 모든 면에서 어쨌든 앞서고봐야 한다는 고집같은 승벽으로 나타났다. 그래 아래일군들한테서 귀먹은 욕을 먹기도 했다.

그렇듯 세월가는줄 모르며 달려왔는데 어느덧 귀밑머리에 흰서리가 불리고 어چه밤에 동갑나이의 예순살을 넘긴 전우와 헤어졌다. 그러고보니 나도 벌써 예순살을 넘긴 대좌인이었다.

(세월이란 참 흐르는 물과 같다더니...)

뒤에서 누가 다가오는듯한 기척에 얼굴을 돌리니 꼭 졸라맨 군관혀피에다 권총을 단정하게 찬 직일군관이 몇걸을 뒤에 서있었다. 그뒤로 몇보쯤 떨어져 초소장동무가 따라왔다.

《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열네시까지 당중앙 위원회로 가야 한다고 곧 부대로 들어오랍니다.》

《당중앙위원회로?!》

《예, 당중앙위원회에서 부른답니다.》

직일군관은 보고를 시작할 때처럼 깍듯이 거수 경례를 붙이고는 돌아갔다.

병실담당모서리로 천천히 사라지는 그의 보습을 덤덤히 바라보면서 나는 잠시 그냥 서있었다. 그를 따라왔던 초소장동무도 나를 쳐다보며 잠시 말없이 서있었다. 그러다가 둘의 눈이 마주쳤다. 둘이 다 시선을 피했다. 보매 그편에서도 어쨌선지 나와 시선이 마주치는것을 꺼리는듯했다.

(무엇때문에 부를가? 혹시...)

느닷없이 머리속에 떠오른 그 《혹시》가 마음속 한귀퉁이를 짊 물고 놓아주질 않았다.

나는 얼핏 팔목을 들어 시계를 보았다. 시침과 분침을 갈라보지 못한채 눈길을 들었다. 초소장은 무슨 일때문에 직일군관을 따라왔었다는 말도 없이 술머시 내걸에서 물러났다. 나는 다시 시계를 보았다. 열네시까지면 인츰 떠나야 했다.

나는 천천히 초소를 향해 걸어갔다.

마당앞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던 운전사가 나를 보자 곧 차의 발동을 걸었다. 나는 거수경례를 붙이는 초소장동무의 손을 잡아주고는. 차에 올랐다.

무어라고 딱히 짚어 말할수 없는 의문을 담고 바라보는 초소장동무의 눈길을 뒤에 남긴채 차는 마당을 미끄러져나와 한동안 강을 끼고 달렸다.

(왜 부를까? 무슨 일로?)

착잡해지는 나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동강은 유유히, 어찌보면 너무도 무심한표정으로 흘러내리고있었다.

그 흐름을 거슬러 차는 천천히 달렸다. 반쯤 얼어놓은 유리문으로 쌀쌀하면서도 어딘가 푸근하게 느껴지는 봄기운이 흘러들었다.

(무슨 일로 부르는것인가?)

부대지휘부를 향해 달리는 차안에서 나는 줄곧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종시 이거다 하고 짚이는 생각은 없고 대신 제대된 부참모장동무의 너부죽하고 사람좋은 얼굴이 절로 더 오르며 그가 하던 말이 새삼스럽게 상기되었다.

《웁시오. 최우등졸업이 ?》

나는 귀에 매달려 떨어질줄 모르는 그 목소리를 잊으려고 애쓰며 차창유리를 더 내리고 강물 위에 눈길을 주었다.

강은 넓은 구름이 깔린 4월의 봄하늘을 비껴담고 유유히 흘렀다.

차는 패속으로 달렸다.

(저 강을 거슬러 가고가면...)

그러면... 나를 낚아주고 키워준 나의 고향이 있다. 여기엔 나의 인생의 끝점이 놓여있고 거기엔 시작점이 놓여있다.

나는 과연 그 고향앞에 부끄럽지 않게 한생을 산아왔는가?

사람들은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을 가리켜 한평생 조국땅을 활보해갈 첫걸음을 배워준 조국의 첫 트랙이라고들 하며 어린 시절 고향이 들려준 잊지 못할 이야기들을 가리켜 조국애의 첫 속삭임이라고들 한다.

그러면 나는 조국의 첫 트랙에서 익힌 걸음새대로 한평생 조국땅을 충직하게 밟아왔는가? 조국애의 첫 속삭임이 가르쳐준대로 한생을 살아왔는가? 이제라도 그 고향땅에 엎드려 최우등졸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땀땀이 말할수 있는가? 과연 《최우등졸업》이 웁진 웁는가?

나는 달리는 차안에서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그 물음들에 대답하려고 했다. 허나 부대지휘부로 의 길은 가깝고 대가 걸어온 한평생은 너무도 멀었다.

어느덧 차가 부대정문을 통과하고있었던것이다, 들어총 경례를 붙이는 보초병의 모습이 열어놓은 차창너머로 내다보였다. 그런데 늘 보아오던 그 모습이 그 순간에는 어쩐지 야릇한 느낌을 자아내는것이였다.

사무실에 들어가 정복을 갈아입고 당중앙위원회로 향해가는 동안에도 그 야릇한 심정은 내내 가슴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호에 계속)

## 감자오그랑죽

(총련) 안성미

조선사발에 듬뿍 담아준  
흰김이 오르는 감자오그랑죽  
감자가루 찜어서 빛은 오그랑  
그 맛도 수수한 죽이랍니다

대흥단의 그 인사법  
귀한 손님 찾아올 때며  
제일 선참 차려드립니다  
이 감자오그랑죽을

이역에서 찾아온 우리  
그 무슨 큰 일 했다고  
대흥단의 후한 인심 이 오그랑죽을  
그렇게도 눈물겹게 권하니까

한술갈 두술갈 또 한술갈  
목이 메여 못넘기는 구수한 죽물  
이역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대흥단이 마음쓰는 그 정에 울고웁니다

다시 올 땐 향기로운 곰취나물  
흰쌀밥에 고추장맛 보여주리라  
따뜻한 그 인정 그 말에  
술갈은 오르고 눈물은 내립니다

아 비록 수수한 죽이지마는  
감자향기 구수한 죽이지마는  
대흥단의 흙냄새 풍겨오는  
이 감자오그랑죽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이 오그랑죽이  
이국땅 남의 집 처마밑에서  
못견디게 안아보던 그 맛입니다  
어머니조국의 그 정입니다

아 우리 다시 조국을 찾아올 때엔  
대흥단의 흙냄새 풍기는  
수수한 이 오그랑죽을  
조선사발에 다시 듬뿍 담아주십시오

(조선대학교 문학부)

## 잊을수 없는 추억

손철남

사무실에 들어서자바람으로 울리는 전화종소리에 나는 이마살을 찌프렸다. 걸려오는 전화마다 물어달라, 해결해달라... 신경질이 날 정도였다. 심분 리해는 가지만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신경질이 앞서군한다. 그래 이번 출장길에 관리국에 들려 화물이삼아 손을 내밀어보았지만 본전도 못 찾고 돌아왔다. 하긴 《고난의 행군》에 이어 강행군을 하는 이때에 우에선들 무엇이 있어 척척 집어주겠는가.

수화기를 드니 역시 레외가 아니었다. 나는 방직공장의 녀성 지배인한테서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걸려오는 전화를 적당히 결속짓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출장길에서 지친 피로도 풀겸 목욕이나 하려고 보이라스일로 향했다.

나는 보이라스일에서 즐겨 목욕을 하군한다.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랄까 아니면 로동생활에서 굳어진 타성이랄까, 실은 이즈막에 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흘러간 생활의 달콤한 추억을 맛보며 자신에 대한 긍지를 느끼는 쾌감이라 하는것이 더 옳을것이다. 로동생활의 첫자욱을 보이라칸에서 뎌 나로서는 유별한 취미였다.

해는 아직 연기가 흰구름마냥 뭉게뭉게 피여오르는 보이라굴쪽에 걸려있었으나 3월의 쌀쌀한 바람은 복을 움츠러들게 했다. 나는 걸음을 다그쳐 보이라칸에 들어섰다.

비등식저열탄보이라의 고르로운 동음과 혼 혼한 연기는 나로 하여금 옛정을 느끼게 했다.

예나 다름없이 나는 열관리공들이 리용하는 휴게실이 결달린 목욕탕으로 곧바로 향했다. 이때 애젊은 청년이 목욕탕에서 불쑥 나오며 앞을 막아 나섰다.

《저기 종업원목욕탕이 있습니다. 지기로 가십시오.》

두볼에 솜털이 보르르 내돋힌 애호박같은 청년의 당돌한 행동에 다소 불쾌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나는 《왔던김에 좀 하면 안될가?》 하고 타협조로 아량을 보였다.

《안됩니다. 이제 우리 열관리공들이 교대를 하고 목욕을 해야 합니다.》

청년은 열관리공들의 존엄을 조금도 침범할수 없다는듯이 딱 잘라뎠다.

다행스레 조작실에서 나오던 원무기관장이 나를 띄여보았다.

《어서 들어가시오. 이 동문 며칠전에 들어와서 지배인동무를 잘 몰라 그러는데.》

예순살을 넘긴 기관장이지만 왕년에 짝 벌어졌던 어깨는 조금도 처진감이 없었다.

나는 우정 청년을 향해 위엄을 보이며 《그럼 해도 일없을가?》 하고 물었다.

순간 청년은 빨강게 상기된 동실한 얼굴에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기관장과 담배라도 한대 같이 피우고싶어 휴게실로 들어갔다.

《얼굴이 좀 상한것 같다. 어디 편찮소?》

그는 내기 내미는 담배를 받아들며 측은하게 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일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니다.》

《음, 요즘같이 어려운 때 지배인하기가 험하겠소. 힘들거웨다.》

《예.》

나는 기관장의 동정깊은 리해에서 새삼스레 옛정을 맛보며 로동생활와 첫장을 즐겁게 장식했던 휴게실을 둘러보았다. 방구조도 변하고 가구비품도 현대적인것들이다. 밤색으로 대우를 깨끗이 낸 앞상에는 도금을 해서 번쩍거리는 철의자들이 주런이 놓여있고 창턱에 놓인 화분들에는 갖가지 꽃들이 향기를 풍기고있다.

옛것을 찾아볼수도 없이 모든것이 변했다.

《난 여기서 일할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히허, 그때야 일밖에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너나없이 일하자는 생각뿐이었지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뎌 일할 재미가 있었는데.》

《그러기 지금 당에서는 그때처럼 살자구 하지 않소.》

《예.》

나는 원무기관장의 의미심장한 말을 긍정하며 방금 만났던 애젊은 청년을 생각했다. 어쩐지 어제날의 자신을 보는것만 같아 추억이 새로와진다. 그뎌 누구나 자기라는것을 잊고 일밖에 모르던 천리마의 벽찬 시대였다.

## 1

나는 로동생활의 첫날을 보이라칸에서 맞았다. 전선에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자 공장에 나갔다. 처음에는 선반공이 되는것이 희망이었으나 뜻밖에도 로동지도원방에서 그 소원이 뒤집히고말았다.



견장자리가 또렷한 군관저고리를 입은 로동지도원은 배치받으러 온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차례로 그들의 의향을 물었다.

좁 허약해보이는 사람에게 로동지도원이 의향을 묻자 그는 미리 준비나 해두었던듯이 벌떡 일어서며 대답했다.

《일자리를 끌라가며 일할 때가 됩니까? 전 당에서 가라는데로 가겠습니다.》

《중소. 어디 아픈데가 있소?》

《제 몸에는 아직 미국놈의 파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국의 상처를 가시는 일에서 혈한곳을 찾겠습니까?》

로동지도원은 그에게 믿음에 찬 시선을 보내며 자재창고원자리를 권했으나 그는 끝내 건설직장 배치장을 받아들고 나갔다.

로동지도원은 그를 문밖까지 바래주고 돌아와 나에게 눈길을 돌렸다.

《정년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야지?》

《예.》

《그럼 동문 열관리공 일을 좀 해보자우.》

나는 막연하게나마 억눌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제 의향을 표시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동지를 앞둔 그날은 몹시도 추웠다. 림도강 바람이 뼈속까지 일어들게 맴짜게 불었다. 덧저고리도 없이 색날은 군복을 줄여입는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기관실의 커다란 철문을 향해 다가갔다. 시커먼 철문이 별로 커보이며 위압감마저 들게 했다. 잠시 울렁거리는 가슴을 다잡은 나는 쪽문을 밀고 안에 들어섰다. 송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귀메게 울리고 시뻘건 불을 헤집는 땀에 뜬 열관리공들이 첫눈에 띄었다. 천정에서 쏟아져내리는 햇빛에 먼지알갱이들이 자오록이 떠다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여기서 꽤 일해낼수 있을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가뜩이나 체소하고 갈비뼈가 알른알른해서 어머니가 늘 걱정이었는데 불을 다루는 일을 제대로 해낼것 같지 못한 위구심이 나의 마음속에 견잡을수 없는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때마침 키가 꺾두룩하고 검은데안경을 쓴 사람이 용해공춤을 추는 무용수처럼 불길에 이글거리는 화실에 석탄을 퍼넣고 빙그르르 돌아서다 나를 보고는 싱긋이 웃었다.

나는 그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그는 나에게 왜 왔는가고 묻지도 않고 평삽을 들어 유리창문이 달린 휴게실을 가리켰다. 나는 그의 친절에 다소 기분이 유쾌해져 휴게실로 들어갔다.

휴게실에는 얼굴이 떡관같은 사람이 담배를 피워물고 반들반들한 책상우에서 풍다리연필로 무언가 쓰고있었다. 그는 내가 들어서자 고개도 들지 않고 《어떻게 왔나?》 하고 조용히 물었다.

《여기 배치되어왔습니다.》

《그-래 ?!》

그는 말꼬리를 길게 끌며 머리를 들더니 비웃는지 기특해하는지 분간기 어려운 표정을 지으며 나를 찬찬히 쳐다보았다.

나는 온몸에 구멍이라도 뚫리우는것 같아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까스로 다잡았다.

《꽤 일할가? 여기 일이 험치 않은데.》

코구멍이 시원하게 열린 그의 넓은 얼굴에 나를 동정하는 기색이 어리었다. 나는 전신이 줄어드는것만 같았다. 하지만 너무 알잡아보는것 같아 《할수 있습니다.》 하고 저도 모르게 담차게 대답했다.

《그으-래, 그렇단 말이지.》

그는 작업일지를 쑥 밀어놓더니 나를 향해 비죽이 웃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룡기가 어렸다.

증기가 실실 새는 방에는 배관까지 물어놔서 발바닥이 후끈후끈 달아올랐다. 갑자기 더운 방에 들어와 더욱 빨개진 나의 얼굴을 뜯어보던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움쪽 일이나 나를 끄당져 장의자에 앉혔다.

《막냉이가 없다 했더니 잘 왔어. 난 기관장이요. 원무라고 하오.》

그는 나의 작은 손을 큼직한 자기손에 꼭 잡아 천채 농을줄을 물랐다.

《우리 일은 공장에 증기를 팡팡 보내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사람들을 다 덥게 해주는거야. 현장을 뜨뜻하게 해주고 합숙도 덥게 해주구, 식당엔 밥을 하도록 증기를 보내주지. 일이야 참 좋은 일이지 매일 목욕도 하구.》

원무기관장은 열관리공의 임무를 통속적으로 표현하며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듯이 말했다.

《지금 공장에선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천짜는 기계를 만들고있지. 그걸 만들어야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풀수 있거든. 그래서 모두들 밤을 패며 일하지. 그러니 우리가 증기를 많이 생산해서 보내줘야 마음놓고 일하지.》

나에게는 그의 감정이 더운 온기와 함께 전류처럼 흘러들었다. 어깨가 벌어지고 목이 굵은 기관장의 듬직한 모습은 외삼촌을 방불케 했다. 이윽고 키 큰 사람이 휴게실로 들어왔다. 그는 안경을 벗어들고 수도물을 꿀꺽꿀꺽 맛스레 마시고는 목덜미로 흘러내린 물을 팔소매로 훔쳐냈다.

《막냉이가 생겼소.》

기관장이 덤배연기에 눈을 잔조롭히며 룡기어린 시선으로 나를 가리켰다.

《그래요. 미리 인사하길 잘했구만.》

키 큰 사람은 나를 향해 빙그레 웃으며 안경을 껴다. 나는 그가 몹시 불편스러워보였다. 안경을 끼고 물을 뺄려니 얼마나 말쑥했는가.

《그러니까 내가 막냉이에서 해방되는셈인가, 허허.》

《조원길동무가 잘 키워보우.》

《열관리는 헐치 않은데… 해낼가?》

《글쎄말이요. 그럼 로동파로 다시 보낼가?》

기관장은 작업일지갈피에서 배치장을 슬며시 뽑아들었다. 순간 나는 모욕감과 함께 로동지도원 방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라 가까스로 자신을 다잡고 《여기서 일하겠습니다.》하고 장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허허허.》

《하하하.》

두사람은 몹시 통쾌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나는 어안이 다 빙빙해졌다. 웃음소리에 뒤따른 그들의 살뜰한 눈빛이 나를 감쌌다.

《그럼 우리 막냉이에게 보이라우경을 시켜야겠구만.》

기관장은 손톱까지 타든 담배를 다시한번 더 빨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기관장의 뒤를 따라 저탄장에서부터 송풍기실과 뽑프실, 정류탱크며 쇠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안전번까지 돌아보았다. 보이라우에 두텁게 깔린 먼지가 발목에 잠겼으나 나는 조금도 실똥한 생각이 들지 않았다. 때마침 점심시간을 앞두고 불판정리가 시작되어 온 보이라칸이 불빛으로 변했다.

조원길은 두툼한 장갑을 왼 왼손으로 화염을 막으며 땀에 뿜서 불판정리를 했다. 그는 화실문턱에 의지하여 긴 쇠장대를 능란하게 움직이며 망작같은 슬라크덩이들을 끄집어내곤 했다. 그때마다 시뻘건 불덩이들이 떨어져내리며 열기를 풍겼다.

《불판정리할 땐 생불이 안나오게 하고 밀불을 잘 피야 해.》

쇠장대를 들고 화구로 다가가며 기관장이 나를 향해 말했다. 그들은 마치 용해공춤을 추듯 불판정리를 해나갔다. 하얀 불덩이가 찰떡처럼 진득진득 묻어다니는 화실을 들여다보는 나의 가슴에 쇠장대를 쥐고싶은 충동이 울려밀었다.

《두탄은 살포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요.》

조원길은 덩적한 평삽에 석탄을 푹 퍼서 화실에 살짝 던져넣었다. 화실에 날아든 석탄은 마치 손으로 고루 뿌린것처럼 살포되어 화염속에 잠겨들었다. 탄불을 덮자 점심시간이 되었다. 송풍기를 끄자 갑자기 행뎡그레한 보이라실이 정적에 잠겼다.

나는 삽을 쥐고 슬라크덩이들을 따찌까에 퍼담았다. 몇삽 뜨지도 않았는데 목덜미로 땀이 비오듯하고 두팔이 푹 떨어져나가는것만 같았다.

열관리공들이 목에 돌렸던 수건으로 땀을 씻으며 휴게실로 모여들었다. 쪽문이 열리며 흰 위생복을 입은 등실등실한 녀인이 법랑소랭이와 김이 문문 나는 바게뜨를 들고 나타났다.

《아이구, 화옥아주머니가 오는걸 보니 오늘 특식인 모양이다.》

기관장의 반겨맞는 툭기어린 말에 취사원은 맛장구를 쳤다.

《그럼요. 오늘 원무기관장네가 불을 잘 때워서 식당책임자가 특별히 날 보냈대우.》

철함안에서 기관장이 하얀 법랑식기들을 꺼내놓자 취사원은 누런 기름이 두텁게 뜬 국을 왁왁저어 한그릇씩 퍼놓았다. 그리고는 소랭이 뚜껑을 열고 벌겍게 양념 잘한 돼지고기를 한줌씩 곁들여 놓았다.

《많이들 잡수시랴요. 국은 여기 또 있으니…》

취사원은 무뎌진 마음과 부드러운 미소를 남겨놓고갔다. 열관리공들이 저저마다 점심팩들을 풀어들고 장의자에 둘러앉았다. 나도 의자 한쪽편에 앉아 조용히 점심보를 풀었다. 어린 자식을 일내보내는것이 가슴에 걸려 눈물을 머금고 짜준 점심이여서 그런지 나는 밥판에서 닭알을 보는 순간 어머니에 대한 애뜻한 정을 짜릿하게 느꼈다.

나는 닭알을 뚜껑에 담아 상앞에 밀어놓았다.

《막냉이 너나 먹으라. 많이 먹어야 불판정릴 잘해.》

기관장이 나의 국그릇에 고기를 더 담아주며 닭알까지 쏟아넣어주었다. 나는 어찌나 거북하던지 그것을 먹을수가 없었다.

《여 꼬맹이, 불을 다루는 일이 헐치 않아. 많이 먹으라우.》

더운 방에서 더운 음식을 먹느라 땀을 흘리는 열관리공들이 나를 향해 투박하나 인정에 넘친 말들을 저마끔 했다. 나는 어느새 거북함을 잊고 같이 땀을 흘리며 점심을 달게 먹었다. 좋은 사람들속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궁지가 내 가슴속에 봄풀처럼 자라올랐다.

나는 땀을 식힐겸 밖으로 나왔다. 조용히 숨죽인 보이라실은 나의 이마에 내뿜힌 땀을 시원히 식혀주었다. 불길이 하늘거리는 화실들을 일별하며 후더운 감정에 잠겨있는 나에겐 시커먼 철문조차도 유정하게 안겨왔다. 참으로 로동생활의 첫날에 지울수 없는 추억으로 남은 인상깊은 시간이었다.

## 2

교대시간이 되지 송풍기를 끄고 모두 먼지를 털며 휴게실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불을 덮은 조원길은 조절이 잘 안되는 수면계를 고치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땀에 뜬 얼굴에 단김까지 확확 풍기는 화구우에서 흘러내린 안경도 바로잡지 못하고 막힌 물구멍을 뚫느라 안간힘을 쓰는 그를 보느라니 어쩐지 측은한 한 감이 들었다. 안경을 안긴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보이리공이 되어 사서 고생을 하는지 리해가 안갔다. 그래도 조원길은 나에게 수

먼저 수리법을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한참 신고한 끝에 조절변을 뜯자 더운물이 밑으로 쭉 빠지며 흰김이 물물 피어올랐다. 그가 다시 조절변을 막자 맑은 물이 유리관에 차오르다 빨간 표식을 한 눈금위에 딱 멎어섰다. 그것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나에게 조원길은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일러주며 저녁에 합숙에 들러 책을 가져다보라고 권고했다.

나는 그가 중학교때 담임선생님처럼 생각되어 고마웠다. 했으나 그에 대한 측은한 생각만은 지워버릴수가 없었다.

이제는 목욕을 하고 총화만 하면 된다. 나는 재빨리 목욕탕으로 갔다. 작업반의 막내이로서 목욕탕을 청소하는것이 응당한 일이었으나 반원들이 기특하게 여겨주는것이 고마와 나는 이 일에 류다른 열성을 냈다.

석탄이 개발된 발자국자리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탈의실 발판까지 물걸레질을 했다.

내가 청소를 끝내고 휴게실에 들어서려는데 모자를 눌러쓰고 우에 작업복을 걸친 사람이 손이 새까매서 나타났다.

《물이 좋은가?》

그는 나에게 눈인사를 보내며 조용히 물었다.

나는 방금 우리가 목욕을 해야 할 시각에 나타난 그를 아니꼽게 생각했다.

《종업원목욕탕은 저기 있습니다. 여긴 이제 우리 열관리공들이 목욕해야 됩니다.》

《허, 난 다 한줄 알고 왔더니 어쩐다?》

그는 새까만 손을 든채 난처해했다.

그래도 나는 입을 다물고 쏘는데 휴게실에서 열관리공들이 나오다 그를 보자 《지배인동지, 먼저 하십시오.》 하며 반가워했다.

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싶었다. 지배인을 몰라보고 버릇없이 행동한것이 멧적기 그지없었다.

《주인들을 내놓고 내가 먼저 하겠소?》

몸매가 다부진 지배인은 목소리도 찌렁찌렁 했다.

지배인은 휴게실로 들어갔다. 열관리공들이 뒤따라 들어갔다.

지배인은 수도물에 손을 대충 씻고 작업복에다 물기를 훔치고나서 새까만 가죽담배팩을 꺼내들었다.

《자, 한대씩 태우지요.》

그는 하얀 담배가치를 뽑아 둘러선 사람들에게 곁고루 권하었다.

나는 담배를 권하는 지배인의 손에 눈길이 닿는 순간 놀리지 않을수 없었다. 어쩌면 지배인의 손이 마디가 굵고 손톱이 넓적넓적한게 일 많이한 기관장의 손과 비슷한게 의아함을 금할수 없었다.

조원길은 지배인이 내미는 담배를 수집계 사양했다.

《전 피울줄 모릅니다.》

《허, 그렇소. 그래도 일하고나서야 한대 피워야 피곤이 풀리지 않을까?》

《거야 그렇지요.》

털보 도삼이가 흰자위가 많은 두눈에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지배인을 향해 머리를 끄덕였다..

《헌데 조동무, 동문 기술과에 가서 기계설계를 좀 하라는데 왜 아직도 안가고있소? 뭐 뻔치기를 할셈이요? 가서 좀 도와주요.》

지배인은 얼굴에 미소를 담고 아량있게 말했다.

《저... 사실은 제가 열공학을 전공하다보니 기계공학분야에는 자신이 없어서...》

《자신에 있구없구가 문제요. 오늘 우리 현실은 일자리를 가려가며 일할 형편이 못된다는 자각을 가질것을 요구한단 말이요.》

《예- 하지만 저... 전 열공학을 전... 전문해서...》

조원길은 공연히 안경을 추스르며 얼굴에 딱한 표정을 짓고 뒤말을 잊지 못해 갑자르기만 했다.

나는 그가 안타깝게만 생기되었다. 고도근시로서 힘들게 볼을 때느라 고생할것 없이 기술과로 가면 좋겠는데 왜 그러는지 알수가 없었다.

이때 말없이 담배만 피우던 기관장이 장의자에서 불쑥 일어섰다.

《할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비겁한것이지만 못할것을 하겠다고 하면 허풍이리고 생각됩니다. 조원길동무는 열공학기사입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그를 류학보내여 열공학을 전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원길동무도 우리한테 온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본인의 요구를 고려해주었으면 합니다.》

《허, 가재는 제편이라더니 한짝이구만. 앓소 동무 말을 듣고보니 우리 생각이 짧았던것 같소. 하도 설계력량이 딸려서 그랬더니... 흠, 래일을 회생시켜 오늘을 살고보자고 할수야 없지.》

지배인은 담배연기를 깊숙이 들이빨며 능청스럽게 기관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원무기관장이 누가 뭐라든 제 할 소리는 하는 그 대쪽같은 언행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문에 조원길을 두둔해나서는지 리해가 안되었다.

《그럼 목욕을 하지요.》

지배인은 풍초를 비벼끄고 일어서며 모두를 휘돌았다.

우리는 인차 목욕을 했다. 목욕을 하고나니 몸이 거뜨했다. 하루종일 일한 사람같지 않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열관리공들이 너나없이 기분이 상쾌해져 룡말들을 주고받았다.

기관장은 만족스레 담배 한대를 피우고는 《먼저들 가우. 난 또 직장에서 회의가 있다누만.》 하며 작업일지를 옆에 끼고 휴게실에서 나갔다.

하루일을 끝냈다는 즐거움에 빨갛게 상기된 얼굴을 쪽거울에 비쳐보던 나도 점심팩을 들고 일어섰다.

《동수, 기겠소? 가는 길에 책을 가지가오.》

턱으로 흘려내리는 땀을 훔치던 조원길이가 나를 향해 말을 건네며 따라 일어섰다.

나는 그와 함께 보이라실을 나섰다. 때마침 등근달이 솟아올랐다. 바람도 없어 잠풍했다.

《일이 힘들지?》

앞서걸던 조원길이가 부드럽게 물었다.

《일없습니다.》

《힘들어도 일을 배우는건 좋소. 나도 공부만 하다 일해보니 힘은 들어도 좋은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란걸 체험하고있소.》

그는 나에게 경어를 썼다. 나는 듣기만 했다. 며칠밖에 일해보지 못한 나에게는 할 말도 없었다.

《동수, 동문 좋은 때 로동계급의 대렬에 들어섰소. 이제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면 부러운것이 없을거요. 그래서 다들 힘든걸 참고 뛰고 달리는거지. 동문 일을 착실히 배우면서 공부를 하오. 얼마나 좋은 앞날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소.》

나는 그에게 존경이 갔다. 다 이해할수는 없었지만 그의 말에서 나의 인생행로에 새겨질 리정표들이 보이는듯싶어 더욱 마음이 끌렸다.

나는 그가 이끄는대로 합숙에 따라 들어갔다. 훈훈한 호실에는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상급학교에 못간것을 괴로와하던 나는 굶주린 사람처럼 책을 마구 뒤적거렸다.

《마음대로 책을 가져다보우. 사람은 아는것이 많아야 큰일을 할수 있소. 내가 기꺼이 선생이 되어주겠으니 공학을 전공해보오.》

《고맙습니다.》

책을 한아름 골라든 나는 그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몹시 흥분된 나는 식당으로 잡아끄는것을 뿌리치고 합숙을 나섰다. 등근달이 나를 축복하듯 길을 환히 밝혀주었다.

발이 어데 놓이는지조차 모르게 등등 떠걸던 나는 지나가는 자동차의 전조등빛에 허리를 구뭇하고 걷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보이는 순간 달려가서 그의 곁에 가까이 섰다.

《왜 이제야 가나?》

원무기관장이 나를 알아보고 저먼저 물었다.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전에 그는 《조원길동무한테 갔다오는 모양이구만.》 하고 말을 이었다

《예.》

《그 사람한테서 많이 배우게. 좋은 사람이야. 아는것두 많구.》

《헌데 왜 보이라에 와서 일해요. 기술과로 가면 좋겠는데 뭐 걸리는게 있나요?》

나는 조원길에 대해 생각되는것을 속씨원히 물어보았다.

《글쎄... 걸리긴 뭐가 걸리겠나, 사람이 고지식해서 그러겠지.》

《너무 고지식한것 같습니다. 살줄을 몰라서 그러는지...》

《동무도 그걸 배우라구. 사람이 고지식한게 좋지 제 량심을 속여서야 쓰나. 조동무도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 그러는거야. 열공학분야에서 한몫 해보겠다는 결심이 있지. 그래서 우리한테 온것이고. 우리가 잘 도와주면 그는 앞으로 큰일을 할거야. 사람이 진국이니까.》

순간 나는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얼굴이 회끈 달아올랐다. 내가 얼마나 철없이 생각했는가.

기관장의 말을 들으며 나는 조원길을 옹호해나선 그의 웅심깊은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조국의 상처를 가시는 일에서 험한곳을 찾겠는가고 로동지도원방에서 절절히 울리던 며칠전의 목소리가 새삼스럽게 나의 귀전을 울려주는듯했다.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성스러운 로동과 함께 끝없이 맑고 깊은것만 같았다. 여기서 천리마의 기적이 태어나는줄을 그때는 미처 다 몰랐다.

### 3

로동생활의 나날은 즐겁게 흘러갔다. 눈썰미가 있어 그랬는지 얼마 안되어 나는 다관식보이라한대를 맡게 되었다. 일에 한창 재미를 붙였는데 조원길의 발기로 운탄과 재처리 작업을 기계화하는 사업이 벌어졌다. 보이리칸은 아침부터 제관과 용접, 단야 작업을 하느라 법석이었다.

나도 용접을 배우느라 눈이 벌개 돌아갔다. 보이라공이 되면 불만 때면 되는줄 알았던 나는 눈물이 나오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가시간에는 용접기에 몰여돌아갔다. 교대를 마친후에는 산형강, 레루, 철판을 얻으려 폭격맞은 잔교를 뜯으려 다니 기도 하고 교자재수매소를 찾아가기도 했다.

조원길은 기술지도를 하느라 바빠 돌아가면서 몸아끼지 않고 용접, 제관 다했다. 손서툰 감이 없지 않았으나 기능을 소유하기 위해 아글타글 하는 그를 누구나 탓하지 않았다.

기관장과 털보 도삼이는 어찌나 손발을 맞춰가며 제관작업을 하는지 부러울 정도였다. 도삼은 메질을 할 때도 노래를 부르며 했다.

하루는 소철레루를 얻으려 림도강 하류로 내려갔다. 예전 선창자리에 배들을 비끄러매던 말뚝중에 소철레루말뚝이 있었던것이다. 림춘을 앞두고 강기슭에는 버들아지가 피여 봄마중을 했지만 땅은 콩크리트바닥처럼 팡팡 얼어붙어있었다. 정대를 대고 메질을 하고 공팽이날에서 불씨가 일도록 땅을 팅다.

나는 메질을 몇번 안해도 팔이 푹 떨어져나가 는것 같았다. 허지만 도삼은 백번을 휘둘러대고도 성찬줄을 몰랐다. 털보치고 욕심없는 사람없다더니 도삼은 일욕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여 막내야, 넌 불이나 종 놓으라.》

나 역시 그런이 나올것 같아 찢먹던 힘까지 내여 마지막으로 힘껏 메를 휘둘러쳤는데 그만 도삼의 손등을 때렸다.

《아야야.》

순간 나의 전신에는 땀이 쭉 흐르는듯했다.

도삼은 손을 주무르며 병어리장갑을 벗었다. 손등은 멍이 들어 퍼랬다.

《안됐어요.》

나는 미안하여 몸둘바를 몰랐다.

《일없어, 이것도 투쟁인데 이쯤이야 뭐라나.》

그는 향초를 꺼내 피흐르는 손등에 짹 눌러놓고 목에 들렀던 수건으로 동여맸다. 그리고는 또 다시 정대를 잡았다.

밤이 되어서야 우리는 뒤메터씩 되는 소철레루를 메고 돌아왔다. 그밤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우에 또 소철레루로 길을 만들어 감속기를 단 전동차가 바가지를 물고 왔다갔다하게 했다. 보이라 후문에 조구통도 세우고 권양기까지 설치하였다.

드디어 시운전날이 왔다. 림도강에 얼음장들이 떠내리던 날 보이라칸의 모든 사람들은 아침부터 흥분되어있었다.

나의 마음도 초조했다. 공교롭게도 탁아유치원 방향 보이라에 불을 때게 되어 섭섭한 마음 이루 헤아릴수가 없었다. 밤잠도 잇고 땀을 바친 나의 노력이 무시되는것만 같아 억울한 감도 들었다. 시운전을 할 땐 많은 사람들이 와 보겠는데 외토리 불이나 때고있다는것은 눈물날 일이었다. 그래도 참고 부지런히 불을 때서 압을 올린 나는 시운전을 하기전에 증기를 짜주고 불판정리까지 끝내느라 땀동이가 되어 일을 다그쳤다.

역시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지배인이 나타나자 마음이 더 초조해진 나는 닥치는대로 슬라크덩이들을 마구 끌어냈다. 화구안에 탄을 퍼넣어 불을 났은 나는 송풍기 스위치를 끄고 따찌까를 가져다 재를 떠담기 시작했다. 큰덩이들을 먼저 한번 실어내고 이 일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오는데 기관장이 화구앞에 삼을 쥐고 서서 나들 뿜어지게 쳐다보았다.

《무슨 재쳐릴 이렇게 해?》

나는 창황중에 무슨 말인지 가늠이 가지 않아 《예 ?》 하며 저도 모르게 반문했다.

《생불을 이렇게 끄집어내면 어떻게 해? 탄이 거저 생기는줄 알아?》

늘 무던하기만 하던 기관장의 목소리에 뚜렷한 노여움이 섞여있었다. 생불이 죽으면서 그대로 꺼매진 가루탄이 한따찌까나 실히 되게 화구앞에 쌓여있었다.

나는 불판정리를 할 때보다 얼굴이 더 화끈 달아올랐다.

《아까와할줄 알아야지, 이렇게 일하는 법이 어디 있어.》

《잘못했습니다.》

불판정리를 덤비치며 하느라 생불이 나오는것도 모르고있는 나는 그앞에서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기관장동무, 빨리 시운전을 하세요.》

지배인이 기관장을 향해 소리쳤다.

원무기관장은 삼을 나한테 넘겨주고 조원길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얼굴에 묻는 시선을 보냈다. 조원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기관장은 반원들을 둘러보다 나에게까지 시선을 주었다.

순간 나는 어리둥절했다. 나에게 무슨 결정권이 있다고 묻는것인가, 더구나 국가재산도 아까와할줄 모르는 내가 뭐길래?

허나 원무기관장은 작업반의 한 성원으로서는 나에게 존엄을 주고있는것이였다.

나는 벌쭉 웃었다. 웅쳐던 가슴이 쑥 풀리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피어났던것이다.

기관장은 분전함앞으로 가서 스위치를 넣었다.

전동기가 돌아가자 케블선을 꼬리처럼 길게 단 삭도바가지가 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갔다.

《야!》

언제 모여왔는지 기관실안에 비좁게 모여섰던 사람들이 환성을 질렀다.

《거, 달구지소리같은거 요란두 하다야.》

텔보 도삼이가 두눈을 휘번득거리며 좋아라 웨쳐댔다.

《달구지소리가 나도 우리가 만든거니 좋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아 좋지 않구.》 하고 고개를 연신 주억거렸다.

《기계조절을 잘해야겠어요.》

조원길이 기관장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기관장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저탄장에 가서 운탄작업을 한번 하고 재를 실어 조구통에 가져다 부릴 때까지 삭도는 잘 움직이였다.

지배인은 흡족한지 동행한 사람들과 무슨 말인가 하며 웃었다. 스위치를 끄자 기관실안은 삼시에 조용해졌다.

《수고했소, 수고했던 말이에요.》

《우리 수준에서 이만하면 대단한거요. <천리마> 호프락포르도 시운전할 때 앞으로 간게 아니라 뒤로 갔다던데. 허허허.》

지배인은 작업복 앞자락을 활 열어제끼며 호탕하게 웃었다.

《이제 소리가 적게 나게 기계조절을 더 하겠습니다.》

기관장이 지배인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게 하면 한결 좋아질거요. 공장에선 도와준게 아무것도 없는데 소문없이 이렇게 해놓으니 얼마나 좋소. 동무네가 자력갱생봉화를 들었소.》



지배인은 온 공장에 일반화해야겠다는 말을 덧붙이며 주물직장 용해공들이 무거운 쇠물바가지를 들고다니면서도 기술혁신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탓하기도 했다. 그는 다시한번 열관리공들을 축하해주고는 기관장을 데리고 직장사무실로 갔다.

《상이라도 듬뿍이 줄려나?》

도삼은 사기가 나서 휴계실로 들어가면 벌쫓거렸다.

《상보다도 우리 열관리공들이 험하게 일하게 됐으니 그게 좋지 않소.》

조원길이는 수도물을 마시며 흥겹게 말했다.

《거야 말할게 있소, 이제는 따찌까에서 해방되게 됐는데. 허허. 거 볼판정리두 기계화하면 좋겠습다.》

《그것도 앞으로 합시다. 할수 있을거요.》

조원길이는 신심이 생기는지 헉헉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 보이라공들이 넥타이를 매구 일하게 되는데 아니야. 허허허. 좌우간 하자구.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되긴 되누만, 응?!》

《그게 중요한거요. 모든 일의 성과를 좌우하는 첫공정이기도 하지.》

도삼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쁨을 억제할수 없는 듯 《날 좀 보소오. 날 좀 보소오.》 하고 코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의 기분도 폼다. 일하기가 이렇게도 좋은가! 마음먹기가 첫공정이라는 조원길의 말의 심원한 뜻을 다는 몰랐으나 결심하고 나서면 무슨 일이나 할수 있다는 신심이 온몸에 넘쳐났다.

원무기관장이 휴계실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담배에 갈증을 느낀 사람처럼 철함에서 향초를 봉지채로 꺼내놓고 굵게 말아 불을 붙였다.

《거, 상이라도 주겠답니까?》

기관장을 향해 도삼이가 톡조로 물었다.

《상은 좀더 일을 많이 하구 타자구.》

《난 또 지배인이 우리 기관장을 달고 가드라니 좋은 일이라도 있는가 했지. 허허. 틀렸군. 히긴제 하는 일을 험하게 해놓고 상달라는게 말이 안돼지, 안돼.》

도삼은 제풀에 웃고말았다.

《좀 의논할 문제가 있소.》

기관장은 반원들을 둘러보며 정색해서 말했다.

《아까 지배인도 밀했지만 지금 공장에서는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방직설비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떨쳐나섰소. 헌데 주물이 걸렸단 말이요 첫공정이 걸렸으니 재간이 있소.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주자는거요.》

기관장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쩐지 그가 방금 성공한 기계를 떼주자는것만 같아 아연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게도 고생스레 만든것을 써보지도 않고 남에게 주자는게 말이나 되는가. 아무리 지배인이 지시한다고 해도 우리가 만든것이니

줄수 없다면 그만일것이다. 나는 반원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조원길이는 무언가 가슴에 짊이는것이 있는지 퍼울줄 모르는 향초를 한줌 꺼내어 후들후들 떨리는 손바닥우에 놓고 주무르기만 했다. 옆에 앉은 도삼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껴진 장갑에서 실밥만 뜯어내고있었다.

아니나다를가 나의 예감은 틀림이 없었다.

《고생은 좀 했지만 난 우리가 만든것을 통채로 떼다 용해공들에게 주자는거요. 그러면 공장에서도 허리를 좀 펼거구 생산도 올라갈게 아니요.》

기관장은 말없는 반원들을 둘러보며 제 할말을 다했다.

나는 도삼의 무릎을 툭 쳤다. 그는 버릇처럼 끄덕끄덕하던 고개를 들었다.

《주면 주는거지 뭘 오래 생각할것 있소. 오늘 아예 떼다주자구요.》

도삼은 눈을 휘번득거리며 반원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는 깜짝 놀랐다. 도삼이가 그렇게 나을줄은 꿈에도 몰랐던것이다. 욕심이 많은 그가 어떻게 이렇게 나을수 있는가?!

《주물이 걸렸다니 줍시다. 그리고 우린 경험을 살려 더 잘 만들어놓읍시다.》

조원길이는 안경을 고쳐쓰며 동의해나섰다.

《좋습다. 그렇게 하자구요, 난 처음 망설였댔소. 우리 동무들이 고생고생한건데 쉽게 입이 떨어져야지. 이제보니 내가 뒤떨어진놈이요.》

우리 이번에 기술혁신만 한게 아니라 사상혁명도 한셈이요. 허허허.》

《그래서 우리가 천리마를 타자는게 아니요.》

도삼의 말에 모두가 통쾌하게 웃었다.

나는 다시한번 아연했다. 그렇게도 피땀을 바쳐 아글타글 만든 제것을 그렇게도 험사리 남에게 주자고 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리해해야 할지 어안이 병병해지기만 했다. 남에게 무엇을 특별히 주어본적이 없는 나는 그저 그들의 진심에 감동했고 자기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그 정신에 저절로 머리가 숙어졌을뿐이었다.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네것내것이 따로없고 제몸 아끼지 않고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칠 열관리공들의 숭고한 세계는 나의 어린 뒷에 별처럼 빛을 뿌려주었다.

나는 허끝을 깨물며 자신을 타매했다. 민청원으로서 당과 수령을 위해 한몸바치겠다고 말은 많이 했지만 리해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저촉되면 앞뒤도 가리지 못하고 덤비는 나같은것이 무슨 로동계급이며 천리마를 탄단 말인가.

일하는 재미에 하루하루의 로동생활이 그저 즐거운것으로만 생각되던 나에게 그날은 로동계급의 어깨우에 실린 무게의 참뜻을 알게 한 추억깊은 날이었다. 나는 운탄설비부속품들을 어깨에 메

고 주물직장으로 가면서 그 무게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 4

대줄기같은 비가 려사흘 퍼부었다. 어디에나 물란리가 났다. 지대가 낮은 공장구내는 물바다가 되었다. 전쟁때 미국놈들이 폭탄을 마구 퍼부어 패우고 허약해진 림도강쪽은 금시라도 무너져 물사태가 날것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동막이에 달라붙었다.

휴계실에서 기관장과 조원길을 비롯한 열관리공들이 옷을 벗어놓고 동쪽 막으러들 나갔다.

《기관장동지, 저도 나가겠습니다.》

나도 옷을 벗었다.

《여기도 사람이 있어야지 다 나가면 어떻게나.》

《여, 막녕이. 넌 여기서 집이나 지키라우.》

도삼은 나를 끌어주려는듯 히물히물 웃었다.

나는 억울했으나 더 말을 못했다. 몇달사이에도 좀 크고 기능도 늘었지만 아직도 막녕이 취급을 받는것이 한편 서글프기도 했다.

대줄기처럼 내리드러온 비속으로 맞받아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언제면 저들처럼 될가 하고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조용해진 휴계실안에 혼자 있으려니 락수물소리만이 크게 들려왔다.

우르릉 팡! 푸른 섬팡이 번뜩이며 우리가 울었다.

나는 저탄장으로 해서 물이 들어올수 있다는 생각에 뒤문을 막으러 나갔다. 아니나다를가 시누런 황토물이 금시라도 문턱을 넘어서려 흰거품을 안고 빙빙 돌고있었다. 나는 젓먹던 힘까지 내여 모래가마니를 들어 뒤문으로 날라갔다. 한줄쌍고 그 째에 삼으로 흙을 다져넣은후 또 한줄 올려쌍고 발로 팡팡 다쳤다.

그 일을 끝내고나니 이번에는 송풍기실 천정으로 비가 새기 시작했다. 나는 연자돌같이 큰 전동기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유지를 가져다 씌웠다. 그러고나니 전신이 나른한게 손가락 하나 움직일수가 없었다. 나는 휴계실에 들어와 털썩 주저앉았다. 이때 며칠전에 놓은 전화기가 자지러지게 울렸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예, 열관리공 리동수 전화받습니다.》

뜻밖에도 지배인한테서 오는 전화여서 가슴이 다 두근거렸다.

지배인은 물이 들어오지 않는가, 비새는곳이 많은가, 전동기들을 물먹지 않게 잘 보라고 지시를 주고는 인차 전화를 끊었다.

지배인의 얼굴조차 똑바로 쳐다볼 생각을 못하던 내가 전화까지 받고보니 순간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게 되었다. 기관장도 없는 이때 지배인의 지시를 명심해야 되겠다는 자각은 나에게 어른이 된듯한 감을 느끼게 했다. 어디서 생겼는지 모를

힘을 안고 나는 송풍기실로 갔다. 천정에서 비새는 구멍이 훨씬 넓어진것이 첫눈에도 알렸다. 서까래가 썩어 처진것이 눈에 보였으나 나는 전동기를 떼 옮겨야겠다는 생각에 다른 생각을 더하지 못했다. 당장 전동기건사를 해야겠다는 순간적인 결심은 나의 손발을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했다.

죽을 힘을 다해 기초볼트에서 나트를 풀어낸후 삼발이를 가져다 세우고 전동기고리에 활차를 걸었다. 따르륵 ! 따르륵 ! 복합활차의 이발돌아가는 쇠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며 쇠사슬이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지레대를 가져다 떠주기도 하며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기어이 전동기를 해체해서 안에 들여다놓고보니 어쩐지 한숨이 후 나갔다. 동시에 나도 이제는 무엇이든 할수 있구나 하는 긍지도 생겼다. 해놓은 일을 보니 나 자신이 놀랍기도 했다. 나에게 무슨 힘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나 해보았던가.

참말로 무슨 일이나 하자고 결심하고 나서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던 기관장과 조원길의 말이나를 부추겨주고 떠밀어주었던것이다. 그래서 마음먹고 나서는것이 첫공정이라 했구나 하는 말의 참뜻을 나는 처음으로 심장속에 진리로 새겨안게 되었다. 로동에 대한 희열과 신심이 가슴가득 넘쳐났다.

밝은 벌써 어두워졌으나 비는 여전히 내렸다.

무슨 일인가 더 찾아서 하려던 나는 비속에서 떨며 들어올 기관장이랑 생각나서 구리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아 화구안에 들여놓았다. 더운물이라도 마시면 속이 훈훈해질것이다.

저탄장이며 송풍기실이며 뿔프장을 한바퀴 돌아보고나서 다시 휴계실에 들어온 나는 재털이를 보는 순간 문득 이제 오면 담배부터 찾을 기관장이랑 생각나서 비속을 뚫고나갔다. 어머니가 쓰라고 생활비에서 준 돈을 쥐고 식료양점으로 달려갔다. 《혁신》 두곽을 량겨드랑이에 끼고 휴계실로 돌아온 나는 앞상 재털이 좌우에 한곽씩 놓았다. 지금껏 남을 위해 좋은 일 한것이 별로 없던 나는 무엇인가 남을 위해 마음쓴다는것이 기쁨을 자아냈다.

나는 로동의 희열을 안고 래일의 풍만한 생활을 그리며 행복에 잠겨있었다.

저벅저벅...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동막으러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시퍼렇게 언 그들은 너나 없이 턱을 덜덜 떨었다.

《어 춥다.》

조원길은 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절인 오이처럼 된 손을 맞비비었다. 어딘가 모르게 폭 쫓아든듯싶었다.

《수고들했습니다.》

나는 따뜻한 방안에 있던것이 무척 미안스러웠다.

기관장은 비물을 흠치고나서 《혁신》부터 집어들었다. 담배팩을 켜 그의 손이 뽕뽕은것처럼 덜덜 떨렸다.

《누구 담배야? 한대 피워두 되지?》

나는 실개미소리로 대답하고는 밖으로 나왔다.

《거 동수가 사다놓은것 같수다레.》

털보 도삼이가 하는 말을 나는 등뒤로 들었다.

《허, 그놈 거 허허.》

기관장의 목소리가 친근하게 들렸다.

《생각이 엉큼한 친구요.》

조원길의 목소리도 들렸다.

나는 화구안에서 설설 끓는 주전자를 꺼내들고 휴게실로 들어갔다.

《출겠는데 더운물을 드십시오.》

나는 법랑고뿌에 김이 서리오르는 물을 부었다.

모든 반원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집중되었다. 믿음에 찬, 사랑에 넘친 눈빛들이었다.

《허, 우리 동수동무가 꽤찮단 말이야.》

나갈 때는 막내이라고 끌려주던 도삼이가 이번에는 나를 동무라고 불렀다.

나는 그것이 고마웠다. 한편 면전에서 칭찬받은 것이 부끄럽기도 했다.

기관장은 눈을 잔조롭히고 담배를 열성스레 빨아대며 나를 계속 쳐다보았다.

《난 보이라칸이 온통 물바다가 될줄 알았는데 예까진 물이 미치지 못했구만.》

기관장은 입술이 잘 놀려지지 않는지 말을 떠듬거렸다.

나는 침묵을 지켰다. 제 자랑을 하는것 같아 입다물고있었던것이다.

《참, 사람의 힘이란 대단한거요. 그 물을 막아내다니!》

조원길은 아직도 가슴속에서 그 어떤 충격의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는지 동막이하고온 일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아마도 인간의 힘의 위대함을 실천행동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모양이었다.

《난 막 동이 터지는줄알았단니까. 사람들이 몸으로 성을 쌓고 막아서니 물도 숙어들려구만. 허허.》

도삼은 역시 두눈을 회번득거리며 자랑스레 말했다.

나는 그들이 부러웠다. 목숨걸고 나간것도 장한일이거니와 자기들이 한 일을 두고 떳떳이 말할수 있는것이 또한 얼마나 멋있는 일인가!

갑자기 송풍기실에서 우지직 쿵! 하며 무엇인가 떨어져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끝내 일을 치누만.》

주섬주섬 옷을 입던 기관장이 갑자기 《야, 전동기!》 하며 굳어졌다.

《전동기는 떼 건사했습니다.》

《응?!》

《무슨 일이에요?》

조원길이가 안경을 닦던 손을 멈추었다.

《송풍기실 서까래가 썩은걸 수리하자구 했는데 저렇게 떨어지고야마누만.》

기관장이 달려나갔다.

나도 그의 뒤를 따랐다. 아뿔사! 전동기가 놓였던 자리에 돌기와와장이 떨어져내리고 천정에 구멍이 펴 뚫리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까 보고도 왜 고칠 생각을 못했던가.

기관장은 구멍이 뚫린 천정을 올려다보았다.

부러진 서까래가 건등 들리었다. 불빛에 올려다보이는 하늘에서는 콩알같은 비꼬치가 구슬을 뿌리는것처럼 보였다.

《서까래를 마련해놓고도 손을 못썼구만. 쯔쯔.》

기관장은 후회막심한듯 허를 찼다.

《전동기는 어떻게 했소?》

도삼이가 물었다.

《우리 동수동무가 미리 치웠구만, 침 다행이요.》

《아니, 동수 혼자서 그걸 떼치웠단 말이야?》

도삼이가 놀라며 나를 바라보았다.

《허허, 그것 참, 주인이 다되었는데...》

도삼은 나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기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탄장 쪽문을 열려다나를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모래가마니로 문을 막았습니다.》

《글쎄 이상하다 했지. 여기에 물이 안들어올터이 없는데... 수고했구만.》

《동수동무가 용소. 정말 주인이 다되었소.》

조원길이기도 감탄한 어조로 말하며 사랑스런 시선으로 나를 애무했다.

나는 그들이 그 무슨 영웅처럼 나를 칭찬하는 바람에 얼굴이 뜨거워지지 않을수 없었다. 정말 서까래를 미리 고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가.

《오늘은 어쩔수 없구만. 래일 대책하지요.》

기관장은 나를 이끌며 제앞서 휴게실로 향했다.

퇴근길에 오른 나의 마음은 울썸년스러운 날씨와는 너무도 상반되게 고무풍선처럼 떠올랐다. 나도 이제는 마음먹고 나서면 무엇인가 할수 있다는 신심이 가슴을 한껏 부풀어오르게 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더 찾아서 할수 있을까?

흥에 겨워 코노래를 부르며 횡단 철길을 건너는 나는 남쪽 하늘가에서 밀려오는 먹장구름을 보는 순간 송풍기실에 물도랑이라도 좀 내고올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되짚어 공장으로 달려갔다. 생각을 즉석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수 없는 충동이 나를 공장으로 달려가게 했다.

휴게실에는 전등이 그냥 커져있었다. 누가 아직도 안들어갔을까?

나는 삼을 찾아들고 송풍기실로 갔다. 뜻밖에도 그곳에는 기관장이 키높은 사다리를 가져다놓고 서까래를 교체할 준비를 하고있었다.

(래일 대책하자고 한것은 우리를 집에 보내기 위해서였구나 !)

나는 목이 꼭 메었다.

《왜 왔소 ?》

기관장은 나를 보자 통명스럽게 물었다.

《기관장동진 왜 안갔습니까? 》

《나? 허허, 내가 안가서 다시 왔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침 한사람 있었으면 했더니 됐구만.》

기관장은 바줄 한끝을 허리춤에 차고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자꾸 위로 올라갈수록 나는 그를 더욱 우러러보게 되었다. 자신은 돌보지 않고 작업반을 위해 아글타글하는, 그 무슨 일이나 타발없이 제힘으로 수격수격 해제끼는 기관장의 모습은 나로 하여금 천리마기수의 전형으로, 삶의 영원한 기억속에 추억으로 남을 충신의 모범으로 인박했다.

3년만에 나는 기계전문학교로 가게 되었다. 마침 과학원으로 소환된 조원길이기도 떠나는 바람에 휴계실안이 다소 쓸렁한 감은 있었으나 기관장은 웃으며 바래주었다. 그는 천리마선구자대회에 가서 탄 《천리마》상표가 찍힌 만년필을 나에게 주었다.

조원길은 공식집을 기념으로 주었고 도삼은 학습장을 종이에 싸서 주었다. 그것들을 받아드는 순간 나는 이 휴계실을 떠나서는 못살것 같은 생각이 가슴을 꽉 메웠다. 이들을 두고 내 혼자 어디에 간단 말인가!

학교에 안가겠다고 내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원무기관장이 나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흔들었다.

《가서 공부 잘하라우. 그리구 우릴 잊지 말구.》

《예.》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고개를 돌리고말았다. 지금도 잊을수 없는 그들이다.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가장 뜨겁게 손잡아 이끌어준 그들을 내 어찌 잊을수 있으랴. 언제나 그때처럼 살라고 나를 부르고 이끌어주는 추억도 새로운 미더운 모습들이다. 백발이 성성한 원무기관장은 지금도 얼마나 높이 서있는가!

헌데 나는 어느덧 그때를 잊고있지 않는가. 진심으로 일할 대신 찍하면 손내밀고 타발하고...

확실히 자신이 변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이 휴계실처럼 사물현상은 시대와 함께 변해도 혁명하는 인간의 본성이야 변해서 되겠는가?

원무기관장은 오늘도 곳곳이 체모습으로 서있다. 헌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한가? 아직도 나의 머리속에 《첫공정》의 진리가 그대로 새겨져있는가.

나는 확실히 그것을 망각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그것을 신념으로, 의지로 간직해야 앞이 열리고 래일을 확신할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다시한번 그것을 새삼스럽게 신념으로 간직해야 했다. 참으로 기관실의 애젊은 청년이 나로 하여금 잊을수 없는 그때를 찾게 해준것이 다행스러웠다.

나는 흥분을 안고 보이라실에서 나왔다. 몸과 함께 마음속까지 깨끗이 씻게 된것이 기쁘기도 했다.

구내 고성기에서는 보천보전자악단에서 형상한 《그때처럼 살고있는가》의 선율이 힘차게 울려나오며 나의 가슴을 흔들어주었다.

# 백두가 말하는 소리

(총련) 박 종 일

고요한 삼지연못가에 서니  
어데선가 들리는 소리 있어  
신비스러운 소리가 있어  
내 마음 설레네  
귀기울여 들어보네

나무들이 바람에 설레이는 소리일가  
내 발밑에 물결치는 소리일가  
지그시 눈을 감으니  
내 마음 더욱 설레네

소리 소리 그 소리는  
저 멀리 백두산이  
이역땅 먼곳에서 찾아온  
나를 굽어보며 말하는 소리  
아, 말하는 소리

항일전의 그 나날에  
비발치는 총탄속을 헤치며  
이 땅에 목숨바친  
렬사들의 넋을 불러 전하는  
백두산의 목소리

저 남해기슭에  
짓밟힌 동포들을 부르며  
한밤에도 잠 못드는  
백두산이 부르는 소리  
아, 그 소리

지그시 눈을 감으니  
그 소리에  
백두산의 세계가 다 있네  
내 가야 할 길을  
다 가르쳐주네

소리 소리 그 소리  
내 심장의 맥박이 되고  
내 한생의 노래가 되고  
내 최후의 순간에도 버리지 못할  
어머니의 목소리  
백두밀림에 있네

(조선대학교 문학부)

# 고향이여

김 진 주

이제는 눈 감고도  
서들지 않게 곁을 수 있으리  
정든 언덕길과 마을가를  
시내물 아련히 흐르는  
그 징검다리며 작은 지름길도

이제는 눈 감고도  
서들지 않게 느낄 수 있으리  
실하게 자란 뒤산의 나무들과  
향내 좋은 산꽃들 길가의 풀잎들도  
구름처럼 무리져 흘러간  
염소들의 향긋한 그 젖내음새도

고향  
길가에 덩구는 그 작은 돌조차  
내 마음에 소중한 고향  
층층 다락밭의 푸른 잎조차  
나를 멀리서부터 반겨주는 고향

고향이여

너는 얼마나 나를 사랑했던가!  
초록빛 정자나무 그네에  
앵두같은 유년을 실으며 바래우며  
꿀내를 풍기는 민들레 향기를  
창가에 가득히 어리어주며

그 얼마나 나는 즐거웠던가!  
나지막한 봄언덕에 자주 올라  
들꽃을 꺾게 엮던 그 등산길이  
가시나무에 손이 갈키면서도  
빨간 산딸기 달게 먹던 그 학교길이

하지만 고향이여  
너는 진정  
사랑만을 단맛만을 주었던가?  
말조차 처음이던 고난의 날에  
내 처음으로 배운것은  
어머니의 밥그릇 슬며시 남겨두고  
남모르게 마시였던 물 한그릇이었고  
한밤에도 노래소리 산골을 울리며



마음합쳐 쌓아가던 발전소의 터전이였다

흘리는 나의 땀이  
멀리 서 가까이에서  
감자꽃 향기로, 전류의 흐름소리로  
풀뜰는 염소들의 정겨운 방울소리로  
들에 언덕에 노래처럼 울려갈 때  
고향은 아 고향은  
더 가까이 나에게 오지 않았던가

오, 무심히 걸을수 없는 고향이여  
너의 그 산딸기 그 가시나무  
그 다락밭이며 작은 풀잎에도

아끼고 가꾼  
나의 숨결, 나의 땀 다 비껴있어  
정녕 나의 온몸처럼 소중한 고향이여  
내 영원한 사랑의 샘터인 고향이여

바치는 그것이 삶이어서  
바치는 그것이 사랑이어서  
고향이여, 조국이여  
너를 위해 웃고 노래부르리  
너를 위해 가슴태우며  
나의 이 생도 다 바치리라!

## 세계작가일화

### 서로 다른 길을 걸은 두 형제작가

1937년 7월말 일제가 강점한 베이징에서 주작인 (1885~1967)이 괴뢰베이징정부의 교육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경악감을 금치 못하였다.

《너절한놈!》

《천하에 둘도 없는 인간쓰레기!》

그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것은 그 주작인이 바로 《중국의 얼굴》로 평판이 자자했던 로신(본명 주수인, 1881~1936)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이었다.

로신으로 말하면 얼마나 정의와 진리, 양심을 사랑한 작가였던가.

《야구정전》을 창작하여 전중국을 각성시킨 작가, 1930년에는 《중국좌익작가련맹》의 결성에 앞장서 인민의 찬탄을 받던 그.

사람들이 더욱 잊지 못해하는것은 로신의 마지막 학생애였다. 2만 5천리 장정중에 있는 홍군대오에 《당신들에게 인류와 중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축하전문을 보내어 시련을 이겨가는 그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던 일, 립중을 앞둔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고 비수같은 필치의 글로 원수들을 전몰케 하던 일...

하기에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그의 링구에 《민족의 녀》이라는 글발을 드리우고 눈물을 흘리며 작가와 함께 걷고걸었다. 아니, 온 중국이 따라 걸었다.

그런데 동생은...

《이 사실을 알면 로신선생이 땅속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거요.》

《로신선생의 가문에 저런 추물이 있디는게 믿어지지 않는구려.》

입을 모아 터져나온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베이징을 휩쓸었고 전중국에 퍼져갔다. 주작인이 왜놈의 개로 전락된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주작인도 처음에는 5.4 신문학운동에 앞장선 작가였다. 그는 1917년부터 베이징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봉건문학타도》에 열을 올리였다.

그러나 5.4 신문학운동이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자 겁을 집어먹고 그 길에서 물러났다. 《유모어와 한적한 소품을 창작하는 것이 기본이다.》는 궤변을 꿰치면서...

더우기 일제의 중국침략이 박두한 시기에는 《소탈같은 인생문제를 묘사한 소품은 백편의 반일구국선언보다 낫다.》고 하면서 장개석도당의 투항주의정책에 맞장구를 쳤다.

인민들의 분노는 극도에 달하였다.

《주작인을 쳐죽여라!》

《〈중국의 얼굴〉에 흠칠을 한 〈중국의 추물〉!》

인민들의 저주가 어찌나 컸던지 이를 외면할수 없게 된 국민당정부도 1945년 일제가 패망한후 주작인을 친일본자로 재판하고 10년형을 언도하였다. 그후 국민당정부가 붕괴되는 바람에 풀려나 오기는 하였으나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 죽을 때까지 집에만 박혀있는 《죄인》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두 형제작가의 서로 다른 길은 그들의 운명까지 판이하게 만들어놓았으니, 로신은 짧은 생애에 영생을 얻었으나 주작인은 치욕스러운 한생애 《죽음》을 얻은셈이었다.

리동성

# 나에게는 영웅제자가 있다

-김광철영웅을 키운 교원을 대신하여-

허수산

해빛밝은 교정에 들어설 때나  
기쁘고 어려울 때나  
선뜻 내 가슴치는 생각 있어라  
-나에게는 영웅제자가 있다 !

한생 교단에 서있는 사람치고  
가르치는 제자들속에  
이름있는 영웅 있기를  
바라지 않는 교육자 어디 있으며  
그런 소원속에 한생을 사는것이  
교원의 삶이라고도 말할수 있나니

오 그러나 영웅 김광철 나의 제자여  
이 평범한 담임선생에게는  
너무나 큰 행운이 차례졌구나  
우리 장군님께서 것처럼 사랑하시고  
온 세상에 내세워주는 그대가  
나의 제자일줄 어이 알았으랴

한없는 영광과 기쁨이 가슴을 메우건만  
크나큰 죄송함 금할수 없구나  
두려워라 그대를 나의 제자라고  
감히 부르는것이  
내 그대의 스승이라고  
감히 가슴펴고 나서는것이-

나는 다만 6년세월  
그대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때로는 엄하게 꾸중도 하고  
때로는 별많은 밤 어깨나란히 걸으며  
너의 미래를 두고 심장 불태웠을뿐...

그이 아니시던가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참다운 인생의 길로 이끌어준것은  
오로지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

터지는 수류탄 몸으로 막은 너의 위훈  
온 세상에 빛내주신분도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

자식 키운 부모에게  
그 무슨 수고를 물으며  
제자를 가르친 선생에게서  
그 무슨 값을 계산하랴

하지만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영웅의 선생이라고  
온 나라에 내세워주고  
세상에 더는 없는  
영웅을 키운 선생들의 회의  
전설같은 회의에도 불러주시였어라

오, 공화국영웅  
동지애의 영웅 김광철아  
내가 너를 가르쳐  
그대의 선생이라  
그대가 나에게서 배워  
나의 제자라

내가 영웅의 선생으로 떠받들리고  
네가 나의 제자로 이름 빛나는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신  
크나큰 표창  
최대의 사랑이고 믿음이나니

오 나에게는 영웅제자가 있다  
나는 영웅을 키워낸 선생  
우리 장군님 안겨주신  
이 사랑 이 믿음 속에  
이 나라에 영웅의 숲은 무성하리라  
그 길에 교육자의 한생 더욱 빛내리라